

9

주체103(2014)

문 학 예 술 출 판 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3(2014)년 제9호

(루계 제803호)

## 차 례

로국송가(시) .....	한 원 희(3)
사랑하는 어머니로국이여! 외 1편 .....	박 현 철(4)
백두의 하늘길 .....	김 성 조(5)
<b>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b> .....	(18)
<b>단편소설</b> 력사에 새겨지지 않은 전투 .....	라 광 철(6)
어머님이 남기신 주소(가사) .....	문 기 창(18)
어머님 그리워 부르는 노래(시 묶음) .....	정동찬, 전승일, 김 연, 김정삼(19)
불멸의 화폭과 더불어(수필) .....	박 혜 란(21)
<b>주체문학의 대강</b> .....	(28)
끝까지 이어가리 백두의 행군길(시 초) .....	차영도, 류동호, 김형찬, 리명옥, 김석천, 한광춘, 리동수, 김만영, 문용철(23)
고 향 외 1편 .....	정 두 국(27)
{ 인민의 제일행복(가사) .....	김 남 수(41)
시 내 사랑 고향집뜰안(가사) .....	김 분 동(28)
{ 바다와 고향집 웅달샘 .....	김 광 호(30)
아이들의 웃음으로 밝아지는 내 나라 .....	위 명 철(42)
로국의 존엄지켜 병사가 있다(가사) .....	차 철 호(42)
{ 수 } 공화국기발에 대한 추억 .....	최 인 혁(29)
{ 필 } 과원은 설레인다 .....	리 영 환(60)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  
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 정 은



증 명 .....	백 상 균(31)
별을 찾는 사람 .....	홍 남 수(47)
잊을수 없는 축구경기 .....	류 민 호(62)

### ◇ 평 론 ◇

바다만풍의 선률속에 넘쳐나는 서정의 향기 .....	권 선 철(43)
선군시대 우화문학의 새로운 면모 .....	김 영 애(57)

### 。 시 。

행 복 .....	김 경 석(46)
탄부의 불공길 .....	리 명 학(46)
신령금강의 노래(시초) .....	박 웅 전(55)
그 부름이 귀중해 .....	신 문 경(61)
《로영》과 로영 .....	박 명 출(68)

시대의 숨결과 호흡을 같이하는 시인(방문기) .....	본사기자(77)
두견화전기(사화) .....	리 빈(73)

# 조국송가

한 원 희

날마다 기쁜 소식을 전해 주누나  
조국이며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며  
날마다 경이적인 일들이 펼쳐지누나  
조국이며 인민공화국이며

아침보도엔 청천강 수백리굽이마다  
거창한 발전소건설이 마감계선에 돌입했다는  
가슴벅찬 기쁨을 안겨주더니  
낮보도엔 남흥과 홍남의 주체비료들이  
함박눈같이 쏟아져 내린다는 소식이 날아드는구나

동해에서 터져오른 물고기풍어 포성에  
서해에서 풍어의 노래로 화답할 때  
대동강기슭에 미래과학자거리  
평성벌에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눈부시게 일떠서는 모습  
텔레비죤화면에 비껴오누나

시간마다 분초마다  
들끓으며 솟구치며 전진하는 조국이며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황홀히도 꽃피우며  
한껏 젊어지고 젊어지누나  
조선속도를 온 누리에 떨치며  
민족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는 그대의 모습

인민을 위해 건설하고 또 건설하며  
굶임도 없이 쉬임도 없이  
행복을 꽃피워가는 그대  
수천만 아들딸들을 한품에 안은  
어머니 그 사랑  
날마다 전변의 새 소식에 다 담겨있구나

오늘에 일떠세우는 그 모든 창조물들에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는  
그대의 드림없는 그 의지  
거기에 인민의 운명을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천년만년 책임질 사랑이 어려어려  
때없이 걱정의 눈물을 불러내누나

고마워라 끝없는 은정에 목메여라  
대원수님들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신 조국이며

그대만이 준엄한 년대와 년대를 넘고넘으며  
인민사랑의 역사를 아로새겨올수 있고  
그대만이 오고 또 올 세월과 세월우에  
인민사랑의 세계를 찬란히 수놓을수 있구나

보아라  
그대 높이 추켜든 공화국기발아래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으로 화목하고  
이 땅의 끝에서 끝까지 어디서나  
사회주의선경 무릉도원이 솟아나  
행복의 노래소리 웃음소리 넘치니  
금수강산 내 나라 더더욱 아름답구나

아, 이 세상에 그 어디 또 있으랴  
그대처럼 신심드높이 비약하는 나라  
그대처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시련을 눌러딘고 고난을 박차버리며  
인민의 만복을 안아오는 나라  
날마다 위훈의 새 소식 새 전파로  
무한한 우주를 짝 채우는 나라

오로지 그대 하나뿐이여라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신 백두산천출위인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셨기에  
그대는 참된 어머니조국  
그대는 참된 삶의 품  
그대는 우리 목숨이며 생명의 전부

열가지 백가지 그모두 인민을 위해  
그대는 정치사상강국으로 솟아올랐고  
천가지 만가지 그모두 인민을 위해  
그대는 군사강국의 준엄을 지녔거니  
그대앞에 어떤 원수 감히 범접할수 있으랴

끝없이 무궁번영하여라 나의 조국이며  
내 그대를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리라  
그대의 아들답게 이 한몸 바치리라  
아아, 노래불러 다함없는 조국이며  
백두산대국의 위용을 길이길이 떨치라!

#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이여! 외 1편

박 현 철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조국이여!  
내 그대 위하여  
바친것 과연 무엇이던가

그러나 달리는 부를수 없는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이여  
오늘의 나를 위해  
그대는 얼마나 마음기울이며  
위대한 헌신의 날과 달을 걸어왔던가

철없던 시절엔 내 다 몰랐다  
이름없는 이 아들의 출생을 위해  
보석깎린 산원의 애기궁전이  
어떻게 이 땅우에 솟아났는지  
마음껏 뛰놀며 시름없이 자라라고  
탁아소 유치원뜨락마다에  
어떤 진정을 고여왔는지

아플세라 병날세라  
무상치료혜택을 안겨주고도  
때없이 우리 집 작은 문을 두드리며  
위생가방 메고 찾아오던 사랑이여  
자라며 내 크며 다 알았노라  
어머니의 크나큰 그 사랑인줄

눈물겹도록 고마와라  
고난의 행군길 걸을 때에도  
이 아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며  
배움의 종소리 더 높이 울려준 그 사랑  
허리띠를 천번만번 조이면서도  
무상치료의 큰 대문만은  
한치도 단 한치도 닫지 않은 그 은정

간고한 선군길 걸으면서도  
인민위해 곳곳마다 일떠세운  
새 발전소 새 물길들...

그것은 나를 위해  
이 땅의 수천만 아들딸 위해  
자기를 깰그리 다 바친  
아, 위대하고 거룩한 헌신

불면 날을가  
취면 꺼질가  
고난과 시련속에 날 안아 키워준  
조국위해 내 진정 바친것 무엇이던가  
설사 해놓은 일 있다 해도  
받아온 산갈은 사랑과 믿음앞엔  
한갓 작은 모래알이 아니냐

내리사랑 있어도  
올리사랑 없다고 전해오더라  
그것은 자식들이 바치고바쳐도  
어머니 기울인 그 사랑에는  
비길수도 견줄수도 없다는 말  
언제면 그 언제면  
조국의 그 사랑에 우리 다 보답하랴

죄스러워라 어머니조국이여  
지금껏 내 스스로없이  
그대를 사랑한다 외워온것이  
하나 바치고 또 바쳐  
피와 목숨까지 다 바친대도  
이 땅의 그 누가  
그대를 땀땀이 사랑한다 자부할수 있으랴

아, 그러나 달리는 부를수 없는  
사랑하는 어머니 나의 조국이여  
나는 그대를 사랑하리라  
우리는 그대를 사랑하리라  
진정 다해 따르며 받드는  
순결한 량심과 보답의 걸음으로  
내 삶의 끝까지 우리 생의 한끝까지  
그대를 목숨바쳐 사랑하리라!

## 아, 나도 그대희冀!

두번다시 대지를 밟을수 없는  
침상의 영예군인  
그의 왼손에  
붓대를 쥐여주며  
나는 그에게 시를 배워주었다

엄마품에서 첫걸음 떼는  
갓난아기라 할가  
가갸거겨를 처음 익히는  
철부지소년이랄가...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것 험치 않아  
침상에서 모대기는 그를 바라보며  
그에게 나의 모든것을 다 주리라  
말없이 생각했던 이 마음

모진 진통과 고민을 이겨내며  
한편 또 한편 그의 시가 태어날 때  
쓰러졌던 한 인간을 일으켜세운  
자랑과 긍지 가득차올랐건만

한자 또 한자 결코 손으로만이 아닌  
신념과 의지의 덩어리 그 심장으로  
쓰고 또 쓴 그 시들이 보석처럼 빛뿌릴 때  
그는 나를 보며 《선생님!》...  
진정 고마움에 목메여 불렀건만

아니여라 영예군인시인이여!  
나로 하여 그대가 일어선것 아니거니  
생의 마지막피 한방울 남을 때까지

백절불굴하려는 전사의 그 의지 칼날같아  
번쩍이는 그대의 시가들이 태어난것이다

그렇다 시는  
그 시를 쓴 사람의  
사상과 신념 의지의 총체  
달리는 될수 없는 시인 그자신

그대 붓을 전 왼손을 내 덧감아쥐고  
가까져겨 익히듯 시가를 익혀줄 때  
안해의 등에 업혀 신천으로 백두산으로...  
멀고 험한 현지체험의 길 그대 떠날 때  
나는 보았다 그대자신이 불덩어리—시임을!

내가 그대를 배워준것 아니다  
그대가 나에게 투쟁의 참인생을 가르쳤나니  
고마워라 영예군인시인이여!  
머리속이노라 순간순간 불굴하는 그대 삶앞에

## 백두의 하늘길

김 성 조

길은 길이어도  
세상에 이런 길은 없었구나  
내 때없이 문득 바라보며  
뜨거움에 젖어 목이 메이는  
백두의 하늘길

전설의 노래도 많고 이야기도 많아  
신비스러운것이 하늘이라 했건만  
그 신비로움의 세계를 넘어  
하늘이어  
내가 안은 전설아닌 전설이 이 가슴을 치나니

밀림속 눈보라 자욱자욱에  
혁명의 신념과 의지를 다진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원들  
이제 자신의 곁으로 돌아오련만  
그리운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러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의 마음속에  
기다림의 순간은 천년이였다  
보고싶고 안아주고싶은 그 모습들앞에  
경애하는 원수님 떠올리신것은  
우리 장군님 심장에 안아 더웁힌  
철령과 오성산  
그리움의 산악이였다

진정할길 없는

그이의 가슴속에 흐르는 분분초초  
—기다림의 시간은 사라지라  
그것은 나의 시간은 아니다  
심장속에 단호히 선언하시며  
그리움의 화산을 터치는  
그이의 시간은 사랑과 믿음의 불길이였나니

조선혁명의  
첫기슭에서 시작된 동지애의 불길을  
만리창공에 들어올리시며  
백두산을 향해  
몸소 비행기에 오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천고밀림의 산발들을 넘으시고  
구름을 헤쳐넘으시여  
수천리 하늘길을 지척인듯 달려가시여  
감격에 목이 메여 울고웃는 동지들을  
백두의 한푼에 억세게 안으시였다

동지!  
위대한 심장에 뜨겁게 고통치는 그 부름을  
활활 타는 정파 열로 하늘에 새기신  
동지애의 화신 김정은동지  
그이는 혁명승리의 진리로 영원할  
동지애의 하늘길을 열어놓으시였다!



# 경사에 새겨지지 않은 전투

라 광 철

1

두만강과 서두수가 합수되는 곳에 자리잡고있는 무산군 삼장면소재지는 산골치고는 꽤 번창한 마을이었다.

경찰서, 면소를 비롯한 관청들이 서슬퍼르게 일떠섰고 산림청부업자들과 때군들이 드나드는 려관과 객주집, 가게방들이 길 양옆으로 쭉 늘어섰다.

자주색저고리에 감장치마를 받쳐입으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청취며 닥지썩, 참나무, 병풍과 같은 산나물이 가득 담긴 싸리바구니를 옆에 끼고 기본거리에 들어서시었다. 산나물절기로서는 한물 지난듯 한 때였지만 어디서 뜯으셨는지 바구니안의 산나물들은 이른 봄철의것들처럼 그렇게 연하고 만문하고 생신해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예리한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적들의 동태를 알아보시기 위해 우정 경찰서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대홍단전투후 한달만에 또다시 부대를 이끌고 조국으로 진출하신 사령관동지로부터 전략적요충지로 되고있는 이곳 적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지하조직들을 지도할데 대한 임무를 받고 지하조직책임자를 찾아가시는 길이었다.

그이께서는 보초병이 말뚝뚝처럼 곳곳이 서있는 경찰서앞을 지나시다가 순간에 찬바람이 휘익 불어친듯 가슴이 서늘해움을 느끼시었다.

얼핏 경찰서 앞마당쪽을 스쳐보시였지만 유능한 지하정치공작원으로서의 감각은 순간에 눈을 부릅 뜬 보초병놈과 정문으로 드나드는 경찰놈들의 살기

편 얼굴들에서 어느때없이 살벌한 분위기를 감촉하시었던것이다.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구나. 혹시 이놈들이?...)

예감이 좋지 않으시었다. 대홍단전투후 국정경비를 물샷틈없이 강화하고 도처에 밀정들을 박아놓은 놈들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한시바빠 이 예감을 확인해보아야겠다고 생각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급해지는 마음을 애써 다잡으시며 장보러 오는 사람들속에 끼여 사람들이 봄비는 장거리에 들어서시었다.

지하조직책임자를 만나려면 이 장거리를 지나 저 앞산언덕을 넘어가야 했다.

장거리는 화전에서 나는 감자, 보리, 밀뿐이 아니라 얼간한 송어, 전어, 젓갈품 등 동해의 어물까지 울망줄망 펼쳐져있어 체법 흥성이었다. 그러나 장군은 하나인데 풍각쟁이 열둘이라는 식으로 사가는 사람은 얼마 없고 흥정군만 많은데다가 비릿한 냄새에 파리새끼들까지 럽치없이 웅웅거려 물고기장사군들은 그것을 쫓느라 버들가지를 회회 내젓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값들을 흥정하는 사람들사이로 걸음을 옮기시며 그들의 동향에 주의를 돌리시었다. 말 한마디한마디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었다.

사람들이 별로 봄비는 곳에 이르니 만주에서 날라온듯 붉은 수수쌀자루를 앞에 놓고있는 눈이 부리부리한 청년이 흥이 나서 이야기판을 벌려놓고있었다.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인지 그 주변에서 감자

나 콩나물을 펼쳐놓고있던 사람들도 그것을 아예 내버려둔채 그 청년의 곁에 모여들어있었다.

《아니, 박돌이 이 사람, 옥돌골이면 여기서 두만강 건너 코앞이 아닌가. 거기서 유격대가 대낮에 백성들과 같이 공도 차고 노래도 부르며 놀았던 말이요?》

이야기를 듣고있던 한 사나이가 잘 믿어지지 않는듯 캐어물었다.

《뭐 그뿐인줄 아시우? 침침하던 그 동네가 영판판이 됐수다. 울통불통하던 마을길은 대채의 길처럼 번듯해졌고 고삭아버렸던 동기와지붕들도 삭수리해놓아 새 마을같아보입니다. 그리구 몇년째 손 한번 대지 않던 우물까지 말끔히 가서내고 방틀에 지붕을 척 씌워놓은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내 말을 정 믿지 못하겠으면 한번 가보시라요.》

박돌이라는 그 청년은 자기의 말을 잘 믿지 못해하는 그 사나이를 치며보며 면박을 주었다.

그러자 그 사나이는 멧적은듯 몽툭한 제 코등만 주먹으로 문지르더니 싱긋 웃으며 푸점 좋게 또 물었다.

《아니, 그런게 아니라... 그래 그걸 다 유격대가 했던 말이요?》

《그렇지 않구요. 유격대가 왜놈들과 싸움만 잘하는가 했더니 백성들을 위해서는 정말 못하는 일이 없다우다. 유격대가 여기에도 언제 올지 모르오다.》

신기한 꿈이야기처럼 정신이 팔려 듣고있던 사람들은 이곳에도 유격대가 올수 있다는 그 청년의 말에 금시 눈들이 둥그래져 서로 마주보았다. 돌쩌차림으로 맨앞에서 이야기를 듣고있던 나이가 좀 지긋해보이는 사나이가 머리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하긴 김일성장군님 유격대야 가랑잎 한잎으로도 강을 건는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 왜놈들이 망할 날도 멀지 않은것 같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노예의 쇠사슬에 피멍이 들고 숨막히는 가난과 천대에 눌러 허덕이면서도 김일성장군님의 유격대만 하늘처럼 믿고 살아가는 인민들의 마음이 가슴저릿이 안겨와 자신도 모르게 심호흡을 하시였다. 이처럼 살벌한 속에서도 제 말을 주저없이 탕탕 하는 청년이 대견하기도 하시였다.

이때 누구인가 휘파람소리같이 말했다.

《췌, 저기 까마귀가 와요. 무슨 김새를 챜젓 갈아요.》

아닌게아니라 장거리입구로부터 검은 제복을 입은 순사가 이곳으로 다가오고있었다.

누구인가 다행이라는듯 한마디했다.

《아, 저건 박순사로구만.》

《그래도 왜놈의 순사복을 입었는데... 주의하게 좋아요.》

《그렇지 않구, 짓지 않는 개새끼라구 물지 않을텐가. 요즈음 놈들이 별로 살기를 떠는게 무슨 쪼간이 있는것 같애...》

사람들이 술렁술렁 헤어져갔다. 흥이 나서 이야기판을 펼치던 청년이 흘끔 그 박순사를 보더니 입을 삐죽이 내밀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얼른 자리를 뜨시려다가 얼핏 생각되시는것이 있어 그 총각과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서시였다. 보리쌀을 사시려는듯 이 자루에서 저 자루로 옮겨가시며 한줌씩 쥐여보시였다.

박순사는 제창 그 박돌이앞에 와 섰다.

장마당사람들의 눈길이 자연히 그리로 쏠리는게 알렸다. 박돌은 눈을 내려간채 적삼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마라초를 맡며 씹쓸해있었다.

《만주에 갔다더니 언제 왔나?》

《어제 왔수다.》

그는 마라초를 맡아물고 부시들을 팡팡 쳐대며 맞갖지 않게 대답했다.

《그래 갔던 일은 잘됐나?》

《뭐 잘되구 안되구 할게 있나요, 먹고 살아가자니 그저 이따금 행상도 다녀보는거지요.》

그는 담배연기를 훌훌 날리며 불손하게 말했으나 박순사는 그런데는 아무런 내색도 나타내지 않았다.

《요새 살아가기가 어려운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뭘 좀 가져다 먹어라.》

《됐수다. 까마귀는 까마귀밥을 먹고 박새는 박새먹이를 먹고 살지요.》

그는 점점 더 빈정거렸다.

《망할 녀석, 아무 말이나 탕탕... 이번에 또 걸렸다가는 정말 무사치 못해. 요즘은 그럴 때가 아니야.》

박순사는 눈을 부릅뜨며 이렇게 엄포를 놓고는 획 돌아섰다. 순간 김정숙동지께서는 박순사의 날카로운 눈길이 자신쪽을 훑는것을 감촉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바싹 긴장해지시였다.

박순사는 그대로 몇걸음 걸어가다가 또 고개를 획 돌렸다. 아무래도 낮이 선 모양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모르는척 쥐고있던 수수쌀을 가늠해보시듯 주르르 자루에 놓으시였다.

박순사는 눈을 찔프리고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듯 싶더니 다시 돌아서서 저벅저벅 걸어갔다.

그의 뒤모습을 흘깃 쳐다본 박돌이가 흥- 하고 코방귀를 뀌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가 가자 팽팽해졌던 긴장이 좀 풀리는것과 함께 그와 박돌이사이가 무엇인가 좀 류다르다는 생각을 하시며 번잡한 장거리를 떠나시였다.



《요즘은 그럴 때가 아니야.》라고 하던 그 순사의 말이 별로 고막을 파고드는듯 하시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도 자꾸 떠오른다. 무엇인가 꿰뚫어보는듯 한 눈빛이다. 분명 그 눈빛에는 흑백을 정확히 가려낼듯 한 판단력이 비껴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어쩐지 마음이 불안하시었다. (놈들은 지금 무엇을 어느 정도 알고있을까. 만일에 놈들이 우리 사령부의 위치를 알고있다면?...) 어쨌든 빨리 지하조직책임자부터 만나셔야 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삼장과 림강사이로 흐르는 서두수다리목으로 접어드시었다.

두만강과 합수되는 서두수아래쪽에서는 떼군들이 떼를 뚫는 맥빠진 도끼질소리와 그들이 부르는 구슬픈 타령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대륙침략전쟁에 미쳐날뛰며 조선의 자원을 강그리 략탈해가고있는 일제에 의하여 태고연하던 북변의 원시림도 한해가 다르게 점점 벌거숭이가 되어가고있었다.

그이께서는 떼군들의 그 구슬픈 타령소리에 가슴이 아려뜰을 느끼시며 다리를 건너 중평마을쪽으로 걸음을 재촉하시었다.

중평에는 삼장지구 지하조직책임자인 마인국이 살고있었다.

(적들은 분명 그 어떤 큰 사변을 예견하고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한번 자신의 예감이 빗나가본적이 없음을 재삼 생각해보시며 언덕으로 올라서시었다.

신록이 짙은 숲속길로 들어서시는데 별안간 앞쪽 굽인돌이에서 《따릉— 따르릉!》하는 자전거종소리가 야무지게 울리었다.

이어 흙스뽕모자에 밤색골덴양복을 입은 사나이가 자전거를 타고 뚝다 달려왔다. 그자는 얼핏 고개를 돌려보며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서서 길을 가로막았다.

《어디로 가는 길손인가?》

그자는 세모진 눈을 판뜩이며 다짜고짜 따지고 들었다.

《도대체 누구데 길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요?》

김정숙동지의 서늘한 눈빛에 부딪치자 그자는 순간 당황한듯 하더니 자전거를 한옆으로 비켜세우고 제법 레의를 차렸다.

《이것 참 실례했소!》

그리고는 싸늘한 웃음을 지으며 안주머니에서 자기의 신분증을 꺼내들었다.

《아, 형사나리시군요. 난 연사에 사는데 중평마을에 있는 친척집을 찾아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태연히 말씀하시었다.

형사는 수수한 옷차림에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아보이는 김정숙동지의 기품에 주접이 든듯 한순간 주춤거렸다. 그러다 그 어떤 룩감이 들었는지 여하튼 경찰서로 가자고 했다.

《이 고장 사람이 아니니 가서 신분이나 확인합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형사가 눈치채지 못하게 재빨리 주위를 살펴보니였다. 어차피 손을 쓰셔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던것이다. 마침 숲속길은 인적이 없었다. 어디선가 빠리— 빠꼬이유— 하는 산새의 울음소리마저 들려왔다.

이때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방금 지나오신 다리목쪽 멀지 않은 곳에서 《저놈 잡아라!》하는 고함소리와 함께 배잠뱅이를 걸친 청년이 숨을 헐떡이며 죽기내기로 달려왔다. 그뒤로 손에 몽둥이를 든 억대우같은 사나이가 당장 후려칠듯이 바투 따라오고있었다.

《날 좀 살려주세요!... 저기... 저 사람이 날 막...》

배잠뱅이청년은 숨 넘어가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더니 무작정 형사에게 매달렸다.

《야, 이자식이 미치지 않았어?!》

형사는 배잠뱅이청년을 와락 떠밀치며 짹 소리를 질렀다. 《넌 또 누구야?》

그러자 배잠뱅이청년은 형사에게서 떨어져나오며 급시 판사람이 되어 코방귀를 끼었다.

《흥, 이 나리님이 정말 인정이 없구만!》

형사는 그만 깜짝 놀라며 온몸이 굳어졌다.

배잠뱅이청년의 손에 어느새 자기의 허리춤에 찼던 권총이 들려있었던것이다.

몽둥이를 들고 따라오던 사나이가 형사의 등을 숲속으로 떠밀쳤다.

《어서 걸어! 빨리.》

형사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면서도 행여나 구원의 손길이 없는가 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주변에는 인적 하나 없었다. 산새만이 한가로이 우짖고있었다.

배잠뱅이청년과 그를 따르던 사나이가 형사와 자전거를 끌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김정숙동지를 호위하기 위해 따라온 경위중대의 박두철과 장득수였다.

## 2

김정숙동지의 안색은 어두워지시었다. 자신의 예감이 맞았던것이다. 형사놈을 심문하는 과정에 지금 중평마을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을 《토벌》하기 위하여 함북도내 경찰서들에서 악질적인 놈들을 뽑아 조직된 《토벌》대가 들어와 주둔해있으며 삼장

경찰서의 경찰대와 함께 이제 곧 출동할 태세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시었다.

놈들이 노리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

김정숙동지께서는 자못 신중해지시었다.

사령부가 국내로 들어온 시기와 거의 때를 같이 하여 벌어지는 놈들의 《토벌》소동은 분명 무슨 냄새를 맡았다는것을 보여주기때문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풀대를 하나 꺾어 들고 토막토막 끊으시며 생각에 잠기시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번의 국내활동의 기본은 대부대로 적을 치는 전투를 진행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고 하시었다.

북부조선일대의 넓은 지역을 강력한 혁명의 기지로 만들기 위해 지하혁명조직들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소부대들이 국내로 드나들며 활동할수 있는 비밀근거지들을 곳곳에 꾸려놓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시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지금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휘처를 정하시고 북부조선일대의 여러곳으로 파견한 소부대와 정치공작소조들을 지휘하고계신다.

이제 놈들이 출동한다면 사령부의 안전에 엄청난 위험이 조성될수 있다.

사령부에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하지 않는가.

문제는 놈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아내는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긴장해있는 두 대원에게 말씀하시었다.

《동무들은 이제부터 여기 삼장에 있는 적들의 동태를 잘 살피세요.

난 중평에 있는 적정을 알아보고 그곳 지하조직 책임자를 만나보아야겠어요. 그다음 우리의 행동방향을 결심하자요.》

성미가 급한 박두철이 큰일난듯 손을 회회 내저었다.

《지금 중평에 가시는것은 위험합니다. 저 형사놈도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령이 내렸다고…》

《저… 사령부에 보고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득수가 숨가빠 하는 말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사령부에는 언제나 가장 정확한 정보만을 보고 드려야 해요.》

박두철이 얼른 한발 나섰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평에 갔다오겠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었다.

《중평엔 내가 가야 해요. 그곳은 전에 한번 다녀본 곳이에요.

그리고… 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하면서 내가 꼭 지하조직책임자를 만나야 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두 대원을 안심시켜 먼저 떠나보내시고 자신께서는 중평마일로 향하시었다.

지하조직책임자 마인국은 자기 집 마당으로 들어서시는 김정숙동지를 뵈자 와플 놀라 문고리를 잡은채 엉거주춤 일어서며 눈을 크게 떴다.

여느때없이 놈들의 경계가 강화되고 곳곳마다 밀정들이 눈을 밝히고있는 대낮에 김정숙동지께서 이렇게 집에까지 오시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그는 급히 그이를 안방으로 모시었다. 그리고는 저우기 긴장된 안색으로 말씀드렸다.

《이 살벌한 때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오십니까. 지금 적들의 준동이 여간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도 긴급정보가 제기되어 연락원을 보내려고 하던 참입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안절부절하고있는 그의 마음이 헤아려지시여 웃으시었다.

《저도 그래서 온거예요. 참, 허리를 다쳤다고 하던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예?!》

마인국은 이 긴급한 정황속에서도 자기의 건강부터 넘려해주시는 김정숙동지의 다심하신 말씀에 그만 코허리가 시큰해짐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이젠 다 나았습니다.》

《건강에 항상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적들과 싸우자면 우선 건강해야 합니다.》

마인국은 김정숙동지의 뜨거운 인정미에 가슴이 후터워올랐다.

《고맙습니다. 일도 변변히 못하면서 근심만 드려 죄송합니다.》

마인국은 눈을 습벅이며 적정에 대해 보고드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보고를 들으시며 형사놈의 진술이 사실이라는것을 확인하시었다. 하지만 마인국이라도 적들의 출동방향이 어느쪽인지는 자세히 모르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생각이 깊어지시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적정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하시며 그간 지하조직활동정형에 대하여 물으시었다.

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임무의 하나가 바로 이곳 지하조직활동을 료해하고 지도하는것이였다.

마인국은 지금 조선인민혁명군이 두만강연안에서 눈부신 활동을 벌리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삼장지구의 산판인부들과 폐군들, 농민들속에서 《친목회》, 《형제계》, 《농우회》등 합법적인 명칭으로 지하조직을 확대해나가고있으며 그들을 통하여 적정자료를 수집하고 유격대에 대한 원호사업을 해나가고있다고 말씀드렸다. 또한 생산유격대를 조직하여 일단 조국해방의 총공격명령이 내리면 조선

인민혁명군과 함께 전투에 참가할수 있는 준비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드렸다.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활동을 평가해주시고나서 조용히 물으시었다.

《그런데 적통치기관이나 유산자들속에는 왜 조직성원이 한명도 없어요? 그들속에도 민족적광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는데?…》

마인국은 두눈을 껌벅이다가 고개를 기웃했다.

《반일전선에 묶어세울 기본군중도 많은데 하필이면 한줌도 못되는 그런자들한테까지 마음을 쓸 필요가 있을가 하는 생각으로 그만…》

그이께서는 신중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물론 기본군중을 묶어세우는것보다 그들과의 사업이 힘들고 품이 드는것만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도 다 포섭해야 해요.》

사령관동지께서는 민족적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조국광복의 기발아래 묶어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적통치기관에 있거나 유산자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잘 교양하여 조직에 받아들인다면 그만큼 우리의 혁명력량은 강화되고 조국광복의 그날도 앞당겨질거예요. 지금같은 때 적통치기관에 우리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마인국은 얼굴을 붉히며 손을 들어 뒤더수기를 어루쓸었다.

《전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었습니다.》

그저 손쉬운 방법으로… 조직을 늘일 생각만 하다니…》

《참, 그 박돌이라는 청년은 어떤 사람이예요. 그 박순사는 또 어떤 사람이고…》

김정숙동지께서는 장마당에서 있는 일을 이야기 해주시며 물으시었다.

《그 박돌이는 조직성원이 아니예요?》

마인국은 눈을 내리깔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 성격이 좀… 입이 가볍다고 해야 할지… 말이 좀… 많다고 해야 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속에 품었던것은 할 말, 못할 말 막 해서 랑패를 볼 때가 많지요. 조직성원은 좀 신중해야겠는데…》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히 도리를 저으시었다.

《자기를 자각하는 사람은 신중해지는 법이에요. 난 사람은 믿고 키울타이라고 봐요.》

마인국은 어쭙게 웃으며 또 뒤더수기를 쓸었다.

《박순사는 어때요?》

마인국은 그에 대해서는 말도 말라는듯 뒤더수기를 쓸던 손을 앞에 내저었다.

《그자야말로 진짜까마귀가 된자입니다.》

제 4촌동생까지 잡아갔던 놈이니깐요.》

《4촌동생까지 잡아가다니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아연해져서 그를 건너다보시었다.

《바로 그 박돌이가 그놈의 4촌동생입니다. 뭐 아무 말이나 탕탕 하는 그 입버릇을 고쳐준다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 동생까지…》

그때부터 둘사이의 격강천리가 되고말았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거리에서 꺼리낌없이 자기 말을 탕탕 하던 박돌이와 이제 또 걸렸다가는 무사치 못할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던 박순사의 모습이 다시 떠올라 잠시 생각을 더듬어보시었다.

분명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것이 있었다.

《그가 순사질을 하면서 그렇게 나쁜짓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악하게는 놀지 못합니다. 원래 여기 중평출신이니깐요. 그놈두 어렸을 때는 수학공부를 잘해서 마을에서는 신동으로 불리웠답니다. 그닥 잘사는 축도 아니었구…》

《그런데 어떻게 순사가 되었어요?》

마인국은 또 뒤더수기를 굽었다. 습관인듯싶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가 순사복을 입게 된것은… 좀 사연이 있는것 같습니다. 언제인가 그의 큰아버지가 일본놈들이 심으라는 군수생산에 필요한 아마대신 감자를 심었다가 순사놈들에게 들켜된매를 맞은적이 있다고 합니다. 벌금까지 약차하게 물고… 그의 큰아버지는 그때 폐인이 다되었는데 그걸 보고는 그가 머리가 돌았는지 격분해서 순사놈들과 싸울 대신 자기도 순사가 될 결심을 했습니다. 뭐 순사복을 입으면 그런 구박과 천대를 받지 않고 살수 있단나요.… 그래서 순사가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한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김정숙동지께서는 박순사에 대해 이것저것 세세히 알아보시고나서 그의 집이 어디에 있는가고 물으시었다.

그러자 마인국이 깜짝 놀라 눈을 홑떴다.

《아니, 그럼 그를 만나보시려는지니까?》

김정숙동지께서는 혼연한 표정으로 말씀하시었다.

《놈들의 행동방향을 구체적으로 알자면… 내가 그를 만나야겠어요.》

마인국은 황황히 두손을 내저었다.

《아니, 그건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꼭 만나야 한다면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저야 한마음사람이니 감히 어찌지 못하겠지요.》

《아니예요. 내가 만나는것이 더 좋아요. 인국동무는 앞으로도 여기서 계속 활동해야 하는것만큼

만약을 생각해서도 내가 만나야 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결심은 확고하시였다.

마인국은 자기가 일을 쓰게 하지 못하여 김정숙동지께서 이런 위험한 일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생각하는듯 낫색이 킁킁하게 질려 몸둘바를 몰라했다.

《다른 생각마세요. 아무렴 이 김정숙이가 이런 일쯤 감당 못해내겠어요. 그 박돌이란 청년이나 좀 불러주세요.》

마인국의 눈이 화등잔만 해졌다.

《아니, 박돌이도 만나보렵니까? 그 입바른걸 만났다가 괜히…》

김정숙동지께서는 환히 웃으시였다.

《걱정할것 없어요. 그저 불러만 주세요.》

마인국은 뻥뻥한듯 울상을 지은채 앉았다가 마치 못해 일어섰다.

#### 4

박돌은 사기가 나서 어깨를 들썩거리며 앞서걸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여전히 산나물바구니를 옆에 끼고 그의 뒤를 따라걸으시며 조용히 미소를 머금으시였다.

박돌은 자기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이 되길래도 한듯 그저 좋아서 싱글거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방금전 곰바위뒤에서 만나 조선인민혁명군에서 왔다고 하시자 눈이 황소눈처럼 커졌던 박돌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박돌의 도움을 좀 받을 일이 있어서 만나자고 했다고 하시자 박돌은 너무 좋아 대번에 입이 함지박처럼 벌어졌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면야… 그 무엇이든…》

《나와 함께 4촌형님네 집에 좀 가야겠어요.》

《예?!》

박돌이 눈이 또다시 황소눈이 되었다. 멍하니 쳐다보다가 약간 떨리는듯 한 어조로 조심히 물었다.

《그러니… 우리 형을… 처단하시려고?… 하긴…》

박돌은 무슨 큰 결단을 내리는듯 모두숨을 크게 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결이 난듯 넓다 말을 토했다.

《웁습니다. 벌써 처단했어야지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게요. 웅당 죽어야 합니다. 글썽 집안친척들모두가 순사복을 입지 말라구 그렇게두 말했는데… 종내 말을 듣지 않더니… 죽어 싸지요. 죽어야 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생각깊은 눈길로 그를 건너다보시였다.

자기 4촌형을 죽어야 한다고 맹렬하게 주장하는

그의 말속에서 그 주장과는 다른 뜻을 가려보신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였다.

《형님이 그렇게 큰 죄를 많이 졌어요?》

《어쨌든 순사가 아닙니까. 인민혁명군의 원수이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히 명확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순사복을 입었다고 해서 다 원수로 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일을 하는가에 달려있지요.》

참, 박돌동무는 그 형님에게 잡혀가기까지 했댔대지요?》

김정숙동지께서 의미있는 미소를 지으며 물으시자 박돌은 얼굴색이 킁킁해지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예… 사실… 잡혀가긴… 갔었는데… 그건 사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 웃으시였다.

《사실은 그렇게 아니다 이거겠지요?》

《예… 아니… 진짜 잡혀가긴 잡혀갔었습니다. 내가 아무 말이나 탕탕 한다고… 경찰서에 가니 놈들은 다 어딜 갔는지 텅텅 비어있고 형이 혼자 있더군요. 형은 그렇게 아무 말이나 탕탕 하다가는 줄경을 치른다고 엄포를 놓더군요. 거기서 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난 내 입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상관인가고 대들었습니다. 형은 집안일을 생각해서라도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내가 잘못되면 늙은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살아가는가요. 난 상관말라고 했습니다. 형은 뭐 친척들 말을 그렇게 잘 들어서 순사가 되었는데가고… 하면서…》

말에서야 형이 날 당해낼수가 있나요. 화가 난 형은 날 류치장에 가두더군요. 한번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겠는가고…》

난 마음대로 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형은 저녁무렵이 되자 할수없이 날 놓아주더군요. 어디에 나갔던 순사놈들이 돌아올 시간이 다 되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니 형님은 박돌동무를 생각해서 잡아갔더군요.》

박돌은 면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글썽… 그런것 같기는 한데… 췌, 고양이 쥐생각이지요.》

《박돌동무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생각엔 형님이 나쁜 사람같지는 않구만요.》

박돌은 턱을 슬슬 문질렀다.

《예. 사실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됐어요. 나하고 함께 가자요. 형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를 도와나설수 있는거예요.》



그러자 박돌은 희색이 만면해졌다.

《그래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정말 멋있는 데… 감시다.… 가만… 그런데 정말 일없을가요? 순사는 순사인데… 혁명군을 보면 혹시…》

당장이라도 떠나자던 박돌이가 아무래도 미타한 듯 주춤거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소리없이 웃으시었다.

《어서 가자요. 난 동무의 형님을 믿어요.》

이렇게 되어 함께 떠난 길이었다.

박돌은 반걸음 앞서걸으며 성수가 나서 자기 형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사실 우리 형이 순사복을 입고있어도 일본놈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른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순사복을 활 벗어던질수도 없고…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더구나 김일성장군님 빨찌산들 소식을 들을 때면 죄의식때문에 발편잠을 못 자곤 합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박돌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결심이 옳았다는것을 확신하시었다.

《저기가 바로 우리 형네 집입니다.》

박돌이 손을 들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둔덕밑 돌배나무밑에 판자울타리를 두른 동기와집 한채가 서있었다. 삼장거리를 좀 벗어난 조용한 곳이었다.

## 5

박순사네 집에서 돌아온 김정숙동지께서는 곧 박두철과 장득수와 마주앉으시었다.

《급한 정황이 생겼어요.》

도경찰부의 지시로 오늘 밤 이곳 지형에 밝은 가다오까 삼장면경찰서장의 지휘하에 삼장과 중평에 있는 경찰 〈토벌〉대 무력이 〈토벌〉을 떠납니다. 방향은 사령부쪽입니다.》

《예?》

박두철과 장득수가 몸을 흠칫하며 눈을 크게 떴다.

《그럼 놈들이?...》

《그래요. 놈들은 바로 우리 사령부를 노리고있어요.》

박두철이 치를 떨었다.

《그놈들이 감히 어디다대구...》

정숙동지, 빨리 이 정황을 사령부에 보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웁아요. 박두철동무는 빨리 사령부로 떠나야겠어요.》

박두철이 의아해서 눈을 깜벅거렸다.

《그럼 정숙동지는?》

《난 아무래도 여기 남아서 전투를 조직해야겠어요.》

《예?》

장득수가 영문을 알수 없어 눈을 치떴다.

《여기서 말입니까?》

《그래요. 놈들이 사령부를 〈토벌〉하러 가게 그냥 둘수야 없잖아요.》

《웁습니다.》

박두철이 흥분해서 웨쳤다.

《우리 결사전을 벌립시다.》

《그래도 두철동무는 사령부로 떠나야 해요. 천번중의 단 한번이라도 사령부에 위험이 조성되면 안돼요.》

김정숙동지의 결심은 단호하시었다.

물론 사령부에 보고하면 장군님께서는 해당한 대책을 세우실것이다.

그러나 사령부에는 지금 극소수의 인원밖에 없다. 이번 국내진출의 목적이 바로 대부대활동이 아니라 여러개의 소조로 나가 활동하면서 지하조직을 묶어세우는것이 기본이기때문이다.

《박동무는 사령관동지를 뵈게 되면 우리의 계획도 알려드리세요.》

박두철이 조심스레 말씀드렸다.

《사령부에서 안전하게 자리를 옮기면… 놈들이 허탕을 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힘겹게 전투를 벌리지 않아도...》

《사령부가 일시 자리를 옮긴다 해도 장군님께서선 어차피 그곳으로 다시 나오실겁니다.》

《예?》

장득수도 박두철이도 놀라서 그이를 우려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확고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그것은 지금의 사령부위치가 장군님의 작전적 방침을 실현하는데서 제일 유리하고 적합한 곳이기때문이에요.》

그렇게 자리를 옮겼다가 적들이 물러간 다음 다시 자리를 잡으려면 적지 않은 시일이 걸려야 할게고 국내조직들과의 사업에서도 일시 혼란을 가져올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령부로 오고있는 동무들도 있을거예요.》

박두철도 장득수도 신중한 눈길로 마주보았다.

그렇게까지는 생각도 못했던 그들이었다.

그들은 그저 사령관동지의 안전만을 생각했지 그이의 구상과 의도는 미처 헤아려보지 못했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약간 젖은듯 한 음성으로 조용조용 말씀하시었다.

《이번에 장군님께서 국내로 나오시려고 하실 때 많은 지휘관동지들이 앞을 막아섰었어요.》

대홍단전투후 놈들의 경계가 더욱 심해지고 살벌해졌기때문이에요.》

하지만 장군님께서만이 꼭 하셔야 할 일이 있기

에 더는 어쩔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사령관동지께서 왜 이번에 위험을 무릅쓰시고 국내로 나오시였는지 그걸 잊지 말아야 해요.

반드시 장군님의 그 구상과 의도를 가장 빨리 실현하실수 있게 해드려야 해요.

그것이 바로 장군님을 보위하는 길이에요.》

박두철도 장득수도 가슴이 뭉클해서 눈을 습벅거리었다.

이곳에서 전투를 벌이시려는 김정숙동지의 결심이 어디에서 출발한것인지 이제야 알게 된것이다.

어떻게 하는것이 장군님을 옹위하는 길인지 새삼스레 가슴뜨겁게 받아안게 되는 시각이었다.

그랬다. 조선혁명은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이끄실수 있다. 그래서 장군님께서서는 그 어떤 위험한 곳도 다 가신다. 그곳에는 오직 장군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그런 심각하고도 중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기에 우리 전사들은 장군님의 신변을 목숨바쳐 옹위하는것과 함께 그이께서 의도하시고 구상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제때에 원만히 하실수 있게 조건을 보장해드려야 한다. 그 길 역시 사령관동지를 보위하는 길이다. 그들은 힘있게 대답올렸다.

《알았습니다.》

## 6

서두수강변의 비밀모임장소는 이빨나무, 자작나무, 오리나무를 비롯한 혼성림이 우거진 속에 있었다. 거기에 큰 너럭바위가 있어 사람들이 모여앉기는 그저그만이였다. 그 주변에 얼룩점이 돋친 감홍빛의 소담한 나리꽃들이 다문다문 피어난것이 제법 수림속 풍치를 돋구었다.

그곳에는 이미 지하조직의 핵심성원들이 모여있었다.

박두철을 사령부로 떠나보낸 김정숙동지께서는 곧 그들에게로 가시어 한사람한사람 다정히 인사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남달리 기골이 장대하고 날과람있어보이는 한 청년앞에 서시자 미소를 지으시며 마인국에게 물으시였다.

《혹시 이 동무가 전에 도끼 하나로 꿈을 잡았다는 그 동무가 아니예요?》

《예, 옳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저 동무를 이름대신 흔히 도끼꿈이라고 부르고있습니다.》

마인국이 웃으며 말씀드리자 그 청년은 김정숙동지 앞에서 별소리를 다하고있다는듯 눈을 깜빡거렸다. 그러면서도 김정숙동지께서 자기에 대해서까지 다 알고계시는것이 자못 궁지스러운듯 입은 저도 모르게 벅글서해졌다.

지하조직성원들은 그 모양이 우스워 어깨를 들썩

거리며 웃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젠가 마인국이 자기네 지하조직성원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혼자서 도끼 하나로 잡은 꿈이라고 하면서 사령부로 보내온 그 일을 기억하고계시였던것이다.

《그런 힘과 용기면 왜놈 한개 소대쯤은 혼자서도 능히 때려잡을수 있겠어요.》

김정숙동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시자 그는 금시에 어깨를 쭉 펴며 큰소리로 말씀드렸다.

《옳습니다. 한개 소대는 문제없습니다.》

그러자 지하조직성원들이 모두 와- 하고 웃었다.

《그 배심이 얼마나 좋아요. 난 그 말을 믿겠어요. 진짜 그럴 때가 왔어요.》

순간에 비범한 친화력으로 지하조직성원들과 친숙해지신 그이께서는 자리에 앉으시어 지금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해 말씀하시였다.

《그래서 우리는 놈들의 〈토벌〉 기도를 이곳 지하혁명조직의 힘으로 저지시키자는거예요. 누구이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사람들은 다시 긴장해졌다.

자기네 조직의 힘으로 이 엄청난 력량의 적들과 싸운다는것이 너무 중과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주위엔 순간에 엄숙한, 지어 비장하기까지한 분위기가 흘렀다.

모두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입술들을 깨무는데 가죽혁띠에 목갑총까지 찬 허우대 큰 사람이 벌떡 일어섰다.

이곳 생산유격대장이였다.

《결사전을 벌립시다. 사령부로 쏘리는 적들을 우리가 막아서지 못한다면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는 자기들에게 지금 전민항쟁을 위해 마련해놓은 적지 않은 총과 폭약이 있으니 습격전이든 매복전이든 결사전을 벌리자고 했다.

《옳습니다. 결사전을 벌립시다!》

지하조직성원들은 저마다 주먹을 내흔들며 호응해나섰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그들을 둘러보시였다. 사령부의 안전을 위해 한목숨 바쳐 결사전을 벌리려는 그들의 각오에 가슴이 뜨거워지시였다.

《옳아요. 우리 장군님을 옹위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말아야 해요. 그럼 저의 생각을 말하겠어요. 적과의 싸움은 총과 칼로만 하는것이 아니예요. 적과 싸워이기자면 우선 적을 잘 알고 그에 맞게 전술을 잘 세우는것이 중요해요.》

적들과 사생결단할 비장한 각오를 굳히고있던 지하조직성원들은 그이의 말씀에 가슴만 부풀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직 무엇인가 채 깨닫지 못

하고 고개를 기웃거리고있는 그들에게 역량상 우세한 적들과 정면으로 전투를 벌릴것이 아니라 지금 적들속에 만연되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공포의식을 리용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제가 알아본데 의하면 삼장면경찰서장 가다오까는 〈천황〉 폐하를 위해 항상 〈분골쇄신〉을 부르짖고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두만강지구에서 조선인민혁명군활동이 활발해지자 몹시 불안해하고있다고 합니다.

더우기 얼마전 대홍단벌에서 왜놈들이 무리로 녹아난것을 보고는 의기가 소침해져서 어떻게 하나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있다고 합니다.

박순사의 말에 의하면 며칠전 두만강건너 고성경찰분서에서 옥돌골에 조선인민혁명군이 나타났다고 지원을 요구했을 때도 가다오까는 도경찰부의 지시가 없이는 못 간다는 황당한 구실을 대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지금 적들이 도경찰부의 지시로 《토벌》을 떠난다고 하지만 불안과 공포에 속이 한줌만 해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물론 사무라이기질이 골수에까지 뱀 놈들이라 호락호락 굵어들 놈들은 아니지만… 난 얼마든지 우리 지하혁명조직의 힘으로 적들을 제압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숨을 죽이고 듣고있는 사람들에게 자신께서 생각하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였다.

사람들은 모두 환성을 올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매 사람별로 구체적으로 분담을 하시고 자기 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떠나가는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 7

가다오까경찰서장은 이마살을 잔뜩 찌프린채 방안을 오락가락하고있었다. 그는 지금 심마니로 가장하고 인민혁명군의 행처를 찾아 산속으로 들어갔던 밀정으로부터 뜻밖의 정보를 입수했던것이다. 주변산들에 인민혁명군의 대부대가 진을 치고있다는것이였다.

《그래 네 눈으로 직접 빨찌산을 봤는가?》

가다오까는 또 의혹이 생겨 《심마니》에게 거듭 따져물었다.

《글쎄 이 두눈으로 직접 보고 이 두귀로 직접 들었다지 않습니까. 빨찌산의 행처를 찾아 저 강건너 깊은 산속까지 들어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었는데 아, 글쎄 등잔밑이 어둡다고 요 코앞의 산에서 빨찌산의 보조에 걸려들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내가 하도 산삼캐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럴듯하게 얼려넘겨서야 다행히 풀려났지요.》

그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듯 어깨를 떨었다.

《빨찌산이 대체 몇명이나 되던가?》

《그건 정확히 알수 없지만 7련대요, 8련대요 하는 그들의 소리를 가만히 엿들으니 대부대인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모든것을 눈으로 보아서만 아는게 아니지요. 내가 산삼캐는 재간은 없어도 빨찌산의 비밀을 내탐하는 재간은 있지요.》

《심마니》는 밀정으로서의 자기의 수완을 은근히 자랑하며 그쯤하면 인민혁명군이 얼핏 본것만도 수백명은 될것이라고 장담해나섰다.

가다오까는 온몸에 전율이 이는듯 했다. 요새 밤마다 꿈자리가 사납더니 끝내 이런 운수사나운 일에 부닥친듯 했다. 어제 밤에도 얼마전 빨찌산 《토벌》을 나갔다가 대홍단벌에서 처참하게 죽은 동향친구인 스프끼가 꿈속에 문둥병자같은 끔찍한 물골로 나타나 어디론가 가자고 자꾸 손을 잡아끄는통에 질겁하여 비명소리를 내질렀다. 그 비명소리에 옆에서 자고있던 녀편네가 깜짝 놀라 마구 흔들어 깨워셔야 악몽에서 헤여날수 있었었다.

며칠전 도경찰부에서는 두만강건너편에 인민혁명군이 나타났다면 조만간 그들이 국경을 넘어올수 있으니 만단의 경계태세를 취하라는 특별지시가 내려왔었다.

가다오까는 몹시리를 쳤다.

그는 인민혁명군이 제발 자기의 관할구역으로 들어서지 않기만을 하루에도 열두번 속으로 빌고있었다.

《정예》를 자랑하는 수십만의 관동군도 조선인민혁명군을 《토벌》한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썼지만 쓰디쓴 참패만 당하고있는데 자기네 경찰무력으로 도대체 어찌한단 말인가. 드디어 어제 밤 도경찰부에서 명령이 떨어졌다. 출동태세를 갖추고 대기하라는것이였다. 목표는 그리 멀지 않은 농사동쪽이였다.

오늘 저녁 은밀히 출동하게 되어있었다. 틀림없이 공산사령부로 추측되는 소부대원인이 농사동쪽에서 움직이고있다는 통보였다. 소부대라면… 어느정도 신심이 생겼다. 그래서 수하경찰들에게 사무라이기질을 붙여넣느라 악을 써댔다.

혹시 진짜 무공을 세울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무슨 청천벽력같은 일인가. 빨찌산소부대도 아니고 대부대가 농사동쪽도 아니고 바로 이 삼장쪽에 들이닥쳤다니 이거야말로 날벼락이 아닌가.

가다오까의 속마음을 알리 없는 《심마니》는 경찰서장이 자기의 말을 믿지 않는것 같아 또 횡설수설 늘어놓았다.

《내가 만주에서 이런 일을 몇번 해보아서 잘 알지만 그들은 순식간에 대부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순간에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기도 하지요. 거리

에서는 벌써 빨찌산이 쳐들어온다고 법석 끓고있습니다.》

거리에서 끓고있는것은 사실이였다. 지하조직성원들이 활동을 시작한것이다. 《심마니》의 말도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심마니》는 생산유격대원들에게 걸려들어 장득수에게 끌려갔는데 그들이 하는 말들을 렴람하다가 집에 앓는 할머니가 있어 빨리 가야 한다며 죽는 시늉을 해서 겨우 《빠져》나왔던것이다.

그러니 《심마니》가 인민혁명군을 《찾아낸》제 공적을 높이 사주려 하지 않는 경찰서장에게 자꾸 증언부언하지 않을수가 없었고 그럴수록 가다오까는 더욱 전전공공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가다오까는 점점 물러설길 없는 벼랑끝으로 몰아가는듯 한 《심마니》의 그 재수없는 주둥이를 주먹으로 한대 탁 쳐갈기고싶었다.

이때 경찰서정문 앞쪽에서 갑자기 《빵!》하는 요란한 소리가 터졌다.

가다오까는 흠칫 놀라며 재빨리 권총을 뽑아들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정문앞 도로쪽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화물자동차 한대가 서있었다. 그 차에서 운전간문이 벌럭 열리더니 어떤자가 뛰어내려 자동차의 뒤쪽으로 갔다. 그러더니 차의 다이야를 발로 툭툭 차본다. 지나가던 차인데 다이야가 터져나간 모양이였다. 가다오까는 저도 모르게 후 한숨을 내쉬었다.

정문보초를 서던 순사가 달려나가 운전사의 뺨을 연거퍼 후려갈기는것이 내다보였다. 아마 저자도 빨찌산의 습격인줄 알고 어지간히 혼이 나갔던 모양이였다.

가다오까는 손수건을 꺼내어 얼굴에 내뺨 진뺨을 문지르다가 방금전까지 수다를 떨고있던 《심마니》가 보이지 않는것이 이상스러워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겁에 질려 책상맡에 생쥐처럼 들어박혀 두눈만 반들거리고있는 《심마니》를 발견하자 왈칵 분격이 치밀어올랐다.

《야, 이 비겁한 자식! 빨찌산이 쳐들어온다면서 〈천황〉 폐하를 위해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제 살 궁리만 해! 네놈의 목숨이나 그렇게 아까운가?》

가다오까는 가뜰이나 재수없이 보던 참이라 《심마니》를 끌어내어 마구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해댔다.

《아 서장님, 아이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심마니》는 가다오까의 매를 피하느라고 몸을 도사리고 이리저리 돌아가며 손이야 발이야 빌었다.

한참이나 《심마니》에게 화풀이를 하고난 가다오까는 짹 소리를 질렀다.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

《심마니》는 억울하게 얻어맞은 상판대기를 두손으로 감싸쥐고 황급히 달아뺐다.

가다오까는 《심마니》가 사라져버리자 좀 마음을 진정해보려고 담배를 피워물고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가슴이 자꾸 활랑거렸다.

나도 정말 이 땅에서 무주고혼의 신세가 되는게 아닐가?

그는 문득 어릴적에 스뜨끼와 함께 사구라꽃 만발한 고향마을 언덕에 팔배개를 하고 누워 앞날을 꿈꾸던 일이 생각났다.

《가다오까, 너 이제 크면 뭘할래?》

친구름이 몽실몽실 떠있는 푸른 하늘에서 무엇인가 노리며 날아에는 솔개미를 올려다보던 스뜨끼가 묻는 말이였다.

《나? 난 대농장주가 될 생각이야. 저 할아버지때부터 물려오던 과수원은 너무 작거든.》

가다오까가 대답하자 스뜨끼는 흥— 하고 코방귀를 끼었다.

《도제 농장주소리야? 너 〈정한론〉 소리 못 들어왔어? 우리 일본이 잘살자면 조선부터 타고앉아야 한대.》

《체, 남의 나라 땅을 타고앉는게 그렇게 쉬울것 같애?》

《쉬울수야 없지. 하지만 잘살자면 그 길밖에 없어. 조선만 타고앉으면 만주나 다른 나라도 다 먹을수 있대. 사내라는게 뜻이 커야지. 너도 크면 조선으로 함께 가자! 우리 군대가 돼서 사무라이본때를 보여보잔 말이야.》

그러던 스뜨끼는 이미 저승으로 가고말았다. 일본사람들을 것처럼 현혹시켰던 대일본제국의 꿈은 결코 그리 길한것이 아니였다. 아직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일본사람들이 지금도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이른봄 차디찬 비바람을 맞아 진창속에 떨어져내리는 사구라꽃잎마냥 생명을 내던지고있었다. 조선과 만주 그리고 전아시아를 대일본제국의 령지로 만들려는것은 당초에 하나의 망상이였다.

가다오까는 《천황》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친 놈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군 하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것만으로도 목이 열두번 날아날판이였으나 날이 갈수록 그 생각이 뇌리에 요귀처럼 자꾸 들이박히는것을 막아낼수가 없었다.

나는 이제 과연 어쩌면 종단 말인가.

갑자기 누구인가 문을 쿵쿵 두드리는 바람에 그는 와들 놀라 벌떡 일어섰다.

《뭔가? 누구야?》

문이 떨어져나갈듯 벌럭 열리더니 박순사가 뛰어들어왔다.

《서장님, 큰일났습니다.》

《또 무슨 일인가?》



신경이 날카로와진 가다오까는 화들거리는 가슴을 어찌지 못하며 짜증부터 냈다.

《방금 중평쪽에 나갔던 마쓰다형사가 숲속에서 시체가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우에는 뼈라장까지 놓여있었습니다.》

박순사는 마쓰다형사의 피가 얼룩얼룩 말라붙어 있는 뼈라장을 가다오까의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우리와 맞서는자들은 그 누구든 죽음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인민혁명군》

가다오까는 금시 자기의 가슴팍에 총구가 들이 닿는것만 같아 책상우의 종이장을 와락와락 구겨 던졌다.

(제길, 그럼 그쪽에도 빨찌산이 나타났단 말인가. 정말 신랄귀몰이로구나. 그들이 이 가다오까를 죽이자는게 분명하구나.)

몸이 사시나무 썰듯 했다. 빨찌산의 목표는 농사동쪽이 아니라 이 삼장면이다. 삼장면... 그렇게도 내 관할구역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빌고 또 빌었건만...

그걸 확증이라도 하듯 박순사가 겁질린 소리를 또 했다.

《서장님, 지금 거리가 뒤숭숭합니다. 빨찌산이 당장 쳐들어온다면서...》

《알고있다, 알고있어.》

가다오까는 금시 미칠것만 같았다. 뒤집을 지고 땡이처럼 방안을 뱅글뱅글 돌다가 마침내 결심을 하고 전화통에 달라붙었다. 중평에 있는 《토벌》력량은 물론 도경찰부에 전화를 하여 린근의 경찰 무력들을 다 불러다 진을 쳐야 하는것이다.

하지만 수화기를 들고 아무리 찾았으나 전화기에서는 아무런 감도도 없었다.

《빨찌산이 벌써 전화선까지 끊어놓았구나.》

가다오까는 들고있던 수화기를 마구 내동댕이쳤다. 그리고는 분별없이 고아됐다.

《빨리 전투준비를 갖추라!》

《서장님,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박순사는 선볼맞은 짐승처럼 날뛰는 가다오까를 지켜보며 걱정스러운듯 물었다.

《빨찌산이 쳐들어온다는데 그저 이러구있겠는가. 이제는 〈천황〉 폐하를 위해 싸우다 죽는 길밖에 없다.》

《서장님, 저도 〈천황〉 폐하를 위해 옥쇄할 각오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왜 벌써부터 죽을 생각만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앓으나서나 벼락이야 치기마련이 아닌가.》

《서장님, 진정하십시오. 조선속담에 범의 굴에 끌려가도 제정신만 가지면 살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생각을 잘해보아야 합니다.》

박순사가 여유있게 말했다.

가다오까는 박순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한가닥 기대를 가지고 물었다.

《그럼 박순사의 생각은 뭔가?》

《예. 지금 거리에서는 백성들이 당장 싸움이 벌어진다고 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가려고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그들을 붙잡아두어야 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그는 눈을 데룩거리며 박순사의 앞으로 바싹 다가섰다.

《예. 인민혁명군은 원래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두고있으면 방패를 쥐고있는것이나다름없지요.》

《음, 백성들을 인질로 써먹는단 말이지!...》

가다오까는 박순사의 말이 그럴듯하여 머리를 끄덕이며 생각을 굴려보았다.

《예. 그리고 중평에 있는 〈토벌〉대와 관하 주재소경찰들까지 빨리 여기로 불러다 력량을 강화하여 철저한 방비를 갖추면 빨찌산도 감히 쳐들어오지 못할것입니다.》

《음, 최대의 방어는 최대의 공격이란 말도 있다.》

가다오까는 그제야 제만의 무슨 약삭바른 궁리가 떠오르는지 제법 군사를 아는척 하면서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폈다.

《예, 옳습니다. 그러지 않구 우리가 산속에서 뿔뿔나는 빨찌산의 사령부를 찾아 무작정 〈토벌〉에 나선다면 그야말로 우둔한 메돼지 제 죽을줄 모르고 범의 굴로 들어가는것이나다름바 없지요.》

진퇴양난에 빠져있던 가다오까에게 박순사의 말은 마치 구세주의 복음처럼 들려왔다.

어느덧 마음이 좀 진정된 가다오까는 슬며시 자기의 귀방울을 만지작거리며 연신 머리를 끄덕이였다. 언젠가 어느 관상쟁이가 자기의 귀방울이 불상의 귀방울과 비슷하여 복이 있을것이라고 한 말을 들은 때부터 그는 무슨 일이 생길 때면 귀방울부터 만져보는 습관이 생겨났던것이다. 그런데 방금전 《심마니》의 정보를 받는 순간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 귀방울 생각같은것은 아예 까맣게 잊어버렸었다. 여하튼 《심마니》는 재수없는 놈이였다.

《음, 좋다, 좋아! 〈천황〉 폐하를 위해 우리는 여기서 결전을 벌리자!》

가다오까는 뒤집까지 척 쥐고 방안을 거닐며 허세를 부렸다. 그러다가 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여 박순사에게 불까지 붙여주었다.

《박순사는 이제 곧 내 말을 타고가서 중평에 있는 〈토벌〉대를 불러오라.》

조용하던 삼장거리리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습격을 막기 위해 금방 쓸어든 놈들이 거리와 골목마다 참

호를 만들고 그앞에 백성들을 끌어다놓느라고 야단법석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놈들의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인질로 끌려나온 사람들은 태평스럽게 팔짱을 끼고앉아 무엇인가 수군거리며 히득히득 웃고있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가까이에서 총을 쏘나들고 납작 엎드려있는 놈에게 능청스럽게 물었다.

《나리님, 빨찌산이 대체 언제쯤 쳐들어오는데요?》

《자식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러다간 밤을 꼬박 새워야 할게 아닌가요. 난 매일 무산에 선보러 가야 하는데.》

《이자식이 매일까지 살겠는지 죽겠는지 모르는 판에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야!》

그자는 버럭 화를 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점점 더 비위살중계 치근거렸다.

《아, 사내로 태어나서 장가도 못 가보고 죽다니요. 그런데 나리님은 장가를 갔는가요?》

《장가를 갔으면 어쨌단 말이야.》

《그럼 나리님은 이제 죽어두 여한은 없겠수다.》

《이자식이 점점 방정맞게, 당장 아가릴 닥치지 못해!》

《참 나리님은 팬히 말도 못하게 그러십니다. 에이, 그럼 그만듭시다.》

그리고는 또 늘어진 소리를 한마디 했다.

《이렇게 밤을 썰 때에는 감자구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는 지하조직의 임무를 받고 나온 박돌이었다.

이때 함께 인질로 끌려나와있던 사람들속에서 누군가 다급히 소리를 쳤다.

《아니, 저게 뭐요? 왜불이 아니요?!》

정말 앞산쪽에서 왜불이 타올랐다. 뒤이어 이산 저산에서 왜불이 타오르며 무슨 신호들을 주고받고있었다.

《저게 빨찌산의 왜불이구만. 이제 아마 여기로 쳐들어오려는 모양이요.》

인질들이 금방 변이 나는것처럼 떠드는 소리가 가득이나 긴장해있던 놈들은 더욱더 큰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

인질로 끌려나온 사람들속에는 지하조직성원들이 많았다. 그들은 지금 사람들속에 끼워 적들의 인질로서가 아니라 적들속에서 놈들의 정신을 극도로 혼란시키는 조직의 임무를 수행하고있었다.

적들이 뻘히 올려다보는 앞산에서 왜불을 들고계시는분은 김정숙동지이시였다.

제일 위험한 곳이어서 장득수가 것처럼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드림이 없으시였다.

《놈들은 감히 먼저 총을 쏘지 못해요. 선불질을 했다가 어떤 벼락을 맞을지 몰라 지금 눈이 뒤집혀 헤덤비고있을거예요. 그리고 놈들이 있는 곳에서 예까지는 사거리도 안돼요.》

장득수는 뜨거운 눈길로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왜불을 추켜들고 거연히 서계시는 그이의 모습은 그대로 장군의 모습이였다.

(과시 장군입니다. 신묘한 지략으로 수백수천의 적들을 총 한방 쏘지 않고 혼비백산케 하시는 백두의 여장군!)

장득수의 한없는 경탄의 눈길을 받으며 김정숙동지께서는 적진을 굽어보고계시였다.

적들의 동태를 손금보듯 통찰해보시며 작전을 지휘하고계시였다.

옆에 서있던 마인국이가 감동된 어조로 말했다.

《전 정말 이번에 많은것을 느꼈습니다. 사령부를 보위하는 이번 전투에서 박순사가 것처럼 큰일을 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박돌이도 순간에 판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그를 돌아보며 힘을 주어 말씀하시였다.

《우린 조선사람의 량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포섭해서 장군님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해요. 믿고 키워서 장군님을 옹위하는 천첩만첩의 성세를 쌓아야 해요.》

왜불들은 점점 세차게 타올랐다. 그것은 지금 적들을 완전히 제압하고있다는 신호와도 같았다.

김정숙동지의 가슴은 뜨거워지시였다. 일체의 탄압과 천대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가던 인민들이 오늘은 김일성장군님의 손길아래 혁명조직에서 투사로 성장하여 이렇게 적들과 당당히 맞서싸워 이기고있는것이다.

일찌기 장군님께서 전민족을 불러일으킬 조국광복의 대강을 몸소 한자한자 집필하시고 짓밟힌 겨레의 가슴마다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시여 이제에는 온 조국땅에 혁명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라나 이르는 곳마다에서 적들의 통치기반을 밀뿌리채 뒤흔들어놓고있었다.

그이께서는 크나큰 걱정에서 잠겨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는 하늘가를 우러르며 아뢰였다.

(장군님! 안심하십시오. 우리 혁명조직과 동지들이 있는 한 놈들은 절대로 사령부로 달려들지 못할것입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다음날 오후에야 유유히 사령부로 돌아가시였다.

사령부에는 그사이 무산, 연사, 청진, 어랑, 종성 등지로 떠나갔던 소부대와 정치공작소조들이 조국광복회지하혁명조직들을 확대강화하고 비밀근거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의 한생은 나를 위해 바친 한생이었다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그는 나와 결혼한 다음에도 시종일관 나를 사령관으로, 지도자로, 수령으로 내세워주고 받아들여주었습니다. 나와 김정숙과의 관계는 수령과 전사와의 관계, 동지와 동지사이의 관계였습니다.》

《해방후 언제인가 녀기자들이 김정숙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그를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김정숙은 그들에게 〈전사의 일생은 수령의 력사속에 있습니다. 김일성장군님에 대해 더 많이 소개해주시요.〉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말속에 김정숙의 남다른 품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 사

## 어머님이 남기신 주소

문 기 창

빨찌산의 녀장군이 도천리를 떠나실 때  
온 마을이 따라서며 가시는 곳 물었네  
장군님 계신 곳에 내가 있다고  
김정숙어머님 남기신 주소는  
아 혁명가의 영원한 주소

천리만리 따르려는 신념 넘친 가슴들에  
정을 담아 새겨주신 마음의 고향  
장군님 계신 곳에 내가 있다고

김정숙어머님 남기신 주소는  
아 혁명가의 영원한 주소

김일성조선의 자애로운 어머니로  
세월이 무궁토록 길이 모시리  
장군님 계신 곳에 내가 있다고  
김정숙어머님 남기신 주소는  
아 혁명가의 영원한 주소

지들을 꾸리는 사업에서 큰 성과들을 거두고 돌아와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의 보고를 받으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이번에 김정숙동무네가 정말 수고가 많았소. 삼장지구에서 조성되였던 뜻밖의 정황을 김정숙동무가 제때에 타개해나섰기에 우린 그새 많은 일을 할수 있었소. 박순사를 우리 편으로 돌려세운건 정말 잘한 일ियो.》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관동지께서 만족해하시자 무한한 행복감에 잠겨 밝은 미소를 지으시였다.

《전 그저 사령관동지께서 아무리 적통치기관에서 일한다 해도 민족적량심이 단 한조각이라도 남아 있는 사람이라면 다 포섭하여 반일전에 펼쳐나서게

해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했을뿐입니다.》

김정숙동지께서 그날 삼장에서 적들과 총소리없이 벌린 통쾌한 전투는 대사하치기전투나 흥기하전투와 같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저 삼장지구에서 사령부의 안전에 위험을 조성하였던 적들의 책동을 제때에 제거하시였다는 하나의 짙막한 자료만이 남아있을뿐이다.

그러나 그해 여름 사령관동지의 국내활동방침이 빛나게 실현되여 두만강연안 북부조선일대에도 강력한 지하혁명조직들이 꾸려지고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한 국사봉비밀근거지, 민봉비밀근거지, 어랑지구비밀근거지, 룡계지구비밀근거지를 비롯한 수많은 비밀근거지들이 이르는 곳마다에 창설되여 전반적조선혁명을 앙양시켜나가는 믿음직한 기지로 전변되였다.

## 어머님 그리워 부르는 노래

### 두만강의 물소리

정 동 찬

나서자라 가난살이 다섯해  
어릴적의 눈물자욱 고향산천에 남겨놓고  
망양나루 이 기슭에서부터 어머님의 한생은  
태양을 모시고 따르는 길이였다고  
그날의 배전을 불안고 감도는 두만강물소리에  
뜨겁게 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혈육을 다 잃고  
이국땅 광야의 눈비속에 홀몰되신 세월에도  
오직 믿고믿으며 내짚으신 걸음은  
태양으로 가는 길에 찍혀졌기에  
빛나는 태양의 해발이 되셨습니다

한번 웃으시면  
밀영의 진달래 활짝 피는 날이더라고  
그리운 조국의 봄모양 노을처럼 떠오르더라고  
흘러내리는 여울물소리 노래를 불러주는듯

때로는

혁명의 배신자들  
엄혹한 시련의 찬서리를 몰아올 때면  
배신자의 넋두리앞에 폭풍을 맞세운 어머님  
철의 진리를 내뿜던 신념의 그 목소리  
두만강 굽이굽이에 메아리쳐옵니다

어머님곁에 서면  
사령관동지를 더 잘 모실 생각  
구름같이 피어나더라고  
이 나루에 전해오는 빨찌산이야기  
세월과 더불어 흐르는 이 물결에 끝없이 실려  
오거니

아, 일편단심의 결곡한 마음없이  
태양을 모시고 따르는  
생의 높은 마루에 오를수 없다고  
터뜨리는 두만강 두만강 물소리  
내 마음에 뜨겁게 흘러듭니다

### 주작봉마루에서

전 승 일

생각깊은 대성산혁명렬사릉계단  
한계단 한계단 밟으며 올라  
어머님앞에 마주서니  
오늘도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반겨 맞아주시는구나

어머님의 목소리 듣고싶어  
바투 또 바투  
심장을 기울이며  
조용히 다가서는데

주작봉 사색깊은 고요를 흔들며  
조용조용 메아리되어  
이 마음에 젖어드는구나  
천고밀림속에서 꿈같이 속삭이시던  
아, 어머님의 그 말씀

—나는 해방된 조국에서  
교육자가 되고싶어요

쌓으면 하늘에 닿을  
만대위업 이룩하시고도  
조국의 천년미래를 불러  
그리도 소박한 녀원 소중히 안고계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그 소박한 녀원마저  
어머님은 풀지 못하셨구나  
험난한 건국의 초행길에  
영원한 사령부의 친위전사로 불같이 사셨기에  
한번도 교단에 오르신적 없었구나

뜨거운 불덩이를 삼키며  
어머님!  
내 다시금 목메여 불러보는 이 순간  
이 마음에 파도쳐오는 백두밀림의 설레임소리  
어머님의 심장이 뿜어 터친  
대사하며 홍두산의 총소리가 메아리쳐오누나

나만이 듣고있던가



어머님앞에 정히 꽃다발 드리는  
저 천진한 아이들과 근엄한 병사들  
끝없이 물결쳐오는 저 가슴가슴들이  
어머님의 말없는 심장의 웨침을 듣고있지 않는가

꽃나이청춘들이 무엇을 위해  
백만대적앞에 심장을 내댔는가를  
쓰러지면서도 백두산을 우러러  
무엇을 절절히 념원했던가를

친위전사 어머니는  
어제도 오늘도 목숨같은 진리로 가르치고계시나니

어머님은 교단우에 오르신적 없어도  
나는 눈물겹게 우러르노라  
이 조선의 위대한 교육자가 되시여  
영원토록 백두산교단우에 높이 서계시는  
아, 어머니 우리 어머니를

## 내 한생의 주제가

김 연

학창시절  
행복의 답사차로 첫자욱 새길 때  
이 작은 나의 가슴에  
그리움의 샘물을  
그득히 채워준 아, 회령!

불같은 그리움  
천만가슴 더웁히는 9월  
다시금 회령길에 오르니  
이 몸은 금시 오산덕에 오른듯  
뜨거운 추억 파도쳐 흘러드누나

얼마나 정깊은 고장이런가  
어머님 탄생하신 유서깊은 회령  
조용히 외우기만 하여도  
오산덕기슭에서 흘러간  
나의 군사복무시절이 달려오고  
굽니며 출렁이며 이 마음 적서주는  
잊지 못할 두만강...

눈앞엔 정겨웁게 흘러드누나  
군복입고 밝게 웃으시는 어머님모습  
품에 정히 안으신 진달래꽃송이들  
눈굽을 적시며 자주 들어서던  
못 잊을 고향집뜨락

흘러드누나  
화창하게 만발한 백살구꽃에도  
팔을천팔래터 물소리에  
피더운 정을 엮고 인연을 맺으며  
조용히 사진첩을 펼치고 추억하는  
뜻깊은 성장의 나날들이

어찌 그 시절뿐이라  
레사로운 려행길에서도  
어머님 울리신 총성 잊고선 못살아  
삼가 숭엄히 우러르던 어머니의 권총  
휘몰아치는 백두의 눈보라소리 귀전에 들으며

끓어오르는 격정을 일기장에 새겼거늘

아, 나는  
그리움으로만  
회령의 노래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종달바구니... 산나물... 망양나루...  
저러드는 아픔만을 노래에 담지 않았다

울창한 백두밀밭  
어머님 헤치신 피어린 자욱자욱이  
바치신 고귀한 삶의 그 모든것이  
회령! 거기에서 시작되었기에  
송고한 노래는 두만강처럼 사품쳐  
내 심장 용암처럼 끓여주는것 아니던가

나의 심장 나의 폐부 나의 숨결에  
어머님 지니신 태양옹위  
그 송고한 녀 고동치지 않았다면  
조국에 바친 값높은 병사시절의 영예 나에겐  
없으리

우리 당의 붓대전사의  
크나큰 영광의 그 위치에 내 설수 없었으리

오직 어머니의 송고한 뜻과 숨결로  
이 심장 높이 뛰고있어  
가슴 짝 펴고 추억할  
자랑높은 어제가 나에게 있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거목으로  
푸르를  
래일의 나의 의지 억척으로 다져져있거니

오, 회령!  
회령은 한생 못 잊을 값높은 추억만이 아닌  
수령결사옹위의 제1선에 세워준 땅  
내 심장 뿜는 한  
김정숙어머님 우러러 부르는 나의 노래는  
내 한생의 주제가로 영원하리라!

# 어머님을 생각하면

김 정 삼

어머님을 생각하면  
자꾸만 눈곱이 젖어듭니다  
백살구꽃 하얗게 핀 오산덕고향집  
어릴적 어머님 힘겹게 돌리시던  
연자방아소리가 아프게 들려옵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면  
류랑의 피눈물 뿌리시던 두만강  
바람 차디찬 이역의 산야가  
눈앞에 떠올라듯 밝혀옵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면  
이 가슴에 환희의 채광 가득합니다  
풀숲에 맺힌 이슬에 치마자락 적시시며  
설레이는 밀림쪽을 감격에 겨워 달리시던  
능지영의 그 봄날의 봄빛에 이 몸 싸입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면  
대사하결전장의 총성이 울부짖고  
청봉의 설한풍이 휘몰아칩니다  
폭풍속에 타오르는 불굴의 넋이  
내 삶의 나래가 되어 솟구칩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면

조국이란 그 부름이 숨엄히 울립니다  
달빛 유정한 밀영의 밤  
눈물에 젖어 부르시던 《사향가》의 노래소리  
조국의 살결인양 두볼에 꼭 대이시던  
진달래의 꽃향기에 목메입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면  
타향의 그 봄날  
수령님과 함께 찍으신 한상의 사진  
어머님의 미소가 눈부십니다  
가장 고결한 충정의 그 빛발  
어머님 피워올리신 심장의 꽃이어!

어머님을 생각하면  
어머님은 이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편단심 변함없이  
김정은원수님을 잘 모셔야 한다고  
뜨겁게 절절하게 당부하시는 말씀

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어머님을 생각하면 어머님을 생각하면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 바쳐가는 내 삶  
붉은 피 끓는 이 심장속에  
신념의 백두산이 우뚝이 솟습니다

## 수 필

# 불멸의 화폭과 더불어

박 혜 란

나무는 세월의 흐름을 년륜에 새기고 사람은 인생의 자욱을 추억속에 간직한다. 하지만 세월이 가고가느라면 추억의 갈피에도 이끼가 덮이기 마련이다. 하기에 사람들은 추억속에 간직할 기쁨과 즐거움, 오래도록 간직할 행복을 사진에 남기곤 한다.

누구든 사진첩을 펼쳐보시라. 그러면 각이한 시절에 각이한 차림새로 찍은 사진들에서 하나같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볼수 있으니 그래서 추억은 아름답다 하는것이 아닐까.

그러나 사진속에서 웃고있는 모습만이 아름다운 추억을 실어오는것이랴.

이 세상의 수많은 사진들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한상의 사진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고귀한 생애 대한 추억으로 나를 이끌어간다.

...봄기운이 약동하던 어느해 인민군대의 한 군사교육기관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해별이

따스히 비쳐드는 방에서 한상의 사진을 마주하고 계시었다.

주체37(1948)년 10월 14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어리신 아드님과 함께 제1중앙군관학교 제2기졸업식에 참석하신 백두의 녀장군인신 김정숙어머님의 영상을 모신 사진이였다.

수수한 김정치마에 흰저고리를 받쳐입으신 사진속의 어머님께서서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고계시였다.

평양학원졸업식에도 기쁜 마음으로 참가하셨던 어머님께서 이때만은 왜 우시였는지...

장장 60년세월이 흐른 뒤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 눈물의 사연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자신께서 그때 어머님께 왜 우시는가 물었더니 어머님은 이렇게 끝끝한 우리 군관대렬을 보니 항

일무장투쟁시기가 생각나고 먼저간 혁명동지들이 생각나서 그런다고 하시었다고 뜻깊은 사연을 후세에 전해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안팎에도 맑은 샘이 고여올랐다....

그날의 사진에 뜨거운 추억을 남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말씀 내 가슴에 년륜처럼 새겨지고 9월의 산들바람도 동지애로 심장을 뚫어주시던 어머니의 고귀한 생을 속삭여주는가.

동지들에 대한 사랑을 백두밀림에 꽃피워가시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의 영상을 우러르며 나는 항일의 그 나날에로 마음을 달린다.

...풀뿌리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행군을 멈추지 않던 어느 봄날 송기떡을 만들어 대원들앞에 내놓으신 어머니께서는 별맛이라고 기뻐하는 대원들에게 자신의 뚝으로 차례진 떡마저 고스란히 나누어주시었다. 너무도 안타까와 눈물짓는 녀대원들에게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

—송기떡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동무들을 보니 먹지 않고도 배가 불러요. 오늘은 비록 송기떡을 만들어 동무들에게 대접하였지만 나라를 해방시킨 다음 흰쌀로 떡을 쳐서 풍성히 대접하죠.

...어느해 점심참에 어머니께서는 식사준비를 서두르고계시었다. 가마에서는 죽이 펄펄 끓고있었다.

이때 왜놈들이 불의에 달려들었다. 어머니께서는 더 생각할 사이도 없이 끓는 죽가마를 이고 산으로 오르시었다.

전투를 끝내고 대원들이 어머니께로 달려왔을 때 어머니께서는 밝게 웃으시며 파곤한 죽그릇을 안겨주시었다.

점심을 굶으리라 생각했던 대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러던 그들의 눈길은 끓는 가마솥에 데여 허영게 부풀어진 어머니의 머리에 가닿았다.

어쩌면? 어쩌면!...

동지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시고 동지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시며 다함없는 정과 사랑으로 동지들을 위해 헌신하시던 백두산의 녀장군 김정숙어머니의 혁명적동지애는 수령결사옹위의 참모습으로 우리의 심장속에 불멸의 화폭을 새겨주고있다.

사령관동지의 신변을 목숨으로 보위한 대사하치기의 푸른 숲이며, 혁명의 사령부를 해치려고 은밀히 기어들던 왜놈들을 쓸어눌히고 사령관동지의 신변을 몸바쳐 보위하신 그 순간 풀숲에 주저앉으시며 흐느껴우시던 김정숙어머니.

주체24(1935)년 9월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신 그날부터 조국해방의 그날까지 10년세월을 손에 총을 잡고 강도 일제와 싸워오신 어머니께서는 새 민주건설의 나날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정규무력건설 사상을 받들어 헌신의 자욱을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에 남기시었다.

우리 장군님 뜨겁게 추억하신 어머니의 사진과 더불어 나는 가시는 곳마다에 불멸의 화폭을 남기신 백두산의 녀장군 김정숙어머니의 고귀한 생을 더듬어본다.

...주체37(1948)년 정규군의 조직을 선포하는 열

병식을 앞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열병식에 참가하는 전체 군관들과 병사들에게 새 군복을 만들어 입힐 파업을 주시였었다.

이 파업을 스스로 맡아안으신 김정숙어머니께서는 평천피복공장(당시)에 나가시어 재봉기도 타시고 단추구멍도 뚫어주시면서 재봉공들과 함께 밤새워 일하시었다.

아름찬 파제를 기한전에 끝내지 못할가 근심하는 재봉공들에게 항일무장투쟁시기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기어이 기한전에 600벌의 군복을 만들어 낸 재봉대의 녀대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시는 어머니의 밝은 미소넘친 모습을 우러르는 녀성로동자들의 눈앞에는 빨찌산시절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안겨들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의 그 정신으로 재봉공들이 제날자에 기어이 1 200여벌의 군관복과 6 000여벌의 병사복생산을 완성하도록 이끌어주신 이야기만이라.

평양고무공장의 연혁실에도 정규군의 조직을 앞두고 김정숙어머니께서 찾으신 귀중한 사적이 새겨져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열병식에 참가하는 군인들에게 신갈 신발문제를 걱정하실 때 남먼저 어리신 아드님의 손목을 잡고 공장으로 오신 어머니.

고무신이나 만들던 작업장에서 인민군대의 첫 군화가 생산되었을 때 너무도 기쁘시어 고무풀로 매달릴 한 로동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밝게 웃으시던 어머니의 그 영상.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드시는 길에서 사랑과 헌신의 밝은 웃음을 지으시던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께서 그날에는, 그날에는 어이하여 우시였는지 어머니의 고귀한 한생은 나에게 말해준다.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도 없이, 부상당한 몸을 치료할 병원도 없이, 따뜻한 구들목이 기다리는 보금자리 제 집도 없이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하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어버이수령님을 따라 싸워온 성스런 혁명의 길, 백두의 설한풍이 휘몰아치는 혈전만리길을 헤쳐온 전우들 생각이 간절하시어, 꿈에서도 해방의 날을 그리며 싸우다 만주광야의 이름없는 나무밑에 쓰러진 동지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실수 없는것이 너무도 가슴에 맺히시어 끝내는, 끝내는 눈물의 샘뚝을 터치신 아, 혁명의 어머니이시여, 어머니의 고귀한 한생이여.

선군혁명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남기시고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남모르게 울고계시는 어머니, 항일의 녀성영웅이시며 백두산의 녀장군이신 김정숙어머니이시여.

어머니의 그 눈물은 진정 동지애로 빛나는 우리 당의 자랑찬 력사우에 불멸의 화폭으로 길이 전해질것입니다.

추억깊은 어머니의 사진을 우러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걱정을 터치니 나무에 새겨지는 년륜처럼 나의 가슴속에도 세월이 가도 변할수 없는 웨침이 금문자인양 아로새겨진다.

동지들에 대한 사랑을 천분으로 여기시고 동지들을 위한 길에서 삶의 기쁨을 찾으시며 헌신하신 어머니의 생은 고귀하다, 영원불멸하다.

시 초

## 끝까지 이어가리 백두의 행군길

비가 와도 가야 할 길  
눈이 와도 가야 할 길  
원수님을 따라나선

이 조선의 운명의 길 백두의 행군길!  
기쁨도 영광 시련도 영광인 이 길에  
우리 삼가 이 시를 바친다

### 아, 백두산 !

#### 차 영 도

우리 혁명이  
이 나라 반만년 력사앞에  
처음으로 메고나섰던 그 배낭이  
자그마한 귀틀집에  
생각깊이 걸려있는 산

이 배낭과 더불어  
두자루의 권총이  
태고의 정적을 깨치던 그 첫 총성으로  
백두산일가의 총대혁명의지를  
만대에 이어놓은 산

바로 이 산에  
불러 마음 절로 경건해지는 이 산에  
백번을 꺾일지언정 고통이 없는  
조선의 넓과 힘이  
뿌리깊이 숨쉬고있나니

산아, 백두산아!  
우러러 다함이 없는 성악의 메부리여  
그대가 편편한 산발마다에 고이 간직한

그 선혈의 무게앞에  
내 깊이 머리를 숙이노라

아, 나라의 억만대후손들이  
천추를 두고 잊지 못할 한흠의 미시가루가  
오늘도 그날의 눈보라속에서  
끝까지 가야 할 혁명의 한길로  
우리를 소리쳐부르는 산

혁명을 위해선 살아 청청했던  
20대의 그 애젊음도 기꺼이 이 산에 묻고  
그 길에선 자기의 혀도 서슴없이 물어뜯는  
아, 것처럼 강직한 혁명절개가  
지금도 우리의 피를 끓게 하는 산

오르라, 길이 닳고 산이 닳도록  
부디 이 산정에 오르라!  
오르면 불굴의 넓을 깨우치는 백두산  
오, 우리의 김정원수님 이 산앞에  
천만군민을 마주세워 영웅으로 키우신다!

### 백두산앞에 설 권리

#### 류 동 호

백두산!  
이 산앞에 설 때면  
정적깊은 밀림속 그 어디서나  
오중흠7련대 투사들의 목소리가  
나에게 준절히 묻는듯싶다  
—너는 백두산앞에 설 권리가 있는가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서슴어지는 마음이며  
때없이 가슴에 사무쳐오는  
아, 이 백두에 그들이 목숨으로 열어간  
수령결사옹위의 피어린 길이며

어이 알랴, 한창 잎이 푸르러가는  
저 아름답리 이깎나무에도

가슴쥐고 쓰러진 애젊은 전사의 넓이  
살아 숨쉬고있을런지

어이 알랴, 저 이끼덮인  
백두의 이름모를 바위벽에도  
오로지 사령관동지의 안녕만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뿌리고 간 그 선혈이  
뜨거이 스며여있는지

결사옹위는 혁명에 바친 심장  
그 열혈의 심장이며  
억척의 성새를 떠받든 피젓은 성들  
오늘도 우리를 결사의 한길로 부르는  
영원한 7련대의 나팔소리...



오, 백두산이 솟아있는 이 땅에서  
오중흡형의 빨찌산후손들을  
억세게 키워내는  
우리 혁명의 영원한 사명이어  
성스러운 임무여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이 부름앞에 놓으라  
조선의 운명 김정은장군 결사옹위 이 성새에  
불같은 심장을 성돌로 고인 전사만이  
태양의 산악 백두산앞에 설 권리가 있다!

## 우등불가에서

김 형 찬

이 땅에 태어나  
난생처음 생눈깔고 누워보네  
백두산우등불곁에

짧지 않은 내 인생에  
난생처음 느껴보는  
눈을 깔고 바라보는 저 하늘의 유정함이어

별도 많은 하늘, 아름다운 하늘  
이밤엔 왜 이리도  
우리 원수님 못 견디게 그리운지...

항일전의 그 나날 바로 그밤에도  
수억만 별속에서 장군별 그리며  
투사들 이렇게 잠 못들었지

눈을 깔고 누워도 그리운 별  
한밤이 깊을수록 더더욱 그리운 별  
그 별없인 우리 못살 운명의 별

아, 가슴속에 백옥같은 총정이 움터난  
백두산의 밤이어!  
세월 넘어 불길처럼 타오르는 밤이어!

## 빨찌산녀전사들이 왔다

리 명 옥

눈덮인 백두산기슭 전적지마을에  
때아닌 반가운 소식 돌개바람 일었네  
—우리 마을에 빨찌산녀전사들이 왔대  
—모란봉악단이 왔대

얼마나 백두산마을에 어울리는 이름인가  
대번에 정이 드는 이름 《빨찌산녀전사들》  
금방 백두산을 내린듯  
모두들 풀물오른 군복 단정히 입었네

일찌기 백두산이 입혀준 혁명의 군복  
원수님 손수 입혀 보내주신 빨찌산군복  
전적지마을의 불빛밝은 무대에서  
빨찌산녀전사들 노래부르네

노래소리 아름답고 불빛 또한 밝은데  
우리 마음 송엄히 솟아오르는 백두산  
생각도 깊어지네 깊어만지네  
원수님 안겨주신 백두산! 백두산!

## 신념을 두고 말할 때

김 석 천

눈덮인 백두의 산야에서  
피어린 자옥이라는 그 값비싼 의미를  
이 가슴에 새겨보며  
내 신념이란 이 말을 다시금 외워본다

정녕, 신념이란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이 나라 사람들 백두산에 올라  
조국과 혁명앞에서  
굳이 이 신념 칼날같이 버려안는것인가

말해보자 신념이어 너는  
한치앞도 가려볼수 없는  
그 엄혹한 눈보라광야에서도

굳게 믿어 내다본  
해방조국의 그 눈부신 새아침

신념이어 너는  
죽음의 장막이 무겁게 드리운  
그 절망의 철창속에서도  
원수들을 공포로 전률케 한  
혁명승리의 그 불같은 만세소리

그것은 백두산의 뉘이었고  
백두산의 절개였으니  
신념이어 너는 백두산  
백두산은 너를 다듬어 세운 메부리더라

## 백두의 퇴성

—대흥단전투장소에서 조선인민군련합부대 지휘관들의 사격경기가 있었다—

### 한 광 춘

퇴성이 울었다  
걸음걸음 필승의 신념을 버린  
우리의 총대대오가  
여기 백두산에서 총성을 울렸다

광막한 밀림을 향해  
눈파도 일어서더니  
움쉴렀다  
이 땅의 천만산악이

묻지 말라  
이 총성에 무엇이 실리었는가를  
일찌기 백두산에서 무섭게 울린 총성  
삼천리 한끝까지 닿아  
빼앗긴 조국을 찾았다

백두산의 그 힘이

다시금 강토를 흔든것이다  
민족의 피타는 속망을 안고  
침략의 아성 순간에 덮쳐버릴  
노한 불의 흐름이 터진것이다

백두산에 총성올려 안아온  
항일대전의 승리  
혁명의 성산이  
또다시 불퇴성을 더친 푸른 하늘에  
이제 조국통일대전승리의 환호성 우렁차리라

아, 백두산의 퇴성이 천지를 진감할 때  
온 겨레가 보았다  
천만가닥 눈부신 해살을 휘감고  
그리도 아름답고 번영하는 통일조국이  
백두산품에서 태어나는것을!

## 밀림속의 발자욱

### 리 동 수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보라!  
—밀림속 피어린 길 걸어보라!  
원수님의 령을 받은 인민군지휘관들이  
백두의 장설을 헤치며 행군해갔다

걸음걸음 투사들을 생각하며  
원췌격멸의 피를 끓이며  
인민군지휘관들이 헤쳐간  
어제날의 피어린 싸움길 빨찌산의 길

엄혹한 백두의 칼바람이  
지동치며 불어치는 눈보라를 뚫고

불굴의 용사들이 자욱깊이 걸어간  
한줄기 행군길—

생눈깔고 누워도 보고  
밀림속에 우등불도 피워보고  
이렇게 날과 날을 거쳐  
쉬임없이 이어간 발자욱 발자욱...

오,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  
우리 원수님 백두산에서 키우신 용사들이  
발톱을 무섭게 곤두세우고 지나간  
백두산 《호랑이》들의 발자욱이다!

## 불멸의 선서

### 김 만 영

푸른 하늘 떠이고 치솟은 메부리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우리의 김정은장군  
천고의 대밀림을 뒤흔들며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구름바다를 천리에 거느리고 오신듯  
외투자락 불길처럼 날리시며  
그 음성 찌렁찌렁 산발을 깨칠 때  
하늘땅은 분명히  
백두산의 노호성을 들었다

마치 보천보의 해불로  
이천만 백의동포 가슴속에  
해방의 서광을 안겨주며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높이 웨치던 빨찌산 김대장이신듯

번개처럼  
우뢰처럼  
연설은 길지 않았어도

오직 총대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세계앞에 단호히 선언하신 백두의 령장

아, 우리 혁명의 최고사령관 김정은장군  
원쑤와의 판가리결전에 나선  
이 조선을 이끄시고  
폭풍에도 그 의지 꺾임이 없을  
혁명의 성산 백두산앞에  
그이는 불멸의 선서를 하신것이다!

##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보라!

### 문 용 철

아득히 뻗어간 산발을 넘어  
폭풍쳐 내달릴  
최후승리의 돌격로를 앞에 두고  
장군은 남기시였다  
전우애로 피땀는 기념사진을

어깨성을 이룬 전우들과  
빨찌산식으로  
눈덮인 백두전장에 앉으신 김정은장군  
환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은  
만고절세의 영웅 김대장모습

그이 불같이 꺼안으신것은  
최후결전의 돌격로를 함께 달릴  
피땀는 천만의 대오  
그이 타고앉으신것은  
백두대산맥이 뻗어내린 강토삼천리

돌격의 기발처럼  
백승의 기치처럼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며  
천만의 대오를 최후성전으로 부르는  
불멸의 화폭—백두산사진이여

장군의 열과정이 숨쉬는 이 사진을  
고이 품에 지닌 전사의 심장은  
눈보라폭풍속에서도 더 뜨겁게 불타리라  
사선천리 불속도 웃으며 헤치리라  
포연스민 군복속에 이 사진을 품고  
최후승리의 광장으로 들어서리라

쿵— 쿵—

위대한 장군의 심장에서 굽이치는  
동지애의 혈맥이  
강철의 사단과 군단  
천만의 가슴과 가슴으로 뻗쳐흐르는 소리

이 땅은 어디가나 백두대전역  
강철의 령장이 가리킨 화살표따라  
불구름을 맞받아 출격하는 붉은 매들  
결사옹위의 침로를 달리는 육탄함대들  
아득한 구름을 헤가르며  
원쑤의 아성으로 번개칠 은빛탄두들

무적의 백두산총대아래  
쇠물이 사뭇쳐 끓는 철의 도시들  
새싹이 총창처럼 움터나는 푸르른 전야  
탐구의 눈빛들이 우주의 자리길을 더듬는  
과학지구의 불밝은 창문들

보라  
장군의 신념과 의지로  
장군의 불타는 전우애로  
천만이 어깨성을 이룬  
일심단결의 산악을 보라  
백두산대국의 힘을 보라

아, 항일의 빨찌산 김대장  
이 땅에 해방의 아침을 불러온 백두성산에서  
총대전우들과 어깨걸고  
이 나라 삼천리에 해빛을 뿌리시는  
백두령장의 모습을 보라!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보라!

# 고 향 외 1편

## 정 두 국

눈을 감아도  
삼삼히 떠오른다  
푸른 바다물이 좋아  
해종일 알몸으로 물장구치던  
어린시절을 두고온 내 고향아

너를 떠나  
십년은 세번이나 더 바뀌어  
어느덧 머리에 흰서리 내렸어도  
네앞에선 오늘도  
나는 철없던 어제날의 그 소년

어려와라  
구기자꽃 활짝 핀  
울바자 하얀 나의 집  
마늘포기 파란 마당 한쪽에  
오구구 새참을 즐기는 노란 병아리무리

보고싶구나  
강녕이하모니카 함께 불던  
소꿉시절 동갑내기들  
바다가모래불에 장난치며  
비둘기처럼 머리를 마주하고도  
다름도 잘하던 꿈지머리 그 소녀

초소로 떠나던 날  
들고나온 꾸레미를  
저마끔 배낭속에 넣어주며  
위훈을 부탁하던

혈분이같이 다정한 이웃들

아, 고향!  
작아도 커도 숨김없이 터놓는  
나의 일기장  
그 애뜻한 글줄에서조차  
떨어져본적 없는 곳

정깊은 너의 손길로  
이 몸을 어루쓸어다오  
못난 장난질로  
회초리앞에 눈물 떨구던  
어제날 그 소년의 성장을  
기쁘게 헤아려다오

언제나 너를 안고살아  
내 흘리는 로동의 땀은  
남들보다 맑고 후더워야 했고  
내 쌓는 창조의 탑은  
남들보다 더 높고 커야 했거니

고향!  
소리쳐불러보니  
이 세상 가장 소중한 말이  
이속에 있음을 통절히 깨우치노라  
조국을 떠받든 억센 대들보로  
내 한생의 뿌리를 내린  
아, 어머니품이여!

## 추억에 대한 생각

사람들은 말하더라  
추억은 아름답다고  
추억은 소중한다고  
하다면 추억이여  
너는 무엇으로 아름다운가  
너는 무엇으로 소중한것인가

꿈만 같던 일  
민들레 하얀 고향등판을 질러달리며  
고향아 나는 대학생이 되었노라  
입학통지서 흔들던 그 기쁨인가  
궁궐같은 교육자살림집에서  
온밤 눈물속에 잠 못들던 별많은 그밤인가

명절도 많았지  
받으며 누리며  
숨뱉차게 안고산 행복이  
생의 첫기슭에서  
손저어 나를 부른다  
반백이 된 오늘에도...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뛰는 박동에 묻노니  
추억이여 정녕  
너는 무엇으로 아름다운가  
너는 무엇으로 소중한가

그러면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진실한 사람만이 진실한 말을 할수 있고 진실한 작가만이 진실한 작품을 써낼수 있다. 작가는 량심을 가지고 사회앞에 나서야 하며 시대의 량심을 대변하여 대중을 감화시켜야 한다. 량심을 버린 작가는 현실에 진심으로 공감할수 없고 따라서 가식과 거짓을 가지고 작품을 쓰게 된다. 작가라면 응당 진실한 인간의 본보기, 가식과 변심을 모르는 순결한 량심의 대변자로서 현실을 바로 보고 그려야 한다.

작가의 창작적량심은 자기 작품을 인민앞에서 책임지려는 립장과 태도에서 나타난다.》

손저어 부르며 달려온다  
한껏 보람찼던 일들이  
더우기 아름다웠던 날들이

말 못하는 책과 인연을 맺고  
나는 그 얼마나 모지름을 쫓던가  
시간이 무척 길었으면...  
동트는  
새벽녘 노을이 알미운 때도 있었더라  
채 정리 못한 원고를 안고  
서둘러 다우치던 출근길...

내 때로  
즐거운 일은 잊은적 있어도  
애타던 그 사연들은 못 잊어  
돌이켜보며 마음에  
되새겨보는 추억이여  
진정 너는 무엇으로 아름답던가  
너는 무엇으로 소중하던가

그럴 때면 느끼는 생각  
추억은 간직되는것  
진정 인생의 년년은  
추억으로 남는것

누구나 살아온 날들을 두고  
뒤돌아 추억할 때가 있으리  
그럴 때면  
받아안은 사연만 있고  
바친 이야기 없다면  
추억은 얼마나 서글프랴

진정 그것이더라  
나서자란 이 땅에  
성실한 땀 바친 이야기  
그 이야기 많을수록  
추억은 별처럼 아름답더라  
추억은 자신처럼 소중하더라

.....

### 가 사

## 내 사랑 고향집뜰안

김 분 동

내 인생의 첫걸음마 여기에 새겨있고  
정다운 어머니모습 삼삼히 어려있는 곳  
어서 커서 내 나라의 보배동이 되라고  
행복의 그네를 정을 다해 밀어주었네  
아 내 사랑 고향집뜰안은  
아 애국의 큰 마음 시작된 뜰안이여라

감살구꽃 향기속에 벌나비 날아예고  
터발엔 푸른 남새 파랗게 자라나는 곳  
어서 커서 내 조국을 더 높이 빛내라고

배움의 창가로 정을 다해 이끌었네  
아 내 사랑 고향집뜰안은  
아 애국의 큰 마음 시작된 뜰안이여라

이 세상 어데 가도 그리워 눈물짓고  
한달음에 달려와서 그 품에 안겨드는 곳  
품어준 사랑이 뜨겁게 숨배있고  
보답의 신들메도 든든히 매여주었네  
아 내 사랑 고향집뜰안은  
아 애국의 큰 마음 시작된 뜰안이여라

# 공화국기발에 대한 추억

최인혁

해마다 9월 9일 공화국창건일이 오면 나의 생각은 어느덧 멀리 흘러간 동요시절로 내려쳐가곤 한다.

실개천 맑은 물이 도란도란 모이고모이여 팔십여 리를 흘러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삭주 좌골 옥강천에서 아이들과 물장구를 치며 놀다가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학교로 10리길을 달려가던 때가 어제같은데 벌써 70년을 가까이하고있다.

그날은 내가 소학교 3학년에 올라온지 며칠밖에 안되던 날이다.

하얀 무명천양복을 단정히 입은 남자담임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서더니 흥분된 음성으로 《학생들, 우리 나라 기발이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람홍색공화국기발입니다.》하고 말하는것이였다.

선생님은 큰 전지에 그린 공화국기발을 쳐들고 교실을 한바퀴 돌더니 흑판가운데 걸어놓으셨다.

《야, 공화국기발!》

우리들은 공부시간이라는것도 감감 잊고 일어서서 환성을 올렸다.

이윽고 선생님은 흰종이를 한장씩 내주고 크레용도 여러감 나눠주면서 공화국기발을 그리라고 하였다.

우리들은 서툰 솜씨지만 공화국기발을 최대정성을 다하여 그렸다.

선생님은 매 학생들의 그림을 하나하나 지도하여 완성하도록 하여주었다.

우리들이 기발을 다 그리자 선생님은 자기가 그린 기발을 자기 마을 집집에 찾아다니면서 보여주고 기발에 대해 해설해주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성수가 나서 집집을 돌기 시작하였다.

우리 마을사람들은 그때 정말 기뻐들 하였다.

배나무집할아버지는 내가 그린 기발을 보더니 《아니 원, 우리에게 기발이 생겼구나. 거참 멋있구나.》하고 벅글거리더니 《애, 셋째야! 이 기발 그림을 내가 전사하자꾸나.》하며 다짜고짜로 종이장을 정히 접는것이였다.

내가 《안돼요, 할아버지! 아직 우리 기발을 보이지 못한 집들이 얼마나 많아요. 난 아직 마을을 더 돌아야 해요.》하고 울상이 되어 말렸으나 할아버지는 《우리 나라 기발을 보니 너무 기뻐서 그런다.》하며 또 벅실벅실 웃으셨다.

살아서 처음 보게 되는 공화국기발, 내 나라 기

발에 대한 기쁘고 자랑스러운 마음, 피눈물 흘리며 살아온 해방전 세월을 돌이켜보느라니 더없이 감개스러웠을 그 마음을 알기엔 내 나이가 너무나 어렸다.

내가 가라골 대추나무집에 들렀을 때였다.

그 집 할아버지는 내가 공화국기발을 보이자 종이를 들고 부엌으로 나가며 《여보 로친, 동산 뒤집 셋째가 그린 우리 나라 기발이라우. 자, 얼마나 훌륭하오.》라고 못내 기뻐하였다.

이렇게 나라없는 설움을 안고 천대와 멸시속에 소나 말같이 살아오던 이 나라 근로인민의 전폭적인 지지속에 창건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였고 태어난 기발이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관심속에 태어난 공화국기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전통과 대대손손 하나의 강토에서 찬란한 민족문화를 창조한 우리 인민의 민족성, 부강한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창창한 기상을 담은 공화국기발.

항일혁명투사들의 피와 같이 붉고 우리 인민의 순결한 마음과 같이 희고 우리의 밝은 희망과 같이 푸른 삼색으로 된 기발, 언제나 승리하고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용감성과 영웅성을 상징하는 오각별.

그렇다. 우리 인민은 이 기발을 높이 들고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재더미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운 조국수호의 력사, 강성국가의 령마루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자랑스러운 창조와 변혁의 력사를 이 땅에 새겨왔다.

하기에 공화국기 휘날리는 이 땅의 그 어디서나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인민은 세기를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그 존엄높은 공화국기폭속에 안겨 조국으로 돌아오고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는 전사들은 이 땅에, 이 나라 력사에 몇천몇만이였던가.

국제경기들에 나서는 우리 나라 체육인들의 가슴에 새겨져있는 기발만 보아도 그것은 더없이 소중한 조국 그자체가 아닌가.

하기에 국제경기에서 1등의 단상에 올라 《애국가》의 주악속에 오르는 공화국기를 보며 처녀력기

# 바다와 고향집 웅달샘

김 광 호

낮이면 눈부신 해빛의 애무받아  
온통 구슬바다런듯 반짝이고  
밤이면 하늘의 달도 별도 다 안아내려  
넓은 품에 잠재워주는  
오, 나의 바다  
내 지켜선 바다여

출항을 앞둔 이 저녁  
해풍 서늘러운 갑판우에서  
내 조용히 명상에 잠겨 생각하노라  
그 깊이 헤아릴수 없고  
그 넓이 끝없는 바다여  
너 진정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눈앞엔 금시 보이는듯 안겨오누나  
양지바른 파일동산기슭 오봇한 마을에  
추녀를 펼친 아담한 고향집  
울담따라 무성한 구기자대곶길에서  
사시절 뚝뚝 솟구쳐나오던  
티없이 맑은 쪽빛웅달샘이

어머니의 눈동자처럼  
맑디맑던 샘물  
바라보면  
마음마저 맑아지는 샘물  
두손모아 한웅큼 떠마시면  
여름에도 이가 시리던 샘물이어

학교시절 등산길 갈 때에도  
그 샘물을 떠가지고 갔어라  
그리고는 제일먼저 산마루에 뛰어올라  
비오듯 흐르는 땀 손등으로 훑쳐내며  
꿀보다 더 달게 마시곤 했어라

내 초소로 떠나던 날  
맑은 샘 가득 떠주며  
어머님 하시던 말씀 울려오누나  
—셋째야 명심하거라  
이 샘물맛을 잃으면  
고향도 부모도 조국도 잃게 된다는것을

그 목소리 언제나 메아리쳐와  
고향집샘물은 항시 내 가슴에 출렁이거니  
그럴 때면 나에겐 생각되어라  
그 샘물이 끝없이 흐르고흘러 모여서 모여  
망망대해 이 바다를 이룬것이라고

아, 나의 어린 가슴에  
퍼내고 퍼내어도 영원히 마를줄 모르는  
조국애를 부어준 고향집뜰안의 웅달샘이어  
너의 크지 않은 그릇안에  
내 지켜선 이 바다가  
통채로 다 담겨져있었구나

선수가 홀리는 그 눈물도, 마라손녀왕이 펼쳐들고  
경기장구내를 돌고도는 그 기발의 필력임도 바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아주  
시고 지켜주시고 빛내여가시는 내 조국에 사는 긍  
지와 자부심, 영광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이다.

공화국기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끝이  
없다.

70객이 지난 내가 오늘 저 멀리로 흘러가버린 소  
시적추억을 더듬으며 가슴을 뜨겁게 적시는것은 이  
땅에 사는 공민들 누구나의 가슴에도 다 우리 공화  
국기발과 관련한 이러저러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  
어 우리 조국의 부강과 번영을 위하여 너나없이 당  
의 뜻을 받들어 자기의 피와 땀, 지혜와 정열을 깡  
그리 다 바쳐가고있다는것을 부연하고싶어서이다.

우리 인민이 사랑하는 공화국기발!

이 기발은 정녕 이 나라 천만군민이 마음속에  
천세만세 영원히 모시고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생의 모습이며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꽃  
피워 사회주의문명국을 일떠세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해빛같은 영상이시다.

나는 믿어의심치 않는다. 만약 준엄한 결전의  
그 시각이 오면 이 나라 천만군민모두가 이 기발  
을 위하여 목숨도, 청춘도 아낌이 없이 바칠것이  
라는것을.

영원히 사위여지지 않을 나의 추억도 실었는가  
푸르고 창창한 9월의 하늘가에 우리의 사랑 아름  
다운 공화국기가 휘날린다.



# 증명

백 상 군

작업반장 석호와 헤어진 봄순의 머리속에서는 방금전에 그가 한 말이 그냥 맴돌았다.

《내 다시 말하는데 그 도깨비같은 병우녀석에 대하여 한치의 미련도 가지지 말라구, 가겠으면 가고. ...》

반장이 그 정도로 모질게 못을 박는걸 봐선 병우에 대하여 옥땀한 감정이 이만저만 깊지 않은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부지중 분조의 옥배아주머니가 한 말이 생각키웠다.

《병우를 다른 작업반으로 가게 해서는 안되네. 그 사람이 우뚝거리긴 해도 새것에 대한 탐구심이 남달리 강하다네.》

...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명산협동농장에 배치되어 6작업반 3분조장이 된 봄순은 함께 일할 분조원들을 한사람한사람 료해하는 과정에 병우에 대하여 원심을 쓰게 되었다.

나이는 26살, 분조원들의 말에 의하면 봄순이가 농장에 오기 며칠전 병우가 반장과 무슨 일이 있었는데 다른 작업반으로 가겠다면서 일에 열성을 내지 않는다는것이였다.

그 원인을 알고싶어 석호를 만났는데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 병우에 대하여 한치의 미련도 가지지 말라고 잘라매는것이 아닌가.

병우에 대한 석호의 뻥뻥한 태도와 옥배아주머니의 심중한 권고를 두고 생각하던 봄순은 본인을 한번 만나보리라 마음먹었다.

×

병우의 집은 새로 지은 아담한 살림집이였다. 마당으로 들어선 봄순은 조심스럽게 주인을 찾았다.

《계십니까?》

응답이 없었다. 대신 개우리에서 털이 누런 중개 한마리가 뛰쳐나오며 사납게 짖어댔다.

《어마나!》 혼비백산한 봄순은 바스라지는 소리를 내지르며 뒤걸음쳤다.

이때 등뒤에서 《거 누구요?》하는 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창황중에 돌아보니 언제 마당으로 들어섰는지 웬 청년이 경계심어린 눈길로 봄순을 쳐다보고있었다.

금시까지 길길이 날뛰며 짖어대던 개가 그 청년을 보자 제격 입을 다물고 어슬렁어슬렁 개우리로 꼬리를 사리였다.

그가 집주인임을 직감한 봄순은 얼굴에 상냥한 웃음을 떠올리며 인사를 하였다.

《안녕하세요, 병우동무지요?》

그 청년은 건성 인사를 받으며 푸쩍없이 웅대하였다.

《그렇소. 내가 병우요.》

보기 좋게 빗어올린 반고수머리에 우뚝 날이 선 코, 영채가 도는 두눈은 어디선가 만나본듯 한 인상이였다.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났었던가. 재빨리



기억의 갈피를 번지던 봄순은 그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 이게 누군가.

그때 내 책을 가지고 슬그머니 꼬리를 사린...

심장이 후두두 뛰었다.

혹시 잘못 보지 않았는가 해서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는 봄순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었다.

×

석달전이었다.

새 세기 농업과학의 추세와 실천, 발전전망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있는 새로 나온 도서를 품을 들어 손에 쥔 봄순은 기꺼운 마음으로 책방을 나섰다.

대학방향으로 가는 버스정류소에서 봄순은 뜻밖에도 소꿉시절의 동무를 만나게 되었다.

그 시절 콩깍지안에 나란히 들어앉은 콩알처럼 딱 붙어다니며 사랑 한알이 생겨도 똑같이 나누어 먹던 다정한 친구였다.

두 처녀는 만나자바람으로 어린애들마냥 발을 쿵 쿵 구르며 반가움과 기쁨의 소용돌이에 폭 빠져 그간의 해후를 나누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때였다.

별안간 누군가가 두 처녀앞에 담벽처럼 막아서며 흥을 깨뜨리었다.

《저 미안하지만...》

그 서슬에 아름다운 추억을 싣고 달리던 처녀들의 뒤통배가 암초에 부딪힌듯 멈춰섰다.

이마에 갈매기를 그린 두 처녀의 가시눈에 사내싸게 잘생긴 반고수머리의 청년이 비끼었다.

《왜 그래요?》

봄순의 친구가 바늘로 찌르듯 물었다.

반고수머리는 어쭙게 웃으며 봄순의 손에 쥐여져 있는 책을 가리켰다.

《미안하지만... 그 책을 좀 볼수 없습니까?》

책소리에 봄순은 공연히 화들짝 놀라 책을 쥔 손을 등뒤로 가무리며 기급한 소리를 하였다.

《아니, 안돼요.》

기대가 허물어진 반고수머리의 얼굴이 금시에 서리맞은 떡잎이 되고말았다.

허나 그의 눈에는 간절한 빛이 사그라질줄 몰랐다.

봄순의 친구가 옆구리를 쿵 찌르며 어서 보여주라는듯 눈짓을 하였다.

봄순은 어색하게 웃어보이며 선심쓰듯 책을 내밀었다.

《인차 돌려주어야 해요.》

《예, 그야 물론... 고맙습니다.》

책을 손에 쥔 반고수머리는 황송해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그리고는 즉시 책에 정신을 파묻었다.

두 처녀는 또다시 히히호호하며 추억의 배에 뺨을 올리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무지개처럼 화려하게 엮어진 두 처녀의 길지 않은 생활을 실은 배가 드디어 오늘이라는 부두에 뺨을 내리였을 때 그들은 그만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다.

언제 뺨스가 왔겠는지 비자루로 쓸어간듯 정류소에 길게 늘어섰던 손님들이 한사람도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어마나!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줄 모른다더니 이걸 어쩌나.

그래도 반고수머리만은 있을줄 알았는데 그마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봄순은 눈앞이 아득하였다.

눈 편히 뜨고 책을 읽었다고 생각하니 억이 막히었다.

망연자실한 봄순의 입에서는 반고수머리에 대한 원망이 기관총 연발사격하듯 쏟아져나왔다.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파렴치할수가 있어. 어리숙한체 하더니...》

×

그날 그렇듯 마음속에 불쾌한 자욱을 남긴 파렴치한과 이렇게 맞다들렸으니 세상은 정말 넓고도 좁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무표정한가. 나를 못 알아보았는가. 아니면 알아보고서도 모르는체 시치미를 떼는것일까.)

요지경속같은 병우의 태도가 봄순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금시 당장 책을 내놔요 하는 소리가 목구멍을 메우며 터져나올것만 같았다.

《날 왜 찾아왔습니까?》

병우의 물음에 생각에서 깨어난 봄순은 격한 감정을 애써 다잡으며 입을 열었다.

《동무가 분조를 떠나겠다는 리유를 알고싶어서요.》

그 소리에 병우가 골살을 쭈그리며 마뜩지 않게 반문하였다.

《동문 대체 누굽니까?》

그제사 봄순은 자기 소개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안해요, 난 새 분조장이예요. 이름은 봄순이라고...》

《그렇습니까?》

병우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봄순을 여겨보더니 통명스럽게 내뱉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면 반장한테 물어보십시오..》

무안을 당한 봄순은 속이 발끈하였다.

《상대가 진심을 보일 땐 진심으로 응하는게 도덕이 아닌가요?》

봄순의 반격에 여기가 질린 병우는 초면에 자신이 지나쳤음을 느낀듯 인차 수그러들었다.

《정 알고 싶다면 말하십시오.》

느닷없는 한숨을 내쉬 병우가 차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

한해 농사를 결속한 얼마전이었다.

석호를 찾아가던 병우는 새로 나온 농업과학기술도서를 본 소감을 이야기하였다.

책에 의하면 오래동안 농사를 짓는 과정에 땅속 깊이에는 굳은층이 형성되는데 그렇게 되면 벼뿌리가 땅속 깊이 뻗지 못하고 생육에 지장을 받아 정보당 소출이 떨어진다는것, 작업반의 농사수확고가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는 원인이 지난 시기 땅에 화학비료를 많이 쳐서 땅속에 비료층이 형성되어서가 아니겠는가고 반문하였다.

처음부터 설익은 살구먹은 상을 하고 빨래줄처럼 긴 병우의 《강의》를 듣는등마는등 하던 석호의 이마에서는 발고랑처럼 패인 주름살들이 널뛰기를 하고있었다.

피끗 석호의 표정을 본 병우는 그가 지금 지난해에 있는 일로 몹시 불쾌해한다는것을 느끼었다.

...지난해 봄이었다.

경천군에 사는 이모네 집에 갔던 병우는 그곳 농장에서 농업과학자들이 새로 연구한 생육기일이 짧은 다수확품종의 강냉이를 심어 종전보다 훨씬 높은 소출을 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호기심이 부쩍 동하였다.

관리위원회 회계원을 하는 이모에게 사정사정하여 얼마간의 종자를 구해가지고 돌아온 병우는 석

호에게 다수확품종의 강냉이종자의 우월성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을 하였다. 마치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보거나 한듯이...

구미가 동한 석호의 눈에는 그것이 비록 얼마되지 않은 종자였지만 황금알을 낳는 닭처럼 보였다.

금년에는 종자를 확보하고 다음해에 작업반 강냉이밭 전면적에 심어 온 농장이 깜짝 놀라게 통장훈을 부르리라. 그러자면 그 누구도 새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몰라야 한다.

병우에게 자기의 계획을 말한 석호는 작업반원들도 모르게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심었다.

그런데...

가을에 황금알이 쏟아지기를 기대하였던 석호의 꿈이 물거품이 될줄이야...

다수확은 고사하고 다른 품종보다 못한 소출이 났던것이다.

아연실색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고 다긋는 석호앞에서 병우는 그만 꿀먹은 벼어리가 되고말았다.

분명 이모가 새 품종의 다수확종자라고 주었는데 이럴수가 있는가.

맨발로 불판우에 올라선듯 급해난 병우는 천방지축 이모의 집으로 달려갔다.

울상이 되어 장탄식을 늘어놓는 병우의 말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있던 이모가 황황히 농장기사장을 만나고와서 하는 말이 그 종자는 자기네 농장과 같이 북부지대에 맞는것이지 병우네 농장처럼 평지대에서는 맞지 않는다는것이였다.

병우는 뼈꼭소리 한마디 못하고 돌아섰다.

새것이라고 하여 과학기술적요구, 다시말하여 지대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물덤병물덤병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자신의 실수를 심심히 반성하는 병우를 보는 석호의 눈길은 싸늘하였다...

《다 말했소?》

거칠게 반문한 석호가 히— 하고 코김을 내뿜었다.

《난 이젠 동무말은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곧이 안 들겠소. 이왕 말이 난김에 내 명백히 찍어 말하겠는데... 우리 작업반땅에는 절대로 굳은층인 지 뭇지 하는 도깨비가 있을수 없으니 다시는 내앞에서 그따위 허황한 소릴 하지 말라구.》

썩도 티워보지 못하고 무참하게 서리를 맞은 병우의 속에서는 흥두께가 치밀었다.

이거야 너무하지 않는가. 그래도 난 어떻게 하나 농사를 더 잘 짓자고 하는데...

좋다. 내 실물로써 증명할테다.

마음을 모질게 먹은 병우는 남모르게 작업반포전의 여기저기를 두루가며 땅속 깊은 층의 흙을 채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일이 그만 석호의 눈에 걸려들잖아.

성이 똑같이 난 석호는 눈에 시퍼렇게 도끼날을 세우고 노발대발하였다.

《동무가 농살 몇해 짓구 땅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감히 내 말을 무시하고 이따위 놀음을 벌려놔?》

몹서리가 칠 정도로 사정없이 후려치는 채찍질에 병우는 참고참던 분격을 폭발시켰다.

《사람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땅을 알고 모르는 것은 농사년한이나 나이로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과학이 증명합니다.》

《과학? 흥, 그렇게 과학을 잘 알아서 작년에 그런 골탕을 먹었소? 쥐뿔도 모르는 주제에 아는 체 하면서 앵무새처럼 썰렁거리지 말고 땀을 바치오, 땀을.》

년덜을 떠는 석호의 노성에 온 들판이 흔들거리는듯싶었다.

×

병우의 말을 들은 봄순의 생각은 깊어졌다.

대학에서 배운데 의하면 땅속에 굳은층이 형성되는 현상은 대체로 보기 드물다고 하였다.

하지만 일단 굳은층이 형성된 땅에서는 알곡수확고가 떨어진다고 한다.

농사를 짓는 파장에 소출이 올라가지 못하는 원인을 놓고 고심하던중 책을 보고 땅속 굳은층이 아니겠는가고 가설을 제기한 병우의 소행은 얼마나 기특한것인가.

그런데 반장은 왜 병우의 의견을 그렇듯 무참하게 묵살하였을가.

허심하게 받아들이고 토양분석을 해보면 되겠는데.

지난해에 있었다는 강녕이종자사건때문에 병우를 믿지 못하겠다는건가.

집작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거야 지나친 편견이 아닌가.

줄기에 아지를 치는 봄순의 상념을 가위질하며 병우의 목소리가 침울하게 울리었다.

《내 지금 후회되는것은 반장동지가 언제까지나 자고자대에 빠져있겠는지는 모르겠는데 더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땅을 혹사시키지 말라는 말을 못 한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예요?》

《반장동진 코대가 보통 높지 않습니다. 농사를 잘 짓기로 굳은 물론 도에까지 소문이 나 대회에도 여러번 참가하고 신문, 방송에도 널리 소개되다보니 이젠 농사에서 자기이상 없는것으로 자고자대한단 말입니다. 과학기술적요구보다 그 께진 복같은 경험을 더 중시하면서.》

《동문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웃사람에게... 경험으로 말하면야 우리한테 대겠나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봄순의 마음은 불안해졌다. 석호반장과 함께 일하기가 험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마치 허물기 힘든 천연요새와 맞닿은 심정이었다.

《하나 묻자요. 동문 작업반땅속에 굳은층이 형성되었다는것을 확인하는가요?》

《글쎄 꼭 그렇다고 장담할수는 없지만 몇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농사소출과 새로 나온 과학기술 도서에 썩여진 자료를 대비해보면 심분 그럴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자기 주장을 증명하지 못하였는가요?》

《난 더이상 반장에게 인격을 무시당하고싶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바로서면 돌개바람도 무섭지 않다는데 굳은층을 없애면 수확이 훨씬 올라간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물러선단 말이에요? 비겁하게...》

병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동무라면 반장앞에서 자기 주장을 증명할것 같습니까? 천만에! 아직 농사경험이 없는 동무가 나서면 코웃음이 아니라 양천대소할껍니다. 말하자면 이발도 안 나온 갓난아이가 통강녕이 씹는 격이라면서 말이요.》

조룡을 당한듯 한 봄순의 가슴에서는 불쾌감이 치밀었다.

《그렇가요? 아니, 난 동무처럼 비겁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디 한번 반장과 맞서보시오. 내 품놓고 구경을 해줄테니.》

《좋아요. 구경값은 막늑거리가 아니라는걸 아세요.》

《그건 대체 무슨 소립니까?》

《방금 동문 구경군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요. 그러니 다른텔 갈수가 없지요.》

《뭐요?!》

칼로 두부모베듯 신포하고난 봄순은 병우가 더 어쩔 사이도 없이 팩 돌아섰다.

가슴속에서는 병우에 대한 고까운 감정이 킁글 솟구었다. 남자가 어쩌면 그렇게도 소심하담.

젠걸음을 옮기던 봄순은 뭔가 놓친듯 한 생각에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그게 무엇일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책소리를 못 한것이였다.

맹꽁이같이, 당장 돌려달라는 소릴 왜 못했담. 하긴 그런 경황에서 책소릴 꺼낼 계제가 못되었지. 까짓거 좀더 보관하고있으라지. 되찾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다시 걸음을 옮기던 봄순은 그 어떤 예감에 뒤를 돌아보았다.

저기 병우의 집앞에 웬 녀인이 병우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눈에 밟혀왔다.

병우의 어머니인듯싶었다.

아들을 꾸짖는듯 한 병우의 어머니를 눈주어보는 봄순의 마음은 아릿해났다.

×

흙보산비료생산을 위한 작업조직을 한 봄순이가 흙구이터에 불을 지피려는데 언제 올라왔는지 석호가 우뚝 버티고 서있었다.

얼굴에 음울한 기색이 떠도는걸 보니 기분이 좋지 못한듯싶었다.

《듣자니 병우때문에 관리위원회 로동부원을 만났댔다면서?》

넌지시 던지는 그 물음에는 불만이 가득 풍기였다.

그것은 사실이였다.

병우를 만난 그날 봄순은 관리위원회에 찾아가 로동부원에게 병우의 조동을 중지시켜달라고 제기하였다.

그러자 로동부원은 난처해하며 작업반장이 이미 병우의 조동에 동의하였다고 하는것이였다.

그 말에 봄순은 자기는 분조장으로서는 절대로 동의할수 없다고 못을 박았었다.

《내 말하지 않던가, 그녀석에 대하여 조금도 기대를 가지지 말라구. 혹시 그녀석이 횡설수설한 땅속 무슨 층인지 뭔지 하는데 미련을 가진게 아닌가?》

중떠보는듯 한 석호의 물음에 봄순은 구태여 감

추고싶지 않았다.

《웁습니다. 저도 이제는 한개 분조의 농사를 책임진것만큼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마음을 쓰지 않을수 없습니다. 더구나 올해부터 포전담당제를 실시하는것만큼 분조원들이 자기들이 담당할 땅속내를 잘 알고 그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심정은 리해가 돼. 하지만 제발 병우녀석의 황당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구. 수십년 동안 이 땅을 걸구어온 내가 아무렴 제땅을 모를라구.》

《저도 반장동지의 말을 믿고싶습니다. 하지만 결보기에 멀쩡한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중병에 걸려 맥을 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고집스럽게 자기 주견을 세우는 봄순을 철없는 아이보듯 내려다보던 석호가 허구픈 웃음을 지었다.

《허허허! 의심이 병이라더니... 이제 보니 3분조장이 고집이 보통이 아니로구만. 걱정말라구. 이땅은 내가 책임지요.》

봄순은 속이 상하였다.

조금도 이가 들지 않는구나. 든장질로써는 움쩍도 않는 《천원요새》를 어떤 방법으로 허물어야 할가.

반장앞에서 토양분석소리를 할수도 없고...

×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서 온실안으로 들어서는 봄순을 본 온실관리공 순영은 큰일이라도 난듯 부산을 떨었다.

《아니, 분조장동지, 어디 갔댔기에 이렇게 얼음덩어리가 되었어요? 그 잔등의것은 뭐구.》

봄순은 량쪽어깨에 걸머지고온 두개의 배낭을 힘들게 벗어놓고 그우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아이구! 힘들어.》

온실안의 따스한 온기가 봄순을 포근히 휘감았다.

온실안은 푸르싱싱하게 자란 오이와 도마도, 부루와 쑥갓들로 꽉 찬듯싶었다.

《그건 뭐예요?》

순영은 봄순이가 깔고앉은 배낭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한숨 돌린 봄순은 순영을 끌려줄 심산으로 시치미를 떼며 엉너리를 쳤다.

《응, 이건... 풍년가을의 열쇠야.》



《풍년가을의 열쇠요? 누굴 놀리는거예요? 어디 보지요.》

봄순을 일으켜세우고 배낭아구리를 헤쳐본 순영은 흙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피, 이까짓 흙이 무슨 풍년가을의 열쇠람.》

《정말이라니까. 내 말을 들어봐.》

봄순은 웃음을 거두며 순영의 귀에 대고 소곤거리었다.

호기심이 동하여 봄순의 말을 들은 순영의 발길한 얼굴에 웃음이 확 피어났다.

《음, 알만 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반장동지가 알아서는 안된다는거지요, 알겠어요. 꼭 비밀을 지키겠어요.》

봄순이가 비밀을 지켜달라고 한것은 다름이 아니라 병우가 내놓은 가설인 땅속 굳은층상태를 증명하는것이였다.

물론 토양분석의 방법으로도 할수 있었지만 한사코 부정을 하는 석호의 주장을 허무는 방법은 땅속 30센치깊이의 흙과 일반흙에 부루나 쏙갓을 심어 생육상태를 대비해보는것이 더 직관적이고 설득력이 있을것 같아 그 방법을 택하였던것이다.

순영과 함께 온실 한끝에 두개의 작은 시험용 모판을 만들고 부루와 쏙갓씨를 뿌린 봄순은 온실을 나섰다.

×

《병우동무가 집에 없대요?》

봄순의 실망한 물음에 병우 어머니가 난색을 지었다.

《아침에 밥숟가락 놓기 바쁘게 3반에 사는 누이네 집에 갔다온다면서 떠나갔네.》

《그렇게 되였군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늘 출근하지 않은 병우를 찾아왔는데 일도 참 맹랑하게 되였다.

병우 어머니가 무작정 봄순을 잡아끌었다.

《왔던김에 방안에 들어가 잠깐이라도 앉았다가 가라구. 난 또 그 애가 애길 하구 갔다구.》

봄순은 그냥 돌아서고싶었지만 병우네가 사는 형편도 알아볼겸 못이기는척 하며 방안으로 들어갔다.

윤기나게 도색을 한 가구들과 전자제품들이 갖추어진 방안은 안온한 느낌을 주었다.

류달리 눈길을 끈것은 책장에 가득차있는 책들이었다.

병우가 공부를 많이 한다는것이 알리였다.

책상우에는 펼쳐놓은대로 그냥 놓고 나간듯싶은 부피가 두툼한 책이 놓여있었다.

무슨 책일까 하는 호기심에 그것을 집어든 봄순은 갑자기 전기줄이라도 켜듯 흠칠 몸을 떨었다.

석달전 버스정류소에서 잃었던 그 책이었던것이다.

드디어 제 물건을 찾은 기쁨이랄까 야릇한 심정에 싸여 책을 어루쓰는데 김이 문문 나는 고구마가 담긴 그릇을 든 병우 어머니가 방안으로 들어섰다.

《병우 그 애가 그 책을 끄적이라도 귀해한다네. 그걸 보면 농사에서 막히는것이 없다면서 밤을 밝히라며 본다네.》

《그래요?》

기계적으로 응대하던 봄순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병우동무가 오면 이 책을 제가 가져갔다고 말해주세요.》 하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그 말을 해놓고보니 못할 말을 한듯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맹꽁이, 그 말이야 병우앞에서 정정당당하게 했어야지.

봄순의 심정을 알리없는 병우 어머니는 딱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어쩌나. 병우가 제 승인없이 주었다고 날 원망하지 않겠는지 모르겠구만.》

아이 속상해. 버선목이라고 뒤집어보일수도 없고... 끄끔 속앓이를 하던 봄순은 변명하듯 말하였다.

《머칠 보고 돌려주겠어요.》

《정히 보라구.》

《...》

밤송이라도 깔고앉은듯 마음이 순편치 않은 봄순은 바쁜 기색을 보이며 일어섰다.

《어머니, 그럼 전...》

《아니, 왜 좀 더 앉았다 가지 않구.》

《빨리 가서 작업조직을 해야겠기에. 미안합니다.》

서두르며 밖으로 나선 봄순은 한마디 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병우동무에게 래일부터는 꼭 일을 나오라고 말해주세요.》

《알겠네. 그녀석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손목을 잡고서라도 가겠네.》

《안녕히 계십시오.》

황황히 마당을 벗어난 봄순은 종결음을 쳤다.

손에 쥔 책을 보는 그의 입가에는 어이없는 웃음

이 스치었다. (야, 네 운명도 참 묘하구나.)

×

병우의 출현은 분조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병우가 나왔구만.》

《꽃같은 처녀분조장을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모양이지.》

《호호호!》

병우는 쥐구멍에라도 뛰어들고싶은 심정인양 몸돌바를 몰라하였다.

마음이 즐거워진 봄순은 분조원들에게 말하였다.

《오늘부터 병우동무에게 아미노산복합비료와 고농도린세균비료생산을 책임지우자는거예요. 다른 의견들이 없겠지요?》

《없어요.》

모두 찬성하였다.

《옥배아주머니, 성금아주머니 그리고 명보동문 병우동무와 함께 일하세요.》

아까부터 싱글벙글하던 옥배아주머니가 한발 나서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새 병우가 공부를 많이 한 보람이 있구만. 책임자로 다 뽑히우고… 이 사람, 무슨 일이든 망설이지 말구 말기라구. 소갈데 말갈데 군말없이 다 갈테니까.》

또다시 웃음이 터졌다.

《유기질비료생산현장은 립시로 분조소농기구창고를 리용하세요.》

분조원들이 제각기 흩어졌다.

아까부터 서먹서먹한 표정으로 서있던 병우가 분조원들이 없는 틈을 타서 봄순에게로 다가왔다.

《저… 분조장동무.》

《무슨 일이에요?》

《책을 다 보았으면 돌려주지 않겠소?》

그 소리에 봄순은 한순간 굳어졌다.

그 책의 주인은 바로 저예요 하는 말이 허끝에서 땀줄다가 녹아버리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알겠어요. 래일 돌려주겠어요.》 하고 말하는 봄순의 목소리는 떨리었다.

봄순이가 병우네와 한창 소농기구창고에서 공구들을 밖에다 꺼내놓는데 언제 나타났는지 석호가 고개를 기웃거리었다.

《여기선 뭣들 하오? 공구전시회라도 하려오?》 하던 석호가 병우를 보자 눈살이 찌푸려졌다.

석호와 눈이 마주친 병우도 쓴외 보듯 원고개를 틀었다.

무슨 말인가 하려는지 입귀를 실룩거리는 석호를 띠여본 옥배가 서둘러 설레발을 쳤다.

《반장아주머니, 올해에도 지난해만큼 비료를 끌어올수 있나요?》

소태짚은 상을 하고있던 석호가 옥배가 던진 미끼를 받아물며 흰목을 뽑았다.

《그럼, 죽으나사나 해내야지. 비료가 없이 농사를 지을수가 있소?》

《에이구, 또 고생하게 됐군요. 이젠 나이도 그 전갈지 않은데 그만두세요.》

《그만두다니, 그럼 농사는 어떻게 하구…》

《아미노… 거 뭐라더라.》

허가 잘 돌지 않아 갑자르는 옥배를 보다못해 석호가 흥 코웃음을 치며 말귀를 띄워주었다.

《어이구, 아미노산복합비료라 합니다.》

《예구머니나, 반장아주머니두 그 아미노 무시킨지 하는 비료를 아시우?》

옥배가 어마지두 놀라는 시늉을 하며 물었다.

《흥, 지금 농사짓는 사람이 그것두 모르면 되우? 하지만 화학비료이상 없수다.》

《그래두 아미노산복합비료랑 고농도린세균비료를 만들어 치면 화학비료 없이도 농사를 잘 지을수 있대요.》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있던 석호가 양천대소하였다.

《하하하!… 아주머니, 그새 꽤 발전했수다레.》

《최첨단시대인데 우리 농사군들이라구 계속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살겠어요. 말이야 바른대로…》 하며 으쓱해하던 옥배가 저도 우스운지 어깨를 들썩이였다.

《호호호!》

그때 봄순이가 창고안에서 나오며 옥배의 편역을 들었다.

《옥배아주머니 말이 옳습니다. 올해에 우리 분조는 될수록이면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유기질비료를 기본으로 농사를 짓자는겁니다.》

석호는 머리를 흔들었다.

《허허, 그게 말처럼 될가. 동문 농사일이 처음이여서 잘 모를수 있는데 땅이라는건 화학비료를 충분히 먹여야 힘을 쓰오.》

《아닙니다. 그건 낡은 견해입니다. 세계농업발전추세를 보아도 화학비료가 아니라 유기질비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그

래야 땅이 산성화되는것을 막고 정상상태를 유지할  
게 아닙니까.》

이때라고 옥배가 풍구질을 해댔다.

《반장아주버니, 우리 분조장말을 잘 새겨들으라  
구요.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반장보고 비료중독  
자라고 하는데.》

주먹맞은 감투격이 된 석호가 불파귀를 실룩거리  
며 옥배에게 눈을 빨았다.

《젠장, 그 입에 뭘 물려주어야 다물겠소.》

자신이 지나쳤음을 느낀듯 옥배가 나이에 어울리  
지 않게 호들갑을 떨었다.

《호호, 성나셨수?》

쓴입을 다신 석호가 채머리를 흔들며 돌아섰다.

정정정정 걸음을 옮기는 석호의 뒤를 이속으로  
지켜보는 봄순의 마음은 산란하였다.

×

분조장들을 모아놓고 하루사업총화를 지은 석호  
는 봄순을 따로 남겨놓고 따지고들었다.

《3분조장은 끝내 병우녀석이 하자는데로 하겠  
다는거요?》

꼭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 예감했던 봄순은 주저  
없이 응대하였다.

《병우동무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동무가  
하겠다는 일이 그르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람? 뭘 보고 그런 소릴 하오?》

《그 동무는 새것에 대한 지향과 탐구심이 남다  
릅니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그 어디서나 남보다  
뒤떨어진것을 불만스러워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모  
지름을 쓰는 사람을 요구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반장동지가 병우동무에 대한 편견을  
버렸으면 합니다. 지난해 강냉이종자사건도 그렇  
지 않습니다.》

새로 나온 다수확품종이라는데 현혹되었던 나머  
지 과학기술적요구를 무시하여 실수를 하였지만 어  
떻게 하면 농사를 더 잘 짓겠는가 하는 지향은 얼  
마나 훌륭합니까.》

먼산 구경하듯 씩씩한 표정으로 서있던 석호가  
손을 뻗어 내저으며 말을 꺼냈다.

《됐소, 그만하지요. 내 3분조장의 의견을 참작  
은 하겠소만 병우녀석에게 이르오. 다시는 없는 굳  
은충소리를 들고다니지 말라구.》

봄순의 입에서는 느닷없는 한숨이 새어나왔다.

넘지 못할 절벽앞에 선 심정이였다.

어쩌면 이렇게도 아래사람들의 의견을 성근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봄순은 소힘줄보다 더 질긴 석호의 웅고짐을 깨  
려면 백마디 말보다 실물이 필요함을 다시한번 절  
감하였다.

그것이 지금 온실에서 진행하고있는 실험이  
였다.

매일이다싶이 온실에 들러보면 두개의 모판에 심  
은 부루와 쑥갓의 생육이 눈에 띄게 알린다. 땅속  
30센치이상의 깊이에서 파온 흙으로 만든 모판의  
부루와 쑥갓은 벌써 손가락 한기장만큼 자랐는데  
그것만 보아도 땅의 영양상태가 좋다는것이 확연  
하게 알리였다.

반면에 일반흙모판에 뿌린것은 이제야 겨우 싹을  
내민 상태이다.

며칠만 더 참고 기다리자. 그때 가서 반장이 무  
슨 말을 할가.

×

하루작업을 끝낸 봄순은 분조원들과 함께 퇴근  
길에 올랐다.

대한을 기다리는 날씨는 여간만 쌀쌀하지 않았  
다. 눈이 오려는지 하늘에는 구름이 짙 덮이였다.

삼삼오오 떼를 지어 앞서가는 분조원들과 조금  
떨어져 걸음을 옮기는 봄순의 곁으로 병우가 조심  
스럽게 다가섰다.

《분조장동무, 하나 물읍시다.》

자기 생각에 골똘해있던 봄순은 놀란듯 고개를  
쳐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전번에 날보고 구경값이 녹거리가 아니라고 한  
건 무슨 소리요?》

《그건...》 하던 봄순은 상긋이 웃으며 반문하  
였다.

《그때 동문 어떻게 생각했어요?》

《난 분조장동무가 반장동지앞에서 땅속에 굳은  
층이 있는가, 없는가를 증명하리라고 생각했됐소.  
그런데...》

《실망했다는건가요?》

《실망이야 뭘... 내 그때 말하지 않았소. 반장동  
지 꺼꾸러뜨리기가 험치 않다고...》

《호호호, 그런가봐요. 이제라도 다시 반장동지  
에게 그 문제를 제기해보지 않았어요?》

중떠보듯 묻는 봄순의 말에 병우는 큰일난듯 펄  
쩍 뛰였다.

《아니, 그만두겠소. 난 다시는 반장동지와 마주

서지 않기로 결심하였소.》

봄순의 입가에 어설픈 웃음이 스치었다.

《동무두 참, 진리는 여러 의견과 충돌속에서 나온다지 않아요. 그러구 종당에는 꼭 진리로 남구요. 그런데 그쯤한 일에 몸을 사리다니요.》

난 동무가 앞으로 옳다고 확신하는 문제에서는 담대하고 결단성이 있었으면 해요. 담대하고 결단성이 있는 사람은 한번 죽지만 비겁한 사람은 천번 죽는다고 했어요. 더구나 새것을 창조하는 일에 무슨 일이 없겠어요.》

심중해서 듣고있던 병우가 생각되는바가 있는듯 머리를 끄덕이었다.

《알겠소. 내 이제부터 분조장동무의 의견을 참고하겠소.》

《땅속곤은충문제는 조만간에 증명될거예요.》

봄순의 확신에 병우의 눈에서 불꽃이 튀기었다.

《그게 정말이요? 어떻게 말이요?》

《아이, 동문 구경군이 아닌가요.》

무슨 말인가 하려던 병우는 랑패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얼굴에 피어난 호기심은 사라질줄 몰랐다.

×

관리위원회에 불 일이 있어 들렀다가 분조원들이 일하는 작업장으로 향하는 봄순의 앞으로 온실관리공 순영이가 급히 뛰어오고있었다.

《분조장동지!—》

봄순은 웬일인가싶어 그를 향해 빠른 걸음을 옮기었다.

구울듯이 달려와 봄순의 앞에 마주선 순영은 참새숨을 할딱거리며 재잘거리었다.

《내 말 좀 들어봐요. 아이, 우스워...》

제흥에 떠서 깔깔거리는 순영을 쳐다보는 봄순은 예감이 이상하였다.

이 애가 왜 그럴가.

《무슨 일이야? 웃지만 말고 어서 말해.》

《호호호, 좀전에 반장동지가 온실에 와서...》

《뭐라구?!》

그 소리에 봄순은 더럭 긴장되었다.

《그래서...》

웃음을 거둔 순영이가 다음말을 이었다.

...순영이가 코노래를 흥얼거리며 오이포전에 물을 주고있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석호의 늘어진 소리가 귀전을 두드렸다.

《순영아, 수고하누나.》

일손을 멈춘 순영이가 살풋이 인사를 하였다.

《아이, 반장동지. 어서 오십시오.》

팔뚝같은 오이들이며 빨강게 익은 도마도, 키를 부쩍 솟군 쑥갓 등 푸르싱싱한 남새들을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석호의 기분은 좋았다.

《우리 순영이가 온실농사를 잘 짓거던.》

석호의 칭찬에 순영의 얼굴이 익은 도마도가 되었다.

《아이, 반장동지두...》

《이만하면 설명절날 작업반원들에게 넉넉히 공급할수 있겠군.》

온실의 여기저기를 돌아보던 석호의 걸음이 한곳에서 멈춰섰다.

봄순이가 만들어놓은 시험포전이였다.

《이건 뭐냐?》

그 소리에 순영은 속이 한줌만 해졌다.

《예, 그건 저...》

창황중이라 순영은 봄순이 소리를 하려다가 아차, 하며 얼른 허를 깨물었다.

《예. 그건... 부루와 쑥갓을 수확한 다음에 인차 옮기려고...》

사공 배머리 돌리듯 둘러맞춘 순영은 스스로도 제 말재간이 기발한지 웃음을 참지 못하였다.

무릎을 꿇고 앉은 석호는 숙성이 판이하게 다른 두개의 모판을 번갈아 살펴며 물었다.

《이 모판의것은 이렇게 잘 자랐는데 이쪽건 왜 겨우 싹이 났느냐?》

《예. 그건... 이 흙에 영양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화학비료를 친게지.》

《아닙니다.》

《모를 소리다. 비료를 먹지 않고 이렇게 잘 자랄수가 있나. 그렇다면 이 흙은 어느 포전의것이냐?》

《그건 잘...》

거짓말을 하는 순영의 이마엔 어느새 땀발이 섰다.

땅속 30센치깊이의 흙을 손으로 주물러본 석호는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땅의 영양상태가 모두 이 정도만 되면 괜찮겠는데...》...

여기까지 말한 순영은 속상한듯 토달거렸다.

《반장동지한테 거짓말을 한게 얼마나 미안하던지...》

가슴을 조이며 순영의 말을 들은 봄순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후날 반장동지가 날 욕하지 않을까요.》

《욕은 무슨...》

봄순은 석호가 했다는 그 말에 마음이 혼 혼해났다.

×

시험포전에 마주앉은 병우는 눈이 휘짝 뒤집혔다.

《이게 땅속굴은층아래 흙이란 말이요?》

《그래요.》

봄순의 말에 두 포전의 흙을 한줌씩 랑손에 움켜진 병우의 얼굴에는 자신의 가설이 현실로 증명되었다는 환희와 기쁨이 물결쳤다.

《분조장동무, 고맙소.》

허리를 펴며 일어서는 병우의 눈가에는 물기가 번뜩이었다.

《아이, 그러지 마세요. 동무가 아니었다라면 전 올해농사를 눈 뜬 소경처럼 지을번 하였어요. 그렇다는 의미에서 고맙다는 인사는 오히려 제가 해야 해요.》

《난 용렬한 놈이었소, 비겁하고...》

《사람이 자신을 알면 분발한다고 했어요.》

봄순의 얼굴에 박힌 병우의 선망의 눈길은 좀처럼 떨어질줄 몰랐다.

×

석호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던 봄순은 논판 한가운데 썰물에 드러난 바위처럼 웅크리고 앉아있는 석호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체념에 잠긴듯 한 석호는 봄순이가 다가오는것을 느끼지 못한듯싶었다.

그는 잠전에 강짜로 잡아끌다싶이 하는 병우에게 코가 꺾여 온실에 갔었다.

병우가 기고만장해서 시험포전을 가리키며 자, 보라, 아직도 땅속에 굴은층이 없다고 고집할텐가 하며 큰소리를 탕탕 칠 때 삐죽소리 한마디 내지 못한걸 생각하면 속이 졸아드는듯싶었다. 그럴수 없다고 목터지게 부정하고싶어도 론박할 여지가 없는 과학적인 증명앞에서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부지중 땅을 알고 모르는것은 농사년한이나 나이로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과학이 증명한다고 하던 병우의 말이 생각키웠다.

봄순인 또 뭐라고 했던가.

결보기엔 건강해보이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병이 들어 맥을 못 칠 때가 있다고 했었지.

아, 난 결국 청맹파니였구나.

그런줄도 모르고 명예와 공명에 도취되어 땅도 자기가 제일 잘 알고 농사도 자기가 제일 잘 짓는다고 자고자대하였으니 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가.

늘 잠자는데 버릇된 사람은 계속 누워있으려 한 다더니 내가 언제 그런 속물이 되였는가.

남을 손가락질하려면 제 손이 깨끗해야 한다고 하였거늘 눈 뜬 소경인 주제에 병우를 혼시질하려 하였으니 그가 날 얼마나 원망하였을텐가.

오죽했으면 병우가 반장과 맞설바엔 담벽하고 마주서는게 낫다고 했겠는가.

조수처럼 밀려드는 회한에 석호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다.

《반장동지!》

속삭임처럼 들리는 소리에 고개를 쳐들던 석호는 봄순을 보자 낯날에 찍힌 풀대모양 고개를 꺾었다.

그를 보기가 부끄러웠다.

아직은 농사경험이 없는 책상물림으로 치부하고 낯고 진부한 경험을 휘두르며 신칙하려 하였던 봄순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하니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도 있는가.

문득 거인과 난쟁이에 대한 옛말이 생각키웠다.

《감기에 들겠습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봄순이가 석호의 옆구리에 손을 끼며 부축하여 주었다.

《허, 일두 참. 난 그래두 제판에 년장자, 경험 자연하면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보는 3분조장을 돕자던노릇이 오히려 의지하는 신세가 되었구만. 부끄럽네. ...》

《아이, 무슨 말씀을...》

《후회는 언제나 때가 늦는 법이라지만... 늦기는 했어도 3분조장을 만난게 천만다행일세.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식경제시대인 오늘의 농사는 년한이나 경험이 아니라 과학기술로 지어야 한다는것을 계속 말로만 외울번 했거던, 허허허!》

김빠진 입김을 내뿜며 허거픈 웃음을 짓는 석호의 얼굴에선 그물같은 잔주름들이 풍만난듯 떨고 있었다.

봄순의 부축을 받으며 걸음을 옮기는 석호는 자주 헛발을 내디디는통에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었다.



X

봄순이 상긋이 웃으며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었다.

# 아이들의 웃음으로 밝아지는 내 나라

위 명 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가실 곳도 들리실 곳도  
만나주실 사람 많고많아도  
나라의 천만사가 여기에 있는듯  
또다시 찾아주신 평양애육원

하루가 열흘 백날인듯  
손꼽아 기다리고기다리던  
아버지가 오셨다고  
아버지! 목메여 부르며  
넘어질듯 헤뎀비며 달려와  
원수님품에 파고드는 원아들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자란 원아들  
어찌 경애하는 원수님을  
하루가 열흘 백날처럼 기다리지 않았으랴  
어찌 경애하는 원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와안기지 않았으랴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은  
원아들의 아버지이시였다  
원아들 원수님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열흘 백날처럼 길고 길었다면  
원수님 원아들 만나주실 그 하루하루는  
백날이신듯 천날이신듯

그 마음안고 오신 원수님이시여서

품에 안겨 재롱부리는 아이들의 앵두볼에  
뽀뽀도 해주시고  
명절날에 무엇을 하며 놀았는가 물으시며  
뒹어진 옷도 털어주시고  
명절날에 맛있는것을 먹었는가고 물으시며  
배도 만져보시고

노래를 불러드리는 원아들에게  
용타고 박수도 쳐주시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시며  
원수님의 혁명시간 조선의 시간을  
원아들의 가슴마다에 사랑의 백날천날로  
꽂 채워주신 원수님!

주고주신 사랑 아직도 모자라신듯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요람을 꾸려  
다시 만날 약속까지 해주시며  
미래에서 당겨올수 있는 모든 사랑을 베푸시었  
나니

아, 미래를 앞당겨 주시는 사랑  
위대한 사랑의 태양의 빛말아래  
높아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더욱더 밝아지는 내 나라여  
축복받은 조선의 아이들이어!

가 사

## 조국의 존엄지켜 병사가 있다

차 철 호

이 땅에 뿌리내린 한그루의 나무도  
총잡은 병사에겐 목숨보다 소중한데  
그 잎새 하나라도 원쑤가 다친다면  
멸적의 불을 재운 총대로 결산하리  
아 조국의 존엄지켜 병사가 있다

신성한 우리 땅을 건드리는 원쑤들은  
살아서 숨쉴 곳이 하늘아래 없으리라  
병사가 내 조국을 어떻게 지키는가

정의의 성전으로 세상에 보여주리  
아 조국의 존엄지켜 병사가 있다

대원수님들 빛내주신 우리의 사회주의  
원수님 이끄시여 귀중한 나의 조국  
백두의 혁명강군 틀어쥔 총대우에  
조국은 부강하고 승리는 영원하리  
아 조국의 존엄지켜 병사가 있다

# 바다만풍의 씬들속에 넘쳐나는 서정의 향기

권선철

설레이는 바다, 우리의 바다엔 노래도 많고 전설도 많다.

하기에 갈기를 솟구는 파도에 용맹을 비기고 천구슬만구슬로 부서지는 물결에 기쁨을 실으며 사랑과 정을 주던 그 바다에서 새로운 시대어가, 새로운 노래가 태어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는 곡을 붙이지 않아도 능히 사람의 가슴을 설레이게 할수 있도록 씌어져야 한다.》

산악같은 거창함과 심연파도 같은 그윽함, 망망대해의 시원함을 주던 그 바다가 자기의 독특한 향취를 사회주의바다향기로 심장마다에 꼭 채워주고 있다.

사회주의바다향기!

짙막한 시대어와 더불어 애국으로 불타는 후더운 심장들에 그 독특하고 감미로운 향기를 아낌없이 뿌려주며 흥겨운 노래가 이 땅에 울린다.

## 기쁨과 랑만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가사의 첫 구절에서부터 우리의 심장을 틀어잡는것은 기쁨과 랑만의 정서이며 웃음과 희망의 서정이다.

포구엔 만선의 배고동소리  
선창엔 물고기 가득 웃음도 절로 나네  
늑실늑실 만경창과 춤추는줄 알았더니  
물고기 떼지어 출렁이는 보배론 바다로다  
마중가며 잡구요 어그여차  
따라가며 잡구요 어그여차  
어그야 디야  
우리 정성 우리 기쁨 풍어기로 나뭇겨라  
사회주의대가정에 바다향기 더해가세

선창에 가득한 물고기가 웃음을 절로 낳게 하며 그 웃음뎌 눈길로 바라보는 바다는 그대로 물고기가 떼지어 출렁이는 보배론 바다이다.

늑실늑실 설레이는 바다는 왜서 어로공들의 마음속에 《춤추》는 모습으로 비끼는가.

우리의 바다엔 고기가 없다고 한숨만 내쉬던 패배주의자들에게는 그냥 푸르기만 했던 바다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무조건 결사판철하는 우리의 어로공들에게는, 우리의 헌신적인 창조자들에게

는 그대로 복을 주고 행운을 주는 바다로 정겹게 비껴온다. 바다를 보고 대하는 눈은 심장에 불타는 정과 열에 의해 새로워졌다. 그래서 어로공들의 기쁨과 랑만이 《마중가며》 잡고 《따라가며》 잡는 흥겨운 로동의 희열을 낳고있다.

가사에는 보배론 바다를 안아온 힘, 바다사나이들의 심장에 후더운 숨결을 준 열의 세계에 대한 자그마한 설명도 해설도 없다. 단지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는 웃음, 그 기쁨을 마련하고 창조하는 과정에 대한 희열과 랑만의 세계, 그 정성과 기쁨이 풍어기로 나뭇기기를 바라는 희망의 세계가 있을뿐이다.

가사의 1절에서 보여주는것처럼 어로공의 기쁨이 바다를 통채로 안고 희열과 랑만으로 끓어넘치고있다.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구태여 설명하고 라렬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가사는 누구나 알기 쉬운 평범한 말속에 오래도록 생각하고 잊혀지지 않는 여운을 심고 그 여운으로 하여 많은련상을 떠올리고 세찬 충격을 받아안게 하기때문이다.

가사 《바다만풍가》의 형상세계속에도 생활과 추억의 토막들에 둘러싸인련상의 힘이 깃들어있으며 그련상의 힘에 실린 형상적여운이 가사의 철학적성을 담보해주고있다. 어로공들의 가슴속에, 이 노래를 부르는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굶니는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세계가 가사의 형상적바탕으로 굶이치고있는것이다.

누구인들 모를수 있겠는가.

어로공들의 가슴속에 넘치는 기쁨과 랑만, 물고기대풍을 안아온 자랑과 긍지가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있는가를...

온 나라가 다 알고 세상이 다 기억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류레없이 악랄해지고있던 때 바다에 군함이 아니라 고기배를 띄워주시고 그 이름도 《단풍》호라 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이 오늘의 물고기대풍을 안아왔다.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량이 령장의 수첩에서 계산되었고 바다없는 산골마을들에 물고기를 실은 차들이 줄지어 찾아가는 경이적인 현실이 이 땅에 펼쳐졌다. 물고기를 더 많이 잡으라는 당부를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가 아니라 간절한 부탁으로 어로공들의 심장에 남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아버이사랑은 온 나라 인민이 기뻐하는 새 소식을 전해왔고 변이 나는 세월에 사변적의의를 더해주는 물고기대풍을 안아왔던것이다.

동해에서 나뭇긴 풍어기가 서해의 전역에서 힘차게 나뭇기는 눈부신 성과가 이 땅에 꿈같이 도래한 현실이 《우리 정성 우리 기쁨 풍어기로 나뭇겨라》의 구절속에 속속 숨배여 가슴가슴들을 뜨겁게 적셔준다.

가사의 1절에서 기쁨과 랑만의 정서로 충만된 풍만한 서정은 2절에서 더욱 깊어지고 심원해진다.

포구엔 만선의 배고동소리  
선창엔 물고기 가득 웃음도 절로 나네  
땅우에는 단풍계절 한해 한번 있다지만  
우리네 바다는 사시장철 풍성한 가을일세  
산더미로 퍼올려 어그여차  
물고기산 쌓아라 어그여차  
어그야 디야  
이 기쁨이 뉘덕이나 원수님의 은덕일세  
사회주의대가정에 바다향기 더해가세

풍요한 가을처럼 바다에서도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라는 의미에서 인민군대수산사업소에 보내주신 고기배들의 이름을 가을의 상징인 《단풍》호로 달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이 어로공들의 심장에 뜨겁게 넘쳐흘렀으니 어찌 단풍이 한계절에만 불탄다고 하겠는가. 이 땅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절이 흘러가도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천만군민의 행복의 열매 무르익는 가을만이 짝 차있었으니 그이의 사랑과 정이 담겨 노래의 구절이 이토록 뜨거운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이 안겨드는 품이라면 자식의 도리는 받들어올리는 헌신이다.

사랑에는 헌신이 놓이고 정에는 보답이 따르기 마련이다.

천만군민을 꼭 품어안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가꾸시는 그이의 품속에서 풍요한 가을이 불타고있는데 그이의 사랑을 지닌 바다사나이들의 심장에 어찌 풍성한 가을이 사시장철 뒤설레이지 않을수 있으랴!

아버이의 소원을 지닌 자식들의 심장이 땅우에 한번 있는 단풍계절을 바다에서는 온 한해 펼쳐놓으리라는 열정과 기개가 희열과 랑만의 정서를 타고 확신성있게 울린다. 그래서 《산더미로 퍼올려... 물고기산 쌓아라》는 웨침이 호기있고 다기찬것이다.

기쁨과 웃음, 랑만과 희열은 이 자랑찬 성과의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정서적해명으로 이어지고있다.

이 기쁨이 원수님의 은덕이라고 노래하는 뜨거운 진정은 단 한마디, 수천수백마디의 응축된 감정의 응결체인 《원수님의 은덕》이라는 눈물겨운 격

정으로 힘있게 구가되고있다. 자랑과 긍지, 환희와 즐거움을 낳는 물고기사태를 기쁨이라는 한마디말로 품어안은 가사의 정서세계는 잇달오는 현상이 뜨거워 추억깊은 서정으로 깊어진다.

절세의 위인들의 한평생의 념원이 뿌리가 되고 우리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해빛이 되고 자양이 되어 안아올린 바다의 새 풍경, 물고기풍년의 경이적인 사변은 동해와 서해의 풍년소식을 쌍으로 낳고 이 땅 어딜 가나 련속적으로 들이닥칠 단풍계절의 환희를 절감하게 한다.

《사회주의대가정에 바다향기 더해가세》, 《바다만풍가》의 사상적알맹이는 결코 1절과 2절가사에서 반복해 쓰인 마지막결구의 형상세계만을 뜻하지 않는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대가정의 아버지로 모신 사회주의 내 나라 강산에 끝없이 더해질 바다향기, 사회주의향기를 예고하고 그 향기를 말으며 더욱 튼튼히, 억세게, 기세차게 일떠설 내 조국땅 방방곡곡의 《단풍》소식이 끝없이 잇달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만풍가》들이 높이 울리리라는 천만군민의 의지와 선언의 토로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만풍가》를 동해와 서해에서만 아니라 오곡이 무르익는 전야, 수천척지하막장,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어느 전선에서나 즐겨부른다.

그래서 우리 《단풍》호갑판우에 자신을 세워두고 일하며 그들처럼 한몫 그대로 그물이 되고 추진기가 되어 사회주의바다향기에 자기들의 향기를 합치고싶어한다.

전선으로, 후방으로 끝없이 달릴 물고기차를 바래우고 우리의 가정, 우리 식탁에 풍성하게 오를 흐뭇한 바다향기를 마음껏 들이키며 사회주의향기에 《나》의 땀과 노력을 보태고싶어한다.

정녕 물고기가 가득찬 선창에서 웃음이 절로 나서 가슴들먹이는 기쁨과 랑만에서부터 천만군민을 품어안고 기울이는 뜨거운 사랑과 그 사랑을 지닌 인간들의 헌신적감정으로까지 서정흐름을 줄기차게 이어나간 가사 《바다만풍가》의 형상세계는 그 정서적감흥과 철학적어운이 깊은것으로 해서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있다.

바다에는 향기가 없어도 우리의 사회주의바다에는 사랑의 향기가 있다. 그 넓은 바다를 품어안은 사랑의 바다에 기쁨과 랑만이 출렁이고 행복과 번영이 파도치며 끝없는 사회주의향기를 이 땅에 더해준다.

바다향기가 풍미하는 서정의 향기는 이렇게 뜨겁고 강렬하며 정가롭다.

## 눈에 보이듯이 방불하게...

얼마나 직관적이고 형상적인가.

눈에 보이듯이 방불하게 그려낸 로동의 희열이고

어깨춤이 절로 나게 엮어진 형상의 진미이다.

줄지어 포구에 와닿는 고기배들의 구성진 고동소리가 들리는듯 하고 선창에 가득한 물고기를 보며 함박처럼 벌어지는 웃음이 눈에 보이는듯 하다. 늑실늑실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로 나가 마중가며 잡고 따라가며 잡는 물고기잡이광경이 형상적인 화폭으로 회화성이 강하게 방불히 그려진다. 그런가 하면 금시 풍어기가 펼쳐이는 속에 어로공들의 구성진 노래가락도 흐르는듯 하다.

짧은 시구절속에 직관적인 표상과 섬세한 형상을 담아낸것은 가사의 예술적특성의 하나이다. 가깝게는 형상적구현과정에 보여진 통속성의 웅당한 귀결인것이다.

알기 쉽고 부드러운 어휘가 내는 친근한 맛을 리용하여 역시 한번 들으면 《나》의 생활과 느낌으로 감수되도록 그 형상력을 높여왔다.

1절에서 늑실늑실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로공들의 기쁨이 발산된다면 2절에서는 투망한 고기그물을 끌어올리고 선창이 비좁도록 물고기산을 쌓아가는 어로공들의 걸썩 작업모습을 방불하면서도 진실하게 그려볼수 있게 한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 반복되는 구절 《포구엔 만선의 배고동소리/선창엔 물고기 가득 웃음도 절로 나네》의 형상적표현은 너무도 귀에 익고 입에 올라 순간에 마음을 친숙하게 해준다. 친숙한 생활감정이 부드럽고 유순한 어휘와 밀착되어 친근한 형상세계를 펼친것이다.

보기 드문 물고기사태, 물고기대풍을 안아온 8월 25일수산사업소를 찾으시여 우리의 원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그대로 가사의 첫 구절이 되고 외우시던 노래구절이 그대로 가사의 친근한 형상이 되어 민요풍의 흥겨운 선율을 낳았다.

땅우에는 단풍계절이 한해에 한번 있지만 우리네 바다는 사시장철 풍성한 가을이라는 시형상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의 소원이 그대로 깃든 구절인것으로 하여 생소하지 않고 정이 폭 들게 한다.

마치도 이 몸이 그대로 출항의 배고동소리 울려 퍼지는 고기배의 갑판에 올라있고 이 몸이 물고기 비린내가 물씬 풍겨오는 선창의 물고기산앞에 선듯이 상쾌한 감정이 밀물처럼 솟구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희열의 세계가 비친 노래구절이어서 인민의 걱정이 이다지 뜨겁고 열렬한것인가.

사회주의생활의 참모습이 생동하게, 독특하게 반영된 가사 《바다만풍가》는 그 양상이 참으로 밝고 흥겨우며 활기차다. 아마도 가사형상에 구현된 바다사나이들의 열정과 다기차고 활기있는 모습, 그들의 랑만과 희열, 만선의 기쁨과 긍지가 그 양상을 밝고 명랑하게 엮어낸 비결인듯싶다.

양상의 밝고 열정적인 색조를 타고 흥겨운 민요풍의 선율이 건드러지게 울려나 흥취나는 가락을 펼치고있다.

바다에서 불려도 좋고 땅우에서 불려도 제격이다.

순간에 확 가슴에 안겨드는 형상이고 눈에 보듯이 방불히 그려지는 바다의 모습이며 오래도록 취하고싶은 독특한 바다정서, 바다향기이다.

직관적인 표상이 잘 안겨오도록 형상적이며 활동적인 느낌이 강렬하도록 구체적인 가사형상은 조흥구의 리용에서도 그 예술적특성이 살아나고 있다.

산더미로 퍼올려 어그여차  
물고기산 쌓아라 어그여차  
어그야 디야  
이 기쁨이 뉘덕이나 원수님의 은덕일세  
사회주의대가정에 바다향기 더해가세

《어그여차》의 반복이 로동의 희열과 흥취를 물고기산을 쌓아가는 랑만의 세계로 돈구어준다면 《어그야 디야》의 표현은 그뒤에 잇달오는 어로공의 기쁨을 한층 더해주는 작용을 한다.

물고기를 잡는 광경이 눈에 보이듯이 방불히 그려지는 리유의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조흥구의 적절한 리용과 반복에 있는것이다.

물고기대풍이라는 기쁨과 환희의 정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 방불하게 그려지고 친근한 어휘와 조흥구의 반복쓰임으로 흥겹고 활기넘친것이다.

×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작창조기풍으로 로동당시대의 명가요 《바다만풍가》를 완성하여 내놓은 모란봉악단의 나날이 새롭고 혁신적인 면모는 사회주의 내 조국강산을 더욱 흥성이고 젊어지게 한다.

모란봉악단의 창작가들에겐 물고기대풍의 경이적인 사변이 《바다만풍가》의 흥취나는 형상과 민요풍의 건드러진 선율을 주었다면 가요의 참신하고 약동하는 정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안겨주고 있는가.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를 진하게 실어온 바다사나이들처럼 심장을 바쳐 일한다면, 하여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붙일수 있는 자기의 향기를 조국의 대지에 아낌없이 보태고 또 보탠다면 내 조국땅 어디서나 《만풍》의 어깨춤이 절로 날것이니.

《바다만풍가》의 바다향기가 《명작만풍가》의 서정의 향기로 끝없이 풍기게 하라!

이것이 사회주의바다향기의 뜻이고 《바다만풍가》의 우렁찬 울림이다.



## 행복

김 경 석

이 아침도 즐거이  
달음쳐 가닿은 일터  
언제나 푸르싱싱 꽃속에 열매속에  
나를 반겨맞아주는 남새온실호동들아

보논이 없어도 구슬땀 쏟고  
시키는이 없어도 정성을 쏟는 곳  
밤새 으쓱 키를 솟군 포기포기엔  
팔뚝같은 오이며 애기불 같은 도마도...  
부루 쭉갓 살오른 잎새들마저  
나를 향해 눈빛맞춤에 여념없네

꿈같이 찾아오신 우리 원수님  
내 가꾼 남새들도 보아주시며  
치하의 말씀 안겨주실 때  
끝없이 방울지던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잎잎마다 열매마다 아롱져있는 우리 온실

오늘도 어제처럼 줄줄이  
차들이 들어서겠지  
차판마다 넘치게 싣고 떠날 때  
갓스물쳐녀 이내 가슴  
집집의 식탁을 풍성하게 수놓은  
그 환희에 또다시 들먹이나니

아직은 한번도  
한가정밤상조차 차려보지 못한 내가  
이처럼 큰 기쁨에 휩싸일줄이야  
사회주의대가정 그 많은 식탁마다  
신선한 향기를 끝없이 더해주는  
말며느리 그 마음 그 진정 지닐줄이야

원수님 주고가신 정과 사랑이  
계절없이 펼치는 푸르른 남새바다  
계절을 모르는 인민의 웃음꽃을  
말없이 가꾸며 그 행복에 겨워사는  
아, 이보다 좋은 일터 나는 몰라!

## 탄부의 출근길

리 명 학

깊은 밤  
온 나라의 새날은 여기서 시작되는가  
하나 둘 켜지는 탄전마을의 불빛  
교대작업을 위해  
조용히 집뜨락 나서는 탄부들의 발걸음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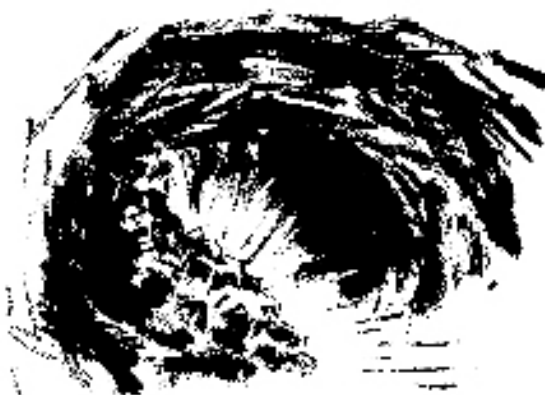
식구들이 깨여날새라  
조용히 밤길걷는 이들이  
량심의 높은 언덕으로 오르기 위해  
땅속 깊은 곳에 일터를 정한 사람들이  
탄부들이다

제일 어렵고 힘든 곳에서  
우리 원수님 받들고싶어  
한생 검은 탄을 캐내도  
백옥같은 량심 심장처럼 안고사는  
이들이 바로 탄부들이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라시며  
한생 탄전에 정을 두신  
위대한 대원수님들 못 잊어  
깊은 한밤에도 아득한 보금자리 뒤에 두고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

그들을 바래우며  
집집의 불빛은 하나 둘 꺼져가도  
멀어져가는 탄부들의 그 걸음이  
이제 새날이 오면  
온 나라에 기적의 동음으로 메아리치려니

아직은 깊은 밤...  
하늘가엔 못별이 총총한데  
한밤에 출근길 오른  
탄부들이 막장으로 내려간다  
허나 탄부들의 안전모에 불이 켜질 때  
래일에 더 밝게 떠오를 아침해가 보이리라



# 별을 찾는 사람

홍 남 수

영삼은 나무결상에 잔등을 기대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잠간이라도 눈을 붙이지 않으면 쓰러질 것만 같았다.

(조금만 자자. 30분만...)

그는 이내 잠들어버렸다.

...갱안은 온통 별천지였다. 어디서 생겨난 별들일까?

야, 야. 그는 눈앞에 펼쳐진 별세계에 연방 탄성을 울리었다. 그중 유별나게 큰 별 하나가 눈부시게 번쩍번쩍 빛나고있다. 덩석 집어들었다. 그런데 쥐고보니 별이 아니라 탄덩어리다.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 여전히 별들이 무수히 반짝거리고있다.

이때 어데선가 갑자기 획— 하고 센 바람이 불어왔다. 온 갱안을 짝 채웠던 별들은 홀연 사라져버렸다. 막돌무지속에서 별 하나가 반짝이고있을뿐이었다. 그는 그 별을 잡으려고 정신없이 막돌무지를 헤치었다....

똑똑똑.

영삼은 문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며 눈을 떴다. 꿈이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더없이 아쉬웠다.

찬바람을 안고 사무실로 들어온 사람은 관리국 담당부원이었다. 그는 서류가방에서 문건을 꺼내며 무뎠잖아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지배인동무, 난 오늘 올라가겠습니다. 자, 읽어보시오.》

영삼은 별스레 어깨가 빠근해오는감을 느끼며 몸

을 일으켜 문건을 받아쥐었다. 그리고는 서두르는 기색없이 천천히 읽어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객관의 의견도 그대로 침부했소.》

담당부원이 담배를 붙여물며 덧붙였다.

문건에는 탄광의 실태가 시시콜콜히 적혀있었다. 자료는 죄다 사실 그대로였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다. 누구든 그것을 보면 대뜸 기업소에 실망을 가질것은 뻔했다.

이윽고 영삼은 문건에서 눈길을 들었다.

《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요?》

담당부원은 재털이에 담배불을 비벼끄며 건승 물었다.

영삼은 곧바로 그를 마주보았다.

《우리 기업소가 전망성이 없다는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명실공히 확고한 전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실증될겁니다.》

담당부원의 입술에 뺨소가 언뜻 스치었다.

《지배인동무 미련한체 하오 아니면 진짜 그럴소? 탄광이 존재하자면 버력이 아니라 탄을 캐야 하는거요. 그게 무슨 탄광이요? 막돌채취장이지. 동무는 첫걸음부터 잘못 내짚었소. 이제라도 기업소를 살리는 길은 폐갱에서 손을 떼는겁니다. 누구는 동무보다 못해서 그 갱을 버렸겠소?》

영삼은 그의 말을 부정하듯 지긋게 머리를 가로저었다. 얼핏 그를 쳐다본 부원은 뭐가 언짢은지

량미간을 찌프리었다.

《듣자니 동무는 지금 복귀하는 갯에서 10년을 내다본다네 그걸 무엇으로 담보하오? 그건 동무 아버지가 20년전에 한 말이 아니요? 그 말에 미련을 가지고 사람들을 혹사시키지 마오.》

(모욕이다.)

영삼은 불끈 솟구치는 흥분을 억제하며 주먹을 꽉 틀어쥐었다. 그리고는 창문을 향해 돌아섰다. 담당부원과 더 마주서면 무슨 상서롭지 못한 말이 튀어나올것만 같았던것이다.

밖에서는 눈보라도 무엇인가 물으려는듯 맹렬히 울부짖으며 창유리를 들이때렸다.

《더 긴말이 필요없을것 같소. 관리국에 올라와 명백히 대답할 준비나 잘하는게 좋겠소.》

담당부원은 차갑게 말을 던지고나서 인츰 사무실에서 나가버렸다.

영삼은 느닷없이 긴숨을 내쉬며 어깨를 내리뜨렸다. 부단히 움직이던 사고가 갑자기 굳어진듯 머리속에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한식경이 지나 그는 사무실을 나와 갯으로 향했다. 차디찬 바람은 바늘로 되어 얼굴을 콧코 찔러댔다.

그는 마주불어오는 바람을 한가슴 받아안으며 앞으로 걸음을 내짚었다.

언제 갯입구를 통과하여 갯안에 들어섰는지도 의식 못했던 그는 얼마후 암벽앞에 멈춰섰다.

묵묵히 암벽을 쏘아보던 그는 착암기를 힘껏 틀어잡았다. 온몸의 힘을 착암기를 잡은 손에 지그시 모으며 영삼은 공기변을 열었다.

따따따. 기관총런발사격과 같은 착암기소리가 갯안을 진동했다. 착암기는 동체를 푸들푸들 떨었다. 그의 두눈은 암벽을 뚫고 들어가는 정대끝을 노려보고있었다. 귀전에서는 담당부원의 말소리가 지뽕게 울리고있었다.

《동무는 첫걸음부터 잘못 내짚었소.》

×

사람들은 영삼의 첫걸음에 무척 실망하였다.

지배인으로 임명된 후 첫 사업으로서 그는 20년전에 폐갯된 갯복구를 선포하였던것이다.

그가 도중소탄관리국산하 ×탄광 지배인으로 된것은 한해전이었다.

당년 32살에 지배인으로 임명된 그를 두고 사람들은 놀라와하였다. 그리고 우려하였다. 그가 폐지배인사업을 할수 있을가.

영삼이 제대되여올 당시 고향에는 먼 친척외에 혈육이가 아무도 없었다. 탄광에서 갯장을 하던 아버지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막장에서 순직하였고 어머니는 그가 군사복무를 할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

었다. 그래서 영삼은 제대될 때 사실 생각이 많았었다. 어디로 갈것인가.

다들 고향으로 간다고 기뻐했지만 영삼은 고향! 하면 가슴속 한구석이 아릿해왔다. 고향을 생각할 때면 먼저 떠오르던 다정하신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 하지만 고향은 끈질긴 애착과 향수로 그를 잡아끌었다. 아버지가 안계시는 고향이지만 아버지가 생전에 사랑하던 탄이 있는 곳이었던것이다.

그래서 영삼은 동무들이 저마다 자기의 고향으로 같이 가자고 잡아끌었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버지가 사랑하던 탄을 캐는데서 보람을 찾으리라 결심하고 고향 탄광으로 왔다.

그 탄광에서 굴진공이 되었고 사랑하는 처녀도 만나 결혼을 하였고 지배인으로까지 성장하였다.

사실 탄광은 몇년전부터 침체상태에 빠져있었다.

《영삼동무, 관리국에서는 동무에 대한 기대가 크오. 동무의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탄부였댔소. 아버지처럼만 일하면 얼마든지 탄광을 일으켜세울 수 있소. 아버지와 함께 갯을 건설하던 탄부들과 호흡을 잘 맞춰서 첫걸음을 잘 내짚소. 무슨 일이든 첫걸음을 어떻게 내짚는가가 중요하오.》

그가 지배인으로 임명되던 날 관리국당위원회 초급당비서가 한 말이였다.

탄광으로 돌아온 그는 인츰 일손을 잡지 못했다.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할것인가. 그전에는 모든것이 맑은 샘물속을 들여다보듯 명백하고 또 단순하게 생각되는가싶던 일들이 머리속에 삼거웃처럼 엉켜돌았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사색이 선명해졌다.

(탄광을 하루빨리 추켜세우자면 전망성있는 갯부터 건설해야 한다. 지금 있는 갯을 가지고는 몇년이 걸려도 앓은자리에서 일어설수 없다.)

어느날 그는 한곳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드디어 어느 한 갯입구에 이른 그는 못박힌듯 서서 움직일줄 몰랐다. 20년전에 폐쇄된 갯, 아버지가 건설하던 갯이었다. 그앞에 서있느라니 영삼의 눈시울이 따겨워져났다.

...그의 아버지 김준호는 탄광이 발족된 때부터 생을 마치는 마지막까지 갯을 떠나지 않은 진짜배기탄부였다.

20년전 그 갯을 건설할 때만도 일이 순조롭지 않았다고 한다. 봉락이 자주 생기고 샘줄기까지 흘러들어와 애를 먹였다.

한번은 큰 물통이 터져 애써 건설해놓은 갯을 한순간에 쓸어버렸다. 갯건설은 중단되고 파피된 갯을 다시 복구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런데 힘들게 복구한 갯이 며칠후에 또다시 봉락되였다.

사람들은 아예 맥을 놓고 주저앉아버렸다.

《우리가 여태 이런 일을 한두번 겪었소? 자, 일 어들 나오.》

사람들은 준호갱장의 말을 덩덤한 표정으로 받아들였다.

《일어들 나오. 이대로 주저앉을수 없소. 동무들은 우리 장군님께서 어떻게 고난의 행군을 헤쳐나가고계시는지 모르오? 일어서기요. 일어나서 우리 장군님을 따라서야 하오.》

준호갱장은 절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의 팔을 잡아일으켰다. 사람들은 다시 갱복구에 달라붙었다. 그런데 갱건설을 그만두라는 지시가 관리국에서 떨어졌다.

지배인이 먼저 손들고 나앉은것을 알게 된 준호갱장은 그를 찾아갔다.

《지배인동무, 이제 300미터만 들어가면 탄발이 있소. 지배인동무도 도면에서 그걸 보지 않았소. 내 올해중에 갱건설을 무조건 끝내겠소. 날 믿지 못하겠소?》

《갱장동무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뜰이나 어려운 때에 그 갱을 붙들고있다가는 기업소가 우왕든 소가 될것 같아 그러오. 갱장동무도 미련을 버리오.》

《지배인동무,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소. 지금껏 어려운 속에서도 그만큼 갱을 건설했는데 이제 300미터를 전진 못하겠소?》

《갱장동문 여적 본 쓴맛이 아직 적소? 정 미련을 버리지 못하겠으면 어디 해보오. 그러나 후날 일은 동무가 책임지오.》

《책임지겠수다.》

그렇게 되어 건설은 중지되지 않았지만 준호갱장이 급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갱은 인차 폐갱되어버렸다...

영삼은 갱안으로 걸음을 옮기었다.

두간두간 무너진 갱벽이 눈에 띄이었다. 처음에는 그래도 형체가 보존되어있는듯 했으나 안으로 점점 들어갈수록 발을 옮겨놓기조차 힘들었다. 어떤 곳에서는 바위짚으로 벌벌 기여들어갔다. 그러던 그는 갱이 통채로 붕락된 지점에 이르러 더 들어갈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땀이 습배이고 땀이 깃들어있는 갱이 그 지경으로 된것을 보자 가슴이 무딘 칼로 베이듯 아파났다.

(아버지, 전 지금 아버지네가 건설하던 갱에 들어와있습니다. 제 귀전에는 아버지네가 울리던 착암기소리가 쟁쟁히 들려옵니다. 아버지, 전 이 갱을 다시 건설할 결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네들이 바친 그 모든것을 헛되이 하지 않고 기업소를 일으켜세우겠습니다.)...

그때로부터 한해가 흘러갔다.

지금껏 침묵을 지키고있던 관리국에서는 얼마전 사람을 내려보내어 기업소의 실태를 료해해가지고

올라올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영삼은 지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는 착암기를 더 힘껏 잡아쥐었다.

착암기소리는 여전히 갱안을 진동했다.

영삼의 뇌리에서는 살아있는듯 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리고있었다.

《영삼아, 넌 첫걸음을 옳게 내짚었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된다. 힘을 내거라.》

잠시후 갱을 나선 영삼의 걸음은 초급당위원회 사무실로 향하고있었다.

×

영삼의 사무실로 갱장 엄진철이 찾아들어왔다.

엄진철은 영삼이와 한부대에서 군사복무를 함께 한 전우였다.

《동무따라 강남도 간다는데 이 엄진철인 자넨 따라 탄광에 가겠네.》

도소재지에 부모가 있는 진철은 제대의 걸음을 영삼이와 함께 탄광에 자원하는것으로 떼었다.

영삼이와 함께 탄광의 혁신자, 쌍기둥이라 불리우던 굴진공시절부터 소대장을 거쳐 갱장이 된 오늘날까지 그는 언제나 영삼의 결심과 행동에 보조를 맞추어왔다. 지배인이 된 영삼이가 폐갱복구를 결심할 때에도 진철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자네가 여기서 탄광의 10년전망 아니, 수십년전망을 본다면 그대로 내밀게. 내가 뒤에서 힘껏 받들어줄테니.》

그러던 그도 이제는 어지간히 지친 기색이다.

털썩 의자에 엉치를 붙이고난 진철은 웬 종이 묶음을 꺼내놓았다.

《자네 이 자료를 보았나?》

영삼이 눈결에 바라보니 탄광의 20년전 탐사자료였다.

사실 진철은 관리국담당부원이 왔다간 후 속수무책으로 있을수 없어 어느날 기술과에 갔었다. 자료를 뒤적거리던 그는 눈이 번쩍 트이는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지금 굴진하는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려 50미터정도 굴진하면 착탄이 될수 있는 탄발이 있었던것이다. 아쉬운것이 있다면 탄발이 크지 않은것이였다.

지배인도 이 탄발을 알고있었겠는데 지금껏 일언반구 없었던것이 이상스러웠다. 탄발이 눈에 차지 않아 그랬을가? 그렇다 해도 지금 형편에서 큰 떡 작은 떡 가릴 형편이 못되지 않은가...

진철이가 탄발이야기를 꺼내자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것부터 착탄시키자고 욕속했다. 하긴 폐갱복구를 시작해서부터 오늘날까지도 탄빛갈을 보지 못했으니 십분 그럴만도 했다. 실상 진철이 자신부

터가 탄빛갈을 보고싶어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탄부들에게는 탄이 힘이고 기쁨이고 생활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 힘을 다하여 일하다가도 탄만 나타나면 그때의 환희로운 감정이란...

《안되네.》

진철의 이야기를 듣고난 영삼은 매몰스럽다 할 정도로 단마디로 잡아땀다.

《?!》

잠시 어리둥해 서있던 진철은 다시 영삼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탄을 못 견디게 기다리고있어.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일군을 뭐라 해야겠나?》

영삼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한동안의 침묵이 장내를 숨가쁘게 만들었다. 침묵을 깨치며 영삼은 낮은 어조로 당부하듯 말하였다.

《갱장, 탈선하지 말게. 눈앞의 자그마한것에 현혹되지 말라구. 착탄이 바쁘게 아니야.》

못마땅한 눈길로 영삼을 지켜보던 진철은 머리를 천천히 젖더니 드디어 힘들게 그러나 단호하게 다시 말했다.

《자네 심정은 알만 하네. 하지만... 이렇게 꼬집어 말한다고 나쁘게 생각말게. 자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자고 이 폐갱복구부터 시작한건가?》

영삼은 흠칫 몸을 떨었다. 하지만 침착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그 생각도 없지 않네. 하지만 그 명예회복도 탄광의 리익 다음이라는걸 자네만은 알아줘야겠네.》

《나는 이해한다치고 객관의 인식과 판단은?!...》

진철은 물인정하다 할만치 팽팽하게 또 물었다. 영삼은 진철에게서 눈길을 돌려버렸다. 그리고는 침묵만 지켰다.

진철은 영삼의 그 침묵에 왜서인지 마음이 서슴어졌다. 하지만 인차 마음을 도슬러먹었다.

(아니다. 영삼이 더 큰 탈선을 하기 전에 그의 마음을 돌려세워야 한다.)

《영삼이, 날 나빠 생각말게. 난 착탄부터 해야겠네. 사람들은 탄을 기다리네. 랑개도 너무 당기면 끊기는 법이야. 일군이라면 융통성도 있어야지.》

야박스런 진철의 말에 영삼이 껍 돌아섰다.

《뭐라구?!...》

영삼의 마음속에서 와르르— 무엇인가 허물어져 내렸다.

삿갓봉을 넘은 바람이 창밖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었다. 무한한 공간속에서 눈송이는 마구 바람에 흩날려 태질하고있었다.

×

그날 늦어 집으로 들어오던 영삼은 문밖에 무릎뚫어섰다.

방안에서 도란도란 안해와 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던것이다.

《엄마, 아버지는 오늘 밤에도 늦어지나요?》

《글쎄, 아버지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렴.》

《아니야. 엄마, 나 오늘 배운 노래 아버지가 들어오면 불러줄래요.》

《무슨 노래를 배웠니? 엄마앞에서 한번 불러보렴. 노래를 잘 불러야 아버지도 좋아하고 유치원에 가서도 빨간 별을 탄단다.》

이윽고 귀여운 딸애의 또랑또랑한 노래소리가 울려나왔다.

새콤달달 콩산유 맛있는 콩산유

숨도숨도 안 쉬고 달게 먹어요

너랑나랑 뽀뽀뽀뽀 고와진대요

영삼의 얼굴에 한줄기 웃음이 떠올랐다. 역사가정이란 인간에게 필수적인 환경이다. 가정에서 풍겨오는 그 향취야말로 인간을 따뜻하고 고결하게 완성시켜가는 윤활유나 같다. 영삼은 이 가정적분위기가말로 자기의 곁에서 떠나지 않고 흘러왔지만 자신이 감감 잊고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랬을까? 눈앞의 현실을 지나치게 무겁고 침침하게 보고있은것은 아닐까? 그때, 무거운것은 사실이다. 허나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타개해나갈 수 있는 일이다.

《엄마, 나 재미나는 옛말 해달라요.》

딸애의 목소리가 또다시 울린다.

《이따가 아버지가 들어오면 해달래렴. 아버지가 더 잘해주지 않니.》

《싫어, 싫어, 오늘은 엄마가 해달라요. 빨리 해달라요.》

딸애는 끈덕지게 조른다.

《원 애두. 그래그래, 해주마.》

안해의 정겨운 목소리를 들으며 영삼은 토방에 아예 주저앉았다.

《옛날 먼 남쪽지방에 봄이면 사과, 배, 복숭아꽃이 활짝 피어나고 해마다 풍년이 드는 살기 좋은 마을이 있었단다. 그런데 어느해인가 왕가물이 들어 과일나무도 곡식도 풀도 다 말라죽기 시작했단다. 마을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아 우물을 파서 물을 찾자고 토론했다. 마을사람들이 모두 떨쳐나 우물을 팠지만 아무리 땅속을 깊이 파고 또 파도 물은 나오지 않았어.》

힘이 지친 마을사람들은 우물을 더 파지 못하고



할수없이 물을 찾아 하나, 둘 마을을 떠나갔단다.

마을엔 옥돌이라는 총각만 남았대.

옥돌이는 혼자서라도 물을 찾아낼 결심을 하고 계속 우물을 판단다.

끝내 옥돌이는 샘물을 찾아냈단다. 퐁퐁 솟아오르는 맑은 샘물은 죽어가던 과일나무와 곡식을 살리고 마을을 떠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단다. 그때부터 마을사람들은 그 샘물을 옥돌샘이라고 불렀단다.》

《엄마, 아버지도 보물을 판다구 했어.》

《애두 참, 보물을 팔게 뭐니? 보물을 찾고있지. 아버지 지금 우리 현경이한테 줄 보물을 찾고있단다.》

《야, 아버지가 보물을 빨리 찾았으면...》

영삼은 고개를 젖히고 우중충한 하늘 공간을 짙게 번들 번들 쳐다보았다. 이밤에는 별들이 더 많이 생겼듯싶었다.

문득 꿈에서 본 별들이 생각났다. 그 별들은 지금 땅속 어딘가에 묻혀있을것이다. 어데 있을까? 옥돌샘처럼 찾을수 있다면...

안해와 딸 현경이가 나누는 보물찾는 이야기가 영삼에게 세월의 갈피속에 숨겨져있는 아름다운 추억의 한가닥을 불러왔다.

《...내가 어렸을적에 어머니는 아버지가 땅속에서 보물을 찾고있다고 했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랄 때 난 크면 아버지처럼 나도 보물찾는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했소. 그렇소. 난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이 나라를 부강케 할 땅속보물을 캐고 또 캐낼테요.》

이 말은 영삼이가 제대를 앞두고 처녀정치지도원-안해에게 했던 말이였다.

영삼이와 안해 정희는 한고향태생이였다.

정희는 중학교시절에 이미 상급생이며 학교축구 선수로 활약하던 영삼을 알고있었다.

그후 군사복무를 할 때 정희는 인민군신문에서 그를 보게 되었다.

그 병사를 정희는 전투훈련도중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부대가 휴식을 할 때 산골짜기의 샘물터로 내려가던 처녀는 마주올라오는 한 병사와 어기게 되었다. 처녀는 그가 누구인지 대뜸 알아보았다. 그도 처녀가 낯익었는지 찬찬히 마주보다가 먼저 말을 건넸다.

《중위동지는 고향이 직동이 아닙니까?》

처녀는 상그레 미소를 지었다.

《예. 우리는 한고향태생입니다. 전 동지를 인민군신문에서 본적이 있는것 같어요.》

처녀는 그가 제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마지막훈련에 참가한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그가 한결 돋보였다. 그들은 서로 통성도 하였다.

《제대되면 무슨 일을 할 생각입니까?》

그 청년과 헤어질 때 처녀는 물었다.

청년은 단마디로 대답했다.

《전 이미 고향으로 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날 영삼은 한고향내기라는 친근감에서였는지 아니면 날씬한 키에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듯한 그윽한 눈매를 가진 처녀에 대한 매혹에서였는지 어쨌든 자기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속마음을 터놓았다.

《저의 아버지는 탄부였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고향에 안 계시지만 전 그곳으로 가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해전에 저에게 편지를 보낸 일이 있습니다.

자다가 깨어나도 줄줄 읽을수 있을 정도로 그 구절이 생생한데 아버지는 이렇게 썼었습니다.

〈...내 아들 영삼아, 어버이수령님께서 너무도 뜻밖에 서거하시고보니 이 아버지 뻘처럼 회한으로 땅을 치게 되누나. 자신께서 10년만 젊어도 막장에 들어가 탄부들과 함께 탄을 캐겠다고 하시던 수령님의 심늬와 로고가 끝내 유혼으로 남았구나 하는 생각에 말이다. 우리 탄부들이 구실을 제대로 했더라면, 우리 탄부들이 탄을 짹짹 캐냈더라면 수령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쓰셨겠니. 생각할수록 가슴이 터진다.

그래서 우리 탄부들은 맹세했다. 질 좋은 탄밭을 더 많이 마련해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혼관철을 떠메고나가는 우리 장군님의 집을 덜어드리자고 말이다. 우린 지금 한창 새 갯을 건설하고있는중이다.

300메터만 굴진하면 빛을 보게 될거다.

영삼아, 네가 제대되어 돌아올 때쯤 되면 새 갯에서 질 좋은 석탄이 팡팡 쏟아질게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갯건설을 채 끝내지 못하고 그만... 전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은 시간은 길지 않았으나 정희는 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후리후리한 키꼴에 박아세운듯 한 우뚝한 코마루며 배심만만한 정기를 뿜는듯 한 크지 않은 눈, 외모도 괜찮았지만 그보다는 그의 정신세계가 무척 돋보였던것이다.

그런 연고로 하여 후날 고향에 제대되어온 정희는 굴진공이었던 영삼의 사랑의 고백을 선뜻 받아들였던것이다....

고즈넉한 밤의 정적속에 앉아 추억을 되새기느라니 영삼은 온몸에 기운이 솟아오르는것 같았다.

더없이 따뜻해지는 마음속에 영삼은 딸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그래, 현경아. 아버지가 이제 꼭 보물을 찾아주마.)

...갱안에서 별 하나가 반짝반짝 빛났다. 얼마전에 잡았던 그 큰 별이었다. 영삼은 그 별을 놓칠가봐 정정정정 달려갔다. 순간 그는 한자리에 굳어졌다. 눈앞에 온통 별천지였다. 아, 어디서 이 별들이 생겨났을까?... 아, 아, 연방 탄성을 올리던 그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사방을 두릿두릿 살피었다.

어데선가 획— 하고 센 바람이 불어오며 별의 세계는 홀연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눈에 보이는것은 막돌무지뿐이었다. 막돌무지속에서 별 하나가 반짝거렸다. 그는 손끝에서 피가 흐르는것도 아랑곳 않고 돌무지를 헤치었다.

손끝이 몹시 아파났다....

영삼은 신음소리를 내고야말았다.

옆에 지켜앉아있던 안해 정희가 그를 흔들어깨었다.

《현경이 아버지, 몹시 아파요?》

영삼의 눈가풀이 힘들게 들리었다. 그는 구부러있던 다리를 가까스로 펴며 입술을 놀리었다.

《팬찮소.》

영삼이 종내 신경통으로 쓰러지고만것이다. 다리를 옮겨놓을수가 없을 정도의 심한 동통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에게 파로로 인한 몸살까지 겹쳐 심한 고열까지 났다.

병원에 입원해서야 열을 떨구고난 영삼은 흠뻑 땀에 젖은채로 잠에서 깨어나는 길이었다.

영삼을 지켜보던 정희는 노여운 어조로 남편을 탓했다.

《당신은 제가 그렇게도 못미더워요? 어쩌서 병을 숨겨요?》

영삼은 빙그레 웃으며 안해의 손을 잡아쥐었다.

《정치지도원동지,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숨기지 않고 보고하겠습니다. 신경질은 몸에 해롭습니다.》

그는 군사복무시절 안해의 군사칭호가 자기보다 높았던것으로 하여 종종 악의없이 이렇게 롱말을 하곤 했었다. 정희도 남편의 롱말을 스스럼없이 받아주곤 하였지만 그날은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정희는 남편의 손에서 제 손을 뺄 잡아뺏았다.

《제 말을 흘려듣지 마세요. 왜 건강을 홀시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야 첫걸음을 내짚지 않았나요. 앞으로 할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아요.》

영삼은 안해의 손을 다시 잡아쥐었다.

《받겠소. 갱전설만 끝내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려 하는 안해를 손짓으로 제지시키며 영삼은 계속했다.

《정희, 우리가 군복을 입고있을 때 어떻게 살았

소. 조국에 한몸까지도 기꺼이 바칠 각오를 가지고 살지 않았겠소. 난 지금도 그렇게 살고싶소. 정희도 관리국산하의 다른 탄광들은 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있다는걸 알지 않소. 난 내 이 두다리가 기업을 일으켜세우는 기둥이 될수만 있다면 기꺼이 바치겠소.》

《!》

정희는 다른 말을 할수가 없었다. 다만 간절한 표정으로 자기를 주시하는 영삼의 눈빛에서 어느 한순간도 꺼지지 않고 쉬임없이 솟구치려는 억센 힘과 정열을 느낄뿐이었다.

끝내 영삼은 열흘도 채우지 못하고 병원에서 퇴원하여 탄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탄광에서는 뜻밖의 일이 영삼을 기다리고있었다.

영삼이가 탄광을 뜨고 없는 사이에 엄진철갱장이 굴진방향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착탄을 하고 한창 탄을 캐고있다는것이였다.

영삼이 기업소마당에 들어설 때 회계원처녀가 그를 반기며 그 말부터 꺼냈다.

《야, 지배인동지! 건강이 어떻습니까? 경사에 경사라더니 탄이 나오니까 지배인동지도 오시는군요.》

집 떠났던 아버지를 반기듯 하는 발랄한 처녀에게는 미안했지만 영삼은 덜컥스레 물었다.

《탄이라니?》

《아이참, 진철갱장동지가 오른쪽으로 굴진방향 잡아가지고 착탄한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다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처녀는 영삼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도 못한채 종다리 삼씨까듯 조잘거렸다.

영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사무실로 향했다.

이윽고 영삼의 앞에 진철이가 나타났다.

영삼의 눈치를 보는것이 험등했다. 어쨌든 단위 책임자와 토론없이 굴진방향을 돌린것이 썩 잘된 일 같지 않아 진철은 변명하듯 말했다.

《지배인동무, 탄량이 팬찮습니다. 사람들도 사기가 나서 좋아합니다.》

영삼은 획— 고개를 돌리었다.

《갱장동문 그게 그렇게 바쁘오? 우린 그런 착탄이 급선무가 아니라 탄광의 전망부터 열어야 하오, 전망부터. 경제적실리를 따져봐도 그렇지 않은가 말이요.》

《지배인동무, 한쪽으로 본선굴진을 계속 내밀면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달은 걱정없이 탄을 캘 겁니다.》

《한달?》

영삼은 후— 하고 긴숨을 내쉬었다.

《난 진철동무가 그렇게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

고있을줄은 몰랐구만. 두고보지요.》

영삼은 한쪽다리를 절뚝절뚝 절며 방을 나가버렸다.

갑자기 진철은 온몸에 엄습해오는 공허감을 느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볼 생각을 하지 않는 지배인이 리해되지 않았다. 관리국에서도 기업을 놓고 논의가 분분하다는것을 알고있을텐데... 솔직히 말해서 영삼이가 지배인사업을 할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내놓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런데 그는...

하지만 영삼에 대한 진철의 이 동정은 한주일만에 바닥이 드러난 탄발과 함께 여지없이 깨어져나갔다.

허청허청 갱을 나서 지배인사무실로 향한 진철은 영삼이와 마주서자 대바람 어성을 높였다.

《리영삼! 자넨 알고있었지? 내가 주장했던 그 탄발이 며칠이면 바닥이 드러날 량이었다는걸.》

영삼은 잠자코 머리를 끄덕였다.

탕- 진철은 책상을 내리쳤다.

《자넨 날 망신시켰어. 나를.》

《갱장동무!》

영삼은 엄엄한 어조로 불렀다.

울분으로 경우와 리성을 잃었던 진철은 무춤 굳어졌다. 영삼은 다시 불렀다.

《갱장동무!》

진철은 느꼈다. 영삼은 지금 옛지기가 아니라 직속상관으로 그를 찾고있는것이다. 영삼은 그루를 박으며 침착하게 말을 뱉었다. 목소리는 낮았다. 그러나 그 어조에서는 위압감이 풍기고있었다.

《동무 하나의 체면이 그렇게 중하오?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말이요.

그렇소. 난 그걸 알고있었소. 하지만 동무스스로가 그걸 깨닫게 되리라는것 또한 알고있었소.》

진철은 실망으로 오는 허탈로 하여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두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윽고 영삼은 그에게 다가와 옆에 앉았다. 그리고 담배 한대를 꺼내여 그에게 내밀었다.

《진철이, 동문 제대될 때 동무따라 강남간다면서 나와 함께 이 탄광에 왔지. 그래 동무가 순전히 친구가 좋아서 이 어렵고 힘든 탄광에 왔나? 아니, 도급기관의 일꾼으로 사업하던 탄부출신의 아버지의 지난날을 존중하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지. 그래, 우린 아버지들처럼 살려는 공통된 지향을 안고왔네. 우리 아버지들은 서둘러 공명을 찾지 않았지. 해빛을 뒤에 두고 땅속으로 깊이깊이 들어가면서도 자신의 공명이나 명예보다도 이 나라를 튼튼케 할 보물고를 쌓을 생각만 했지. 우리 아버지들이 쌓은 그 보물을 저 하늘가에 휘뿌리면 넓고 넓은 은하세계를 이루고도 남을게요. 진철이, 우리

지금은 힘들더라도 탄광의 전망을 내다보자구. 자그마한 눈앞의것이 아니라 먼먼 태일을 맡일세.》

여느때없는 격정에 잠긴 영삼의 말은 진철의 가슴벽을 팡팡 두드려댔다.

그 걱정이 옮겨갔는지 진철의 목에서 울대뼈가 꼰꼰- 오르내렸다.

영삼은 진철의 어깨를 꼭 잡았다놓았다.

《진철이, 조금만 견디여내자구. 300미터만 끝장내면 탄은 꼭 나지네.》

×

드디어 300미터의 굴진이 끝났다. 정확히 말하면 330미터였다.

허나 탄은 빛갈도 보이지 않았다. (탄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영삼은 누렇게 퇴색된 20년전의 탐사도면에 시선을 못박고있었다.

눈앞으로는 그동안 생동굴진을 하면서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생동굴진도 폐갱복구 못지 않게 어렵고 힘들었다. 다섯차례의 봉락이 있었고 물통이 터져 피해를 입었다.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굴진을 끝냈지만... 가만?... 내가 왜 그 생각을 미처 못했을까?...

영삼은 번쩍 고개를 들었다. 20년전의 도면이 잘못되었을수도 있다는 생각, 굴진방향각도에 편차가 생겨 탄발에 정확히 가닿지 못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속을 스친것이다. 땅속에서는 방향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왕청같은 방향으로 가기가 침경 쉽다. 땅속에서는 하나의 점, 선, 사립점들이 로케트의 자리길처럼 정확해야 했다. 두번, 세번 확인해보았지만 굴진방향각도는 편차가 없었다. 틀림없이 도면을 작성할 때 탄발위치가 잘못된것이 분명했다.

그것을 더욱 확신하자 며칠동안 전전공공해은 자신이 한심하게 생각되었다. 가만... 280미터구간을 지날 때 왼쪽 갱벽에 나타났던 작은 탄줄기가 피뿔 떠올랐다. 그때는 버럭짖에 끼운 탄으로만 생각하고 무시히 스쳐보냈었다.

진철이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단정했다. 오직 300미터를 돌파해야 탄발이 있다고들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탄발은 280미터구간에서 이미 지나왔다 하고 생각하니 왁작 흥분되었다.

벌떡 일어서서 방안을 왔다갔다하던 영삼은 진철이가 마침 방안으로 들어오자 무작정 그의 손을 잡아 책상으로 이끌어갔다.

《갱장동무, 이 도면을 좀 보오.》

영삼은 손가락으로 도면의 한곳을 콕 찍었다.

《보오. 도면에는 탄발이 여기에 있소. 아니요. (그는 도면의 다른 한곳을 찍었다.) 탄발은 바로 여기 280미터구간에 있소. 동무도 280미터구간에 나타났던 탄줄기를 보지 않았소. 이제는 모든것이 명백해졌소.》

설마하며 들여다보던 진철의 눈에 확— 불꽃이 당기는가싶었다.

《정말 그럴가요? 지배인동무.》

《그렇지 않구. 내 확신하오.》

두손을 썩썩 비비며 서성거리던 영삼은 다시 자기 자리에 가앉았다.

《내 생각에는 30미터안팎에 착탄될것 같소.》

《그럼 굴진방향을 그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진철은 힘있게 대답했다.

《참, 깜박 잊었됐군. 갱장동무에게 보여줄게 또 하나 있소.》

영삼은 사무철함에서 종이말이를 꺼내어 책상위에 퍼놓았다. 탄광산림조성도였다.

《올봄부터 해마다 1만그루씩 주변산들에 나무를 심자고 하오. 산림감독원과도 토론이 있었소.》

올해 심을 나무모는 내가 해결하겠소. 래일 떠나겠소.》

《아니, 그럼 착탄은요?》

《아, 그야 갱장동무가 있지 않소.》

사무실을 나와 걸어가는 진철의 귀가에 나지막하게 흥얼거리는 영삼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다음날 영삼은 나무모를 실으러 이웃군으로 떠나갔다.

진철은 280미터지점에서 굴진방향을 돌리었다. 이들이 지나갔다.

영삼의 판단이 옳았다는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확인되었다. 암질이 물러지며 이따금 탄덩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것이다. 만약 탄발이 나타나면 지배인은 아니, 우리는 승리자로 될것이다!

그무렵 영삼은 자동차를 타고 이름모를 산고개길을 오르고있었다. 적재함에는 이빨나무모가 한가득 실려있었다.

영삼은 오늘처럼 운행길이 즐거워본적이 없은것 같았다.

《운전사동무, 고개마루에 올라가 눈을 좀 붙이오. 밤도와 돌아서느라 피곤하겠는데...》

《괜찮습니다. 지배인동지, 언제부터 하나 묻고 싶었는데 대답해주겠습니까?》

운전사는 가속답판을 지그시 밟으며 물었다.

《제가 보기엔 지배인동지가 글을 쓰면 크게 성공할것 같은데 어째서 그 분야로 뻗지 않았습니까?》

《...》

영삼은 좌석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을 엇갈아졌다. 한때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지. 그는 썩— 웃었다. 하지만 글속의 주인공들인 우리 시대

의 참인간들과 호흡을 함께 하는건 더욱 좋지 않은가.

그는 여전히 팔을 엇결은채 입을 열었다.

《어릴 때 난 탄을 잘 몰랐겠소. 그래서 탄덩이가 눈에 보이면 옷을 더럽힐까 피해다녔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소. 내가 탄을 알게 된것은 아버지가 막장에서 순직한 후였지. 보물을 찾는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이야기도 그때에야 다르게 생각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도 변심없이 탄으로 당을 받들었소. 그래서 그들의 발자취는 지워지지 않고 뚜렷이 남아있소. 인생이 빛이 나는것은 어떤 발자취를 남기는가에 달려있지. 안 그렇소?》

고르로운 자동차발동소리만이 울리고있었다.

그들은 저녁무렵에야 기업소에 도착했다. 하루해가 사각봉꼭대기에 걸려 설된 마지막빛을 뿌리고있었다.

이때 진철이가 달려와 차에서 내리는 영삼의 팔을 무작정 잡아끌었다.

《지배인동무, 빨리 들어갑시다.》

《왜 그러오?》

《글쎄, 빨리 들어갑시다.》

영삼은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이 다닥칠것 같은 예감으로 은연중 긴장해졌다.

진철은 책상위에 탄덩이를 쿵 올려놓았다.

《지배인동무, 탄발을 찾았습니다. 이게 그 탄입니다.》

《어— 엉?!...》

영삼은 걸상을 끌어당기며 책상에 마주앉았다.

진철은 탄덩이를 집어든 영삼의 한쪽입귀가 움썩 떨어지니 두눈에 눈물이 핑— 고여오르는것을 보았다.

진철은 그를 혼자 있게 하고싶어 조용히 방을 나와 담배를 붙여물었다. 잠시후 창문으로 사무실안을 들여다보니 영삼은 여전히 굳어진듯 그 자리에 못박혀있었다.

진철은 담배연기를 후— 내뿜었다.

(지배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아버지를 생각할까? 아니면 그동안의 일들을?...)

드디어 검은 비단같은 하늘에 별들이 하나, 둘... 무수히 반짝이기 시작했다.

집뜰안으로 들어서던 영삼은 방안에서 새어나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엄마, 아버지는 아직 보물을 찾지 못했나요?》

《보물을 찾았다단. 얼마나 많이 찾았다구.》

《엄마, 보물을 많이 찾은 아버지한테 내가 탄 빨간 별을 주자요.》

《아버지가 찾은 보물이 다 빨간 별이란단.》

《...》

# 신평금강의 노래

박 응 전

## 인민들이 좋아합니다

산이 막혀 길이 막혀  
수수천년 숨어있던 절경  
인민의 명승지로 솟아난  
내 고향 신평금강

평양—원산 중간바로  
나라의 한복판에  
혜성처럼 솟아난 새 명승지라고  
사람들 구름처럼 밀려옵니다

아버이장군님  
고난을 이겨온 우리 인민들  
천만복 누리라고  
이름난 명승지들뿐이겠습니까

적막강산에 묻혀있던 도화동  
판문굴 금수동굴  
산악의 절벽문 열어주어 태어난  
은정넙친 명승지

절색의 시골처녀처럼  
청신하고 황홀한 계곡미  
8대계곡 일만경치 즐기는  
인민들의 웃음소리 넘쳐납니다

참으로 신평금강은  
우리 장군님 원수님과 함께  
인민을 위해 따다주고싶어하시던  
또 하나의 별천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향토의 시인  
복받은 고향사람들의  
끝없는 감사의 마음 담아  
삼가 아뢰이고 싶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 길 다 리

신선길이 열렸구나  
징검다리엔 무지개다리  
힘한 절벽가엔 구름다리  
길인가 하면 다리요  
다리가 하면 길이라

전에 여기 한번 오르자면  
신발을 벗어 들어야 했거늘  
벗어든채 런속 건드던 강길  
폭포구경 장마철이 장판이여도  
사나운 물사태가 막아서던 곳

강을 건너서만 다리라  
굽이굽이 시내물  
한쪽으로 거슬러올라  
오불꼬불 산골길  
주름잡아 놓은 길다리

우리 장군님 먼 전선길 가시면서도  
인민들이 좋아라 다 찾아들게  
길부터 잘 닦아주라고  
얼마나 신신당부하시였던가

그 사랑 주단처럼 펼쳐가리라  
찬물속에도 발 잠그고  
암반을 까내고 기초를 다지며  
억척으로 세운 다리기둥들  
콩자갈도 쌀알처럼 일어  
티 한점 없이 다진 포장길

장군님 따르는 마음  
진주보석같은  
우리 돌격대원들 개척한 길  
오늘도 그들이 발 적시고  
길다리 받들어주는것만 같아라



## 옥류담

하늘의 선녀들 내려와  
칠칠 검은머리 감고  
잔치놀이 즐겼다는  
옥류동

명주필같은 잔물결이  
미끄럼바위 타고내려  
열두담을 가득가득 채워주는  
옥류담

오늘은 공사를 마치고  
표창수여식에 참가할  
돌격대처녀들 달려와  
탐스런 머리태 감소

선녀들 없이야  
하늘나라 전설없듯이  
명승지를 꾸린 처녀들 없이야  
어이 고운 노래 올리라

일 잘하는 처녀들 더 예뻐지라고  
수정같이 맑은 물 찰랑찰랑  
정이 넘치게 담아주는  
청산의 벽계수야

명승 찾는 사람들  
너처럼 깨끗함만 안겨줄진저  
조국산천을 가꾸는 애국의 마음  
너처럼 첩첩 넘치리로다

## 층암절벽에

옥류계곡 진주계곡에 오르면  
맑은 시내 두르고  
숫아오른 아찔한 벼랑산에  
층층이 단을 이룬 층암절벽

그 다락마다 우거진 풍치림  
츠렁츠렁 내리드리운  
머루 다래 오미자열매넝쿨  
어쩌면 풍만한 시줄 같아라

내 어이 그 시줄 이어쓰지 않으랴  
바위벼랑에도 뿌리내린  
애국의 그 의지를 담아  
내 소원의 시를 쓰나니

층암절벽에 정을 쏘아 새기듯  
내 심혼을 다 바쳐  
경애하는 원수님께  
명산의 현시를 써드리고싶어라

## 노은폭포

폭포수 없이야 무슨 명산이라  
폭포소리 없이야 무슨 산울림이라  
하늘깃에서 은빛 뿌리며 내리는  
백열한메터의 노은폭포

그 어떤 왕가물에도  
노줄처럼 끊어진적 없고  
세월의 풍파속에서도  
하늘샘 줄기차게 이어온 폭포

폭포구경 하도 좋아  
사람들 제일 많이 찾아오는 곳  
행복의 바다 노은포골  
신평금강경치의 최절정이어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세상  
인민들 천만복 누리라고  
태양의 빛발 비껴담고 내리는  
축복의 하늘폭포이여라

## 기다리는 신평금강

언제면 오시려나  
그리운 장군님  
그처럼 애써 찾아 꾸려주신  
내 고향 신평금강은  
날마다 손꼽아 기다리는데

언제면 오시려나  
폭포수들은 광광 대북소리  
웅달샘들은 풍풍 소북소리  
온갖 고운 새 다 날아들고

수림도 기암들도 몸단장 꽃단장인데

오시리라 우리 장군님  
고난의 세월에도 인민을 위하여  
함경금강 칠보산 황해금강 장수산도  
다 찾아주시고 꾸려주셨는데  
우리 신평금강도 어이 오시지 않으랴

도화동초엽엔 휴식터가 있어도  
언제 한번 쉬고 가신적 없이  
초강도강행군 이어가신 장군님  
이 명산의 향기속에 한번만이라도  
쉬고 가시었으면 얼마나 좋았으랴

아니아니 꼭 오신다고  
꿈결에도 깨어나 서두는 마음  
금수산태양궁전 떠나서 오신다고  
기암기봉들은 키돋움하고  
산새들도 훨훨 마중날아오르는데

언제든 오시리라  
장군님과 꼭같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들이 정말 좋아하는가  
아버이 그 사랑 다 안고오시리라

아, 그러면 보여드리라  
우리 장군님 선군천만리길에서  
심산속에 묻혀있던 절경도 다 찾아  
인민의 유원지로 꾸려주신  
내 나라의 새 명승지

산천은 청다해 노래 불러드리리라  
우리 장군님처럼  
나라의 명승지들을 다 찾아  
인민의 만복으로 꽃피워주신  
절세의 애국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 평론

# 선군시대 우화문학의 새로운 면모

— 문영철의 우화작품들을 읽고 —

김영애

우리의 우화문학은 시대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낡고 반동적인 적대세력들과 부정적현상들을 풍자해학의 불길로 태워버리며 선군시대 오늘의 현실에 맞는 독특한 우화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이 담아야 할 내용이 달라지는데 따라 그 형태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 문학을 시대의 요구에 따라세울수 있다.》

주제의 적극성은 물론 비판의 예리성과 풍자언어의 다양성에 이르기까지 혁신적특성을 보여주면서 발전하고있는것이 현시기 우리 우화의 새로운 모습이다.

이러한 사실로 하여 우리 우화는 다른 문학형태들과 함께 주체문학의 당당한 한 구성부분을 이루고있다. 이것은 우화작가 문영철의 작품들중에서 몇편 실례를 들어보는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우화는 반제계급교양의 힘있는 무기

최근 우리 우화에서 특징적인것은 무엇보다 우화문학을 단순히 아동문학의 범위안에서 취급하는것이 아니라 성인들까지 포함한 보다 광범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반제계급교양의 강력한 수단으로 되게 하고 풍자의 무기로서 선군혁명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는데 있다.

그것은 이 주제의 우화작품들이 의인화된 세계의 형상화에만 매여달리지 않고 풍자의 화살을 직접 실재한 적대적부정인물에게 향해지게 함으로써 우화형상의 현실적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소재범위를 더욱 확대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최근에 출판된 우화집 《불타버린 <제왕>》에 들어있는 문영철의 우화들인 《패전장군과 하루살이》, 《미국코》, 《옛친구의 말》, 《유술선수와 거짓말대통령》 등은 그 좋은 실례로 된다.

우화 《패전장군과 하루살이》에서 실재한 인물은 지난 시기 조선전쟁의 불을 질렀다가 패전의 쓴

맛을 보고 세계앞에 저주와 규탄을 받은 미제의 전쟁하수인 클라크이다. 이것은 1953년 7월 27일의 일이다. 조선정전담판장에서 항복도장을 찍고나온 클라크의 눈앞에 하루살이들이 뭉치여 아물거린다. 보좌관이 황급히 손을 휘젓자 클라크는 손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훔치며 -와두라, 기자들이 내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물어보면 뭐라고 변명하겠는가. 차라리 하루살이가 들어가 눈물이 난다고 해야지. - 라고 말한다. 순간 하루살이들이 그의 눈앞에서 가뭇없이 사라진다. -비열한 놈! 제놈의 처참한 몰골을 가리우려고 우릴 꺼들어? 우린 하루를 살아도 네놈처럼 더럽게는 안 산다. -

이것은 우화작가의 상상력이 낳은 풍자적형상의 절정이며 실재한 사실과 허구적형상과의 결합에 의한 사상적본질에로의 유도아적침투이다. 하루살이들의 존재란 사실상 우화형상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형상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들마저 클라크에게 자그마한 변명의 구실도 주지 않으려고 약속이라도 한듯이 순간에 가뭇없이 사라지며 비난과 조소를 퍼붓는것이다.

독자들은 여기에서 력사의 준엄한 심판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서있는 미제의 비참한 몰골을 그려본다. 클라크의 눈물, 거기에는 다름아닌 바로 미국의 비극의 본질이 집약되어있는것이다. 미제가 또 다시 조선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저들이 지른 그 불속에서 영영 타죽고야말것이라는 세계의 정의와 진리의 목소리도 힘있게 울리고있다.

### 풍자적형상의 힘

문영철의 우화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풍자적형상창조에서의 대담한 예술적환상과 과장이다.

의인화된 동물세계의 부정에 대한 예리한 풍자와 조소는 이 작가에게 있어서 발휘되는 자유분방한 환상과 과장이 낳은 창조물이다. 그의 우화에서는 착취계급사회의 모든 반인륜적억압과 시대상이 날 날이 신랄하게 폭로규탄되고있다. 우화 《불타버린 〈제왕〉》이 그것을 보여주는 실례의 하나이다.

하늘나라 제왕이라 우쭐거리는 독수리한테 하루는 기분나쁜 소식이 전해진다. 한것은 별 흥축하게 생긴 사마귀란 녀석이 땅우에 비끼 독수리의 그림자에 오줌을 찼다는것이다.

...더는 그런 무참한 유린을 당할수 없다며 포악

한 독수리는 하늘나라 새들을 다 모이게 하고 방도를 찾으려 한다. 그림자만 비끼지 않게 한다면 될것이 아닌가, 그중 꿀이 빨리 돈다는 후투디는 비오는 날, 안개낀 날만 행차할것을 권고하고 부엌이는 밤에만 나는것이 제일이라고 아뢰인다. 안될소리... 독수리는 그들모두를 다짜고짜로 물어메친다. 이때 종다리가 내놓은 묘안이 독수리의 귀를 솔깃하게 한다.

-제왕님의 그림자가 땅우에 비끼는것은 제왕님이 저 해님보다 아래에 있기때문이요. 만일 제왕님이 저 해님보다 한치라도 높이 오른다면 그 그림자는 저절로 하늘나라에 올려모셔질줄 아뢰오.

마침내 독수리는 해를 향해 하늘로 날아오르는 용맹을 떨친다. 하늘나라의 새들은 그만 아연해진다. 얼마후 그들의 머리로 웬 깃털들이 푸시시 떨어진다. 독수리의 꿈지와 날개깃이다.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하찮은 일에 미친듯 날뛰는 독수리 《제왕》의 형상인가. 이것은 그의 모든 성격적특징들의 집중적체현이다. 그것은 독수리의 아둔함, 잔인무도함이며 무지몽매성이 낳은 《용맹》과 자고자대이다.

《땅우에 비끼 독수리의 그림자》, 《사마귀의 오줌》, 《해님》, 《깃털》, 《용맹한 날개》 등은 다 이 작가의 상상력이 낳은 환상세계의 세부들이다. 이 환상속에서 우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포악하고 무지한자들의 허장성세가 갈 길이란 자멸의 길밖에 없다는 현실세계의 진리를 깨우치게 한다. 하늘나라의 《제왕》이랍시고 감히 해님우에 자기를 올려세우려는 도전적행위에 어리석고 무엄한 《용맹》의 종말이 있는것이다. 이 우화의 풍자적형상이 가지는 일반화의 폭은 넓다. 오랜 력사를 두고 무수히 바뀌어온 착취사회의 온갖 통치배들의 잔인무도한 폭력과 그 말로의 진리성을 이 우화가 증명해주고있다. 그중에서도 세계에서 《유일초대국》이라 자처하며 온갖 전횡과 악행을 일삼는 미국과 그 최후의 종말이 우선 댈먼저 이 우화의 기본과념에 들어갈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그것은 력사의 필연이며 그 누구도, 그 무슨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인류사주화의 거세찬 흐름인것이다.

### 우화의 고유한 언어탐구

최근 그의 우화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언어구사

에서 풍자해학적특성이 독특하게 그리고 다양한 수법으로 표현되고있는것이다.

우화는 풍자와 유모아가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그것이 풍자적언어로 썩여지지 않는다면 우화언어로서는 아무런 가치도 가질수 없게 된다. 말하자면 우화에서 풍자해학적언어는 생명과 같은것이라고 할수 있다. 때문에 한 작가는 우화를 가리켜 풍자라는 대포를 가지고 결론이라는 포탄을 쏘는 문학이라고 말한바도 있다.

이 작가의 우화에서는 풍자적언어형상을 위해 때로 한가지 의미를 가진 어휘가 두가지로, 세가지로 전의되어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우화 《유술선수와 거짓말대통령》(《청년문학》잡지 2013년 12호)에서 뒤집기어휘의 쓰임이 그것을 보여주는 실례의 하나로 된다.

아픈 머리도 쉬일점 경기장에 나와 유술경기를 보고난 대통령이 우승한 선수를 자기앞에 불러놓고 정말 장하다고, 뒤집기수법이 팬찮다며 너스레를 떠다. 이에 유술선수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며 이렇게 말한다.

《웬걸요. 대통령각하에 비하면 아직 수가 어린걸요.》

대통령은 무슨 말인지 얼떠름해하는데 실은 겸손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에 비하면 수가 어린것이 사실이라 할수 있다. 다만 《뒤집기》어휘를 다른 의미에서 각도를 달리하면서 사용했을 따름인것이다.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한다.

《허바닥 한번 뒤집기로 〈대통령선거〉 공약을 물로 만들고 국민을 우롱하는 각하의 높은 수에 비하면 저야...》

얼마나 신랄하고 무자비한 풍자적폭로규탄인가. 흔히 자본주의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수 있는 《대통령선거》공약과 그것을 뒤집어엎는것을 한갓 식은죽먹기로 생각하는 대통령들의 언어불일치가 여지없이 풍자조소되고있는것이다. 여기서 유술선수는 단순히 개인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근로대중전체의 의사와 요구의 대변자로, 그들의 분노와 항거의 정신의 집중적체현자로 되고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때문에 결론에서 우리는 그의 목소리는 그만큼 무게있고 또 의미심장하게 들리는것이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허바닥뒤집기로 국민을 우롱하다간 국민들이 이 정권을 정말 보기 좋게 뒤집어엎는다는걸.》

우화의 결말에서 《뒤집기》는 보다 심각한 교훈적의미를 추구하면서 다시 한번 전의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오늘 자본주의세계가 안고있는 첨예한 모순과 심각한 정치적위기의 표현이며 그 멸망의 불가피성에 대한 결론이다.

우화의 언어는 풍자성이 뚜렷할뿐아니라 간결하고 명백하며 논리성이 강한 특성도 가지고있다.

우화에서는 번잡한 내용의 전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화의 언어는 그 하나하나가 결론으로 가닿는 디딤돌의 역할도 해야 한다. 우화집 《불타버린 〈제왕〉》에 들어있는 작품으로서 《옹노와 뽕파리》가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민족적향취가 진하게 풍기는 우화작품의 하나이다. 우화에서는 메돼지들의 침범으로부터 강냉이밭, 감자밭을 지키는 일을 맡아보는 어느 산골농부네 집에 있는 옹노와 뽕파리의 이야기를 담고있다. 큰소리치는 뽕파리, 풀숲에 숨어있는 옹노, 이것만으로도 벌써 이 우화의 기본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가늠할수 있게 한다. 그만큼 우화의 언어는 상징성이 강하다. 땡－땡－요란스레 소리치는것으로 메돼지들을 쫓아버리기만 하면서 일은 저혼자 다 하는체뽕내는 뽕파리와 남에게 자랑은 하지 않지만 숲속에 조용히 숨어있다가 메돼지들이 두번다시 오지 못하게 요정내는 옹노의 형상에서 우리는 해학적형상이 가지는 교훈적의미를 깊이 명심하게 된다. 내용은 간결하고 단순하지만 우화에서 옹노와 뽕파리의 형상이 주는 교훈은 인간생활의 참으로 많은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이처럼 우화에서는 간결하고 함축된 언어로써 결론이 추구될 때 그 교훈성, 진리성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지게 되는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최근 우화에서 찾아볼수 있는 사상미학적내용의 새로운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앞으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날로 발전하는 우리 문학에 우화작품들의 창작적성과로써 보다 큰 보탬을 주며 선군혁명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과원은 설레이나

리영환

하늘은 맑고 푸르다. 선들선들 가을바람은 상쾌하고 싱그럽다. 오향이 익어가는 가을의 훈향은 얼마나 구수하며 백과 무르익는 과원의 풍경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이다. 빨간 사과들이 알알이 주렁진 키낮은 사과나무들이 가로세로 줄을 맞춰 눈썹리 아득히 뻗어나갔고 산기슭마다에는 현대식살림집들이 아담하게 자리잡고있으니 이곳이야말로 문자그대로 그림처럼 아름다운 사회주의리상촌, 인민의 무릉도원이 아니겠는가.

풍요한 과원은 후덕진 바람결에 조용히 설레이나. 그 설레이속에는 하많은 사연이 깃들어있는듯싶었다. 노래갈기도 하고 전설갈기도 하고 이야기갈기도 한 그 설레이의 속삭임을 듣고싶어 만난 과원의 한 일군은 뜻밖에도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소원이 있다. 용해공들은 더 좋은 쇠물을 뽑아내기를, 탄부들은 더 많은 탄을 캐기를, 과학자들은 세계를 놀래울 큰 발명을 하기를, 체육인들은 신기록을 세워 금메달을 쟁취하기를... 그렇다면 과수원사람들이 지닌 소원은 무엇인가?

일군의 이야기는 과원의 설레이처럼 내 가슴을 가만가만 잡아흔들었다.

...대성산의 장수봉 북쪽에는 커다란 세개의 돌이 박혀있다. 장수바위, 범바위, 선바위... 바위들이 하도 신령스럽고 기묘하게 생겨 이 고장을 예로부터 삼석이라 불려왔다. 여기 삼석의 원홍땅은 자고로 사람 못살 고장으로 조밥이나마 굶지 않는것을 하나의 소원으로 여겨왔다. 드루늬마을로 불리우던 여기에 등글고 큰 늪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등룡소에 제물을 차려놓고 마을이 흥하게 하여달라고 빌곤 하였다고 한다. 년년이 당산에 올라 성황신에게 제를 지내고 등룡소에 치성을 드리곤 하였지만 그들이 소원하는 부흥은 오지 않았다.

하늘도 조물주도 줄수 없었던 행복이 해방과 함께 이 땅에 찾아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토지개혁이 실시된 후 몸소 삼석땅에 나오시어 이 고장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셨다.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을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원홍땅에 천지개벽의 새 역사를 펼쳐주셨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신선한 과일을 먹이시려고 여기 원홍땅에 굴지의 대과수농장을 꾸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대동강반에는 끝간데 없는 과원의 바다가 펼쳐지고 가을이면 빨간 사과들이 주렁지게 되었다.

일군의 말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소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원을 가지며 그 소원이 실현되기를 갈망하여마지않는다. 어린시절 떨어지는 별찌를 바라보며 자기 소원을 말하기도 하고 떠오르는 대보름달에 자기의 소원을 실어보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이 소원한다고 그 소원이 다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그처럼 부흥하기를 갈망하던 사람들의 소원이 오로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은덕속에 실현되지 않았는가.

그렇다. 풍요한 과원의 행운은 은혜로운 해빛을 떠나서는 생각할수가 없다.

감회도 새로운 지난 6월, 찌는듯한 무더위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여기 과원에 오시었다. 선군령도로 바쁘신 그이께서 또다시 과수원을 찾아주신 그 감격, 그 기쁨을 못이겨 온 과원이 격정에 설레이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일망무제하게 펼쳐진 과원을 바라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이 그리워 찾아왔다고, 사과꽃 피워놓고 아뢰면 또 오실가라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장군님 생각이 간절하여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셨다. 그이께서는 종합과공공장을 가진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겨놓으신 애국유산, 애민유산이라고 하시면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더 많은 사과를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는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간곡히 말씀하셨다.

바람이 불어왔다. 사과나무들이 설레이며 상긋한 향기를 풍기었다.

나는 다시금 숭고한 소원의 세계에 잠겨든다. 이곳 사람들이 품었던 모든 소원, 꿈과 리상은 당의 은혜로운 해빛아래 다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원은 또 다른 소원을 낳는다. 소원이 없이 사람은 못산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닌 새로운 소원은 무엇인가?

일군의 눈가에는 원수님을 만나뵈온 그날의 감격이런듯 눈물이 고여올랐다.

《사람이 자기의 소원을 풀었다고 소원이 없어지는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소원이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을 받들어 우리 인민들에게 신선한 사과를 먹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소원에 보답할 새로운 소원이 우리의 가슴속에 자리잡았답니다.》



# 그 부름이 귀중해

신 문 경

오늘도 나는  
눈보라치는 밤길을 걸어  
그를 찾아간다  
영예군인시인 나의 동지를

조국보위초소에서  
애국의 피땀을 바치던 그때처럼  
멈춰서선 안될 병사의 발걸음을  
창작의 시줄로 줄기차게 이어가는  
친근한 나의 동지를 찾아

그는 나를 선생이라 부르건만  
나는 그에게서  
더 많은것을 배워간다  
불굴의 정신  
순결한 마음  
고귀한 사랑을

나는 그를 동무라고 부르지만  
부를 때마다 무엇인가 부족한 마음이  
나자신에게 스스로 웨친다  
뜻을 나누는 동지가 되라  
피를 나누는 전우가 되라

내 모르지 않아라  
초소에 함께 섰던 그의 전우들과  
내 조금도 차이없이  
그의 마음속에 나란히 서기 쉽지 않다는것을

하나 새로운 전호에 들어선

영예군인병사 그의 곁에는  
있어야 한다  
조국앞에 운명을 함께 하고  
뜻과 생사를 함께 해나갈  
또 다른 전우들 우리 시인들이

눈바람이 아니라  
불비가 쏟아진대도  
나는 가야 한다 귀중한 동지를 위해  
비록 그가 한사람일지라도  
우리 온 집단이 가야 하리

비오고 눈오는 날  
명절날 일요일도  
이 길을 걸으며 내 또한  
인생의 보람을 더 크게 느꼈노라  
혁명의 길 곳곳이 함께 걸어가는  
전우의 성장을 기쁘게 보았노라

더 바랄것 없노라  
훈장도 영예도  
원수님 이끄시는 수천만 전우대오속에  
우리 서로 동지라고 부르며  
영원히 한길을 갈수만 있다면

다만 바라는것은 하나  
그가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큰 영광의 순간에  
병사시절 전우들을 부르듯이  
나를 동지라고 뜨겁게 불러준다면

////////////////////////////////////

그랬었다. 그들의 소원은 보답과 의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 잘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기신 애국의 유산, 파원을 더잘 가꾸어 과일풍  
년을 안아오는것만이 그들의 행복이었다. 하여 이  
들은 과수원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축산을 발전시  
키고 고리형순환체계를 받아들여 사과생산에서 좋  
은 성과들을 이룩한것이다. 그 나날에 바쳐진 농장  
원들의 헌신과 땀의 무게를 알알이 빨간 사과알들  
이 다 말해주는듯싶었다. 그렇더라, 유산이란 가꾸  
고 지켜야 빛나는것이니 삶의 전부인 이 애국유산  
을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라.

나는 황홀한 눈길로 과수원을 둘러본다. 봄이면  
사과꽃이 하얗게 피어 멀리서 보면 명주필을 펼친  
것 같고 여름이면 파란 잎사귀들이 푸른 주단처럼

물결치는것 같고 가을이면 빨간 사과들이 주홍색  
비단처럼 펼쳐지는 파원의 바다. 바라볼수록 가슴  
그들먹한 파원의 풍경은 과수농장원들의 숭고한 소  
원의 세계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한다. 허나 이것을  
어찌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사람들의 소원이라고만  
하겠는가. 저 멀리 철령아래 사과밭과 북방의 덕성  
평사람들의 한결같은 충정의 마음이며 간절한 소원  
이다. 이러한 소원을 안고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떠한 풍파가 들이닥쳐도 오로지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불가능을 모르고 세세년년 파일대풍의 작황  
만을 안아올것이다.

바람이 불어왔다. 사과나무들은 설레이면서 파원  
의 소원을 속삭이는것만 같았다. 빨간 사과알들이  
햇빛을 받아 유난히도 반짝인다.



류 민 호

…아마도 내가 어려서부터 축구를 무척 좋아했다는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것 같다. 공이라면 오금을 못썼다. 그러나 사실 산골마을에 무슨 운동장다운 운동장이 있으랴. 나의 고향마을에는 몇 안되는 마을아이들이 모여서 공을 찰만 한 장소조차 변변히 없었다. 그래서 가을한 논판에서 공을 차군 하였는데 논배미들이 크지 못했고 게다가 벼그루터기투성이여서 떨어지는 공이 왕청같은 데로 날아가지 않나 하면 뿌리에 걸쳐여 넘어지기가 일쑤였다.

그런 속에서도 나는 공차기를 즐겨했다. 물론 국제경기들에 나가는 직업선수까지는 못되었지만 학생때는 학급선수, 학교선수, 사회생활에서는 직장, 기업소 대항경기 등 크고작은 경기들에 무수히 참가했다. 아마 경기회수는 전문선수보다 더 많을수도 있을것이다.

이제는 늙은이가 되어 경기는커녕 구경이나 하는 처지이지만 새삼스레 축구경기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요즘 전 사회적으로 일고있는 체육열풍이 수십년전일을 상기시킨때문이다.

연구사로 일하는 우리 손자녀석이 연구과제가 잘 되지 않아 끙끙 앓다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기관내 체육경기에 출전한다고 운동복을 찾는 소동이 벌어진때문이었다.

로친이 《령감, 저 애가 그냥 머리를 앓더니 뭐가 잘못된게 아니요? 연구과제가 걸려서 애를 먹는 다더니 무슨 체육을 한다고 저리 야단이요?》 하고 고시랑거리는것을 듣다못해 《아, 저도 다 생각이 있지 않으리. 체육을 하느라하면 막혔던 목이 확 열

릴 때도 있단 말ियो.》 하고 한마디 했더니 로친이 문득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령감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하는 바람에 수십년전의 축구경기가 불쑥 떠올랐던것이다.

하많은 경기들이 서로 어슷비슷하지만 그날의 경기만은 하도 류별나서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살아 있다.

반세기전의 이야기이다. 그때 나는 몽금포수산사업소 어로공으로 있었다.

### 잊을수 없는 축구경기…

내가 수산사업소 축구팀 선수로 참가한것은 스무살 잡히던 해이다. 원래는 군산팀경영소에서 일했었다.

그때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해주시여 거리 어데나 바다는 청년들을 부른다는 구호가 나붙어있던 때였다.

서해에는 그때까지만 하여도 발동선 하나 변변한 것이 없었고 채래식목선을 가지고 고기잡이를 하였다.

더구나 당시 수산부문에 잠입해있던 나쁜 놈들이 서해에서는 기계배를 쓰면 안된단, 물고기들이 기름냄새를 맡고 달아난다고 떠들어대던 때였다.

그래서 고작 몇십리씩 나갈 때도 큰 목선에는 노를 3~4개씩 붙이고 몇시간씩 땀을 뻘으며 죽을내기로 노를 저어나가야 했다. 돌아올 때도 힘겹게 노를 젓다보니 만선의 기쁨 같은것을 즐겨볼 여유

도 없었다. 가공반에서도 퇴근을 못하고 부두에서 아니면 모래밭에서 자다가 일어나 고기배를 맞이 하곤 하였다.

고기를 다 부리고나면 새날이 밝아오는것이 보통이었다.

그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강원도수산부문 당열성자회의를 소집하시고 수산부문을 추켜세울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더구나 한 수산사업소 지배인의 토론을 들으시고는 수산부문을 결정적으로 발전시킬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청년들을 바다에 적극 진출시킬데 대해서도 말씀하시었다.

그때 군산립경영소 조림작업반에서 일하던 나는 스무살의 청춘이었다. 나의 피도 끓어올랐다. 하여 나는 바다로 탄원했고 수산사업소 어로공이 되었다.

그때 나는 수산사업소와 산림경영소 두곳에서 다 환영을 받았다. 수산사업소에서는 바다로 진출한 탄원자가 왔다고, 또한 군적으로 소문난 축구선수가 왔다고 벽적 떠들었고 산림경영소는 또 그들대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바다로 진출하는 나를 영웅처럼 배워주었다. 나는 정말 우쭐해졌다.

수산사업소에서는 나를 지체없이 사업소 축구선수로 선발했다.

산림경영소팀에서 맡고있던 7번이라는 공격수위치까지 그대로 맡겨주었다.

그때는 8.15조국해방의 날이 되면 군적으로 체육대회가 대성황리에 진행되곤 하였다. 예선경기까지런 3일이나 경기를 하였는데 나는 어로공이 되어 2달정도 지나 8.15를 맞이하였다.

《수산》팀은 원래 군에서 꼴찌에 가까운 팀이었다.

그것도 그럴것이 경기에 나가자면 축구팀을 조직하고 초보적으로 발을 맞춰보고 경기에 나가야겠으나 공을 찰만 한 사람들이 다 바다에 나가있다보니 선수들은 경기장에 나와서야 만나보는 판이었다. 게다가 선수들은 노상 배를 타다가 경기장에 나오면 땅멀미를 하여 도무지 달리지를 못했다. 오죽하면 어느 팀이나 대전추첨을 할 때 《수산》하고 붙게 되면 만세를 불렀으랴.

그런데 이번 경기는 좀 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산부문을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으로 보내주신 기계배가 우리 수산사업소에도 여러척 도착하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조치로 어로공들이 명절을 쇠러 다 들어와있었다. 그러다보니 축구팀도 제법 정연하게 꾸러지게 되었고 발까지 어지간히 맞춰보았다.

게다가 우리 배에는 선수가 4명이나 있어서 전술 토론도 제법 할수 있었다.

《수산》팀은 훈련도 좀 하고 전술이라고 할것도 세워 초보적으로 구색을 갖춘 축구팀으로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예선경기때부터 경기가 얼마나 잘되는지 우리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 오죽하면 경기에서 4골이나 련속 상대편 골문에 박아넣고도 《오늘은 어떻게 된 감투끈이야? 우리 공에 눈이 달린게 아니야?!》하고 제김에 놀라와하였겠는가.

우리 주장 10번은 5번을 보고는 《여 갑판장, 땅멀미를 하면서 헛다리만 놓더니 오늘은 어떻게 된거야?》하고 통담까지 건넸었다.

배만 타다가 땅에 내려서면 오히려 어질어질해서 두다리를 짹 벌리고 엉기적엉기적 걷는것이 오랜 어로공들이다. 그래서 《땅멀미》라는 말이 나왔다. 며칠간 훈련하고나니 땅멀미가 없어진 덕이랄가...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경기성과를 두고 하는 말이었는데 그들은 이번 경기들의 성과가 내가 선수로 보충된때문이라는것이였다.

《우리 〈수산〉에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단 말이야, 웅?》

어떻든 우리 《수산》팀은 군내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엎고 결승경기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온 군이 깜짝 놀랄만 한 일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공교롭게도 결승경기를 《산림》팀과 하게 된것이였다.

우리 수산사업소에서는 명절에 명절이 겹친듯 모두가 덩실덩실 춤들을 추며 흥성거렸다.

여느때엔 아예 창피하다고 경기장에 나타나지도 않던 수산사업소일군들도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떨쳐나왔다. 저도 2등을 하게 됐으니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뭔가. 10개 팀이 참가하면 10등, 12개 팀이 하면 12등을 하던 《수산》팀인것이다.

제일 경기장을 놀래운것은 우리가 언제나 1~2등을 내놓지 않던 군인민위원회팀을 4 대 1이라는 압도적점수로 이겼을 때였다.

이때 축구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수산》팀은 7번때문에 이긴다고들 했다. 7번은 공격수라 경기장에서 제일 눈에 띄우는 존재이기때문에 더욱 그랬다.

경기장에서는 내가 공만 잡으면 《7번.》, 《7번.》하고 경기장이 떠나갈듯 웨쳐대곤 하였다.

경기휴식참이면 수산사업소처녀들이 사이다를 들고 제일먼저 나를 찾았다.

《수산》팀과 《산림》팀간의 축구결승경기는 8월 15일 오후 5시에 시작되었다.

경기장에 나선 나는 눈이 뻥뻥하고말았다.

주심을 중심으로 두 팀선수들이 마주서는 순간 나는 내가 누구와 맞서 경기를 해야 하는지를 새삼스레 깨달았던것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공을 차던 너무도 잘 아는 《산림》팀선수들이 마주서서 나를 바라보고있었다. 위치결정을 하려고 주장들이 나왔는데 《산림》팀의 주장은 내가 너무도 잘 아는 영철이었다. 영철이로 말하면 나에게 축구를 배워준 사람이다. 그가 팀을 이끌면서 지난 6~7년동안 군에서 2~3등권내에 있었다.

그리고 그의 사촌녀동생 영미로 말하면 나의 동창생이며 한낱한시에 산림경영소에 입직한 남다른 사이인것이다, 영미의 아버지인 김진림으로 말하면 나의 아버지의 막역지우이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함께 전선으로 나갔던 사람이었고...

꽤!— 호각소리가 울렸다. 우리 팀의 먼저차기로 시작되어 내가 공을 잡자 막아선 성림이도 막역한 친구요 모든 산림선수들은 한식구나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었다.

(내가 누구네와 경기를 하는가?!)

착각할 정도였다. 《산림》팀과 경기를 하니 우리 팀인 《수산》선수들은 오히려 낯설어보였고 《산림》팀선수들이 더 가깝게 느껴졌다.

그리고 경기장을 둘러봐도 모두 낯익은 산림경영소사람들만 보였다. 자기네 팀을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영미의 얼굴도 똑똑히 보였다. 그리고 그옆에서있는 나의 어머니도 보였다. 어머니는 도대체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아들도 볼래, 《산림》팀선수들도 볼래 어정쩡해하는것 같았다.

확실히 경기를 시작하자 형세는 《산림》팀이 우세하였다. 우리 골문앞에서 자주 혼전이 벌어지군하였다. 공격수인 나는 별로 공을 잡아보지도 못했다. 그러니 자주 경기장밖에 눈이 갔는데 수산사업소사람들은 모두가 낮이 설고 산림경영소사람들은 모두가 낮이 익고 정답게만 안겨왔다.

그런데 문제는 수산사업소 응원자들이 모두가 나를 대단한 선수로 알고 공만 잡으면 모두가 일어서서 와—와— 소리치면서 《7번!》, 《7번!》 하고 소리치는것이였다.

확실히 응원이 힘이 된다는 말이 옳았다. 나도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하였다....

마침 나에게 공이 날아왔다. 그 공은 우리 《수산》팀주장인 10번이 상대편 선수한테서 빼앗아낸 공이었다. 그 공이 그대로 내앞에 날아와 떨어졌다. 나는 그 공을 잡자 제잡담 《산림》팀 문앞으로 몰고들어갔다. 수산사업소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7번!》, 《7번!》을 웨쳤다. 나는 몰고가던 공을 힘껏 내쳤다. 그런데 그것이 문대를 스치고 밖으로 날아갔다. 순간 나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이 나갔다.

이것은 《산림》팀에 가해진 첫 위협이였다.

《산림》팀 주장 영철이가 자기 팀 4번에게 뭐라고 소리쳤다. 나를 잘 잡지 못하고 숯기회를 주었다는 질책이였다.

그 순간 나는 저도 모르게 산림경영소 좌석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자 영미와 그의 아버지 진림직장장의 얼굴이 보였다. 눈이 화등잔만 해서 나를 바라보는것 같았다. 마치 《임자, 어디로 공을 차나. 벌써 근본을 잊었나?》하는듯 했다.

진림직장장으로 말하면 나에게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였다. 나를 두말없이 수산사업소로 보내준 사람도 그였다.

산림경영소 조림작업반에서 일하던 나는 수산부문에 진출할 결심을 하고 소학교에서 경리원을 하고있는 동창생을 찾아가 같이 진출하자고 바람을 일구었다. 그 친구도 따분한 일을 하고있던참이라 내 말을 듣자 귀가 번쩍 트이는지 두손들어 찬성해나섰다.

그는 당장 래일로 수산사업소에 찾아가자고 하는 것이였다. 오히려 내가 만류해야 했다.

《그렇게는 못해. 다 체계를 밟아야 돼. 우선 직장에 제기해서 승인을 받으라구. 나도 승인을 받을테니!》

나는 그달음으로 어머니를 찾아가다. 나무모밭에서 김을 매던어머니가 손에 묻은 흙을 비비며 발머리에 나와앉았다.

《왜, 무슨 일이 있니? 산에 올라갔다가 일찍 내려왔구나.》

무슨 일이든지 어머니에겐 바재일 필요가 없었다.

《어머니, 나 수산사업소에 가기로 결심했어. 어머니의향은 어때요?》

어머니는 저으기 놀라는 표정이였다.

다음은 못마땅해하는 표정으로 묻는것이였다.

《영미 아버지한테 이야기해봤니?》

《아니요. 아직은...》

《직장장인 그 아저씨가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여기루 올 때 생각을 해선 승인을 할것 같지 않은데...》

어머니는 늘 영미 아버지를 믿었다. 그래서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 작은 일거리조차 그에게 꼭 물어보곤 하였다.

그것도 그럴것이 영미 아버지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나의 아버지와 같이 군대에 입대하였다. 아버지는 공병이 되였고 영미 아버지는 보병이 되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시한탄을 해제하다가 희생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영미 아버지만 돌아왔다.

그는 우리 집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발벗고나섰다. 남정의 손이 가야 할 일이면 자기 집 일을 제쳐놓고 도와주었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물론 자기 집 외딸인 영미에 대해서는 요구성이 높았고 원칙적으로 교양했다. 어루만지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더구나 장래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다.



영미와 내가 학교를 졸업했을 때였다.

영미는 회계원을 양성하는 회계학교(후에 경제전문학교)를 지망했고 나는 체육학원에 가겠다고 하였다.

그때 영미 아버지 진림은 우리를 불러앉혔다.

물론 우리 어머니도 같이 오라고 했다.

영미 어머니까지 방안에 앉고보니 우리 두 가족이 다 모인셈이었다.

《나는 너희들이 지망서에 자기가 희망하는 상급학교를 써낸것을 안다. 회계원도 좋고 체육인이 되는것도 좋지. 우리 나라엔 천하고 중요하지 않은 직업이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 당이, 우리 조국이 가장 아파하는 곳에서, 그것도 선두에 서서 땀을 바치구 한몸을 바치는것이 도리가 아니겠니? 나는 얼마전에 우리 수령님께서 미국놈폭격에 불타버린 산들을 보시면서 해방전에는 왜놈들이 우리 산림을 판벌해가구 오늘은 미국놈들이 불태우니 산이 벌거숭이가 되었다고 가슴아파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군의 산도 온통 벌거숭이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우리 산림경영소에 와서 나무를 가꾸고 산을 푸르게 하는데 이바지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되어 영미와 나는 산림경영소에 가게 되었다.

그때생각을 하며 어머니는 진림아버이가 승인을 하겠는지 하고 우려한것이였다. 나도 어머니의 말대로 직장장을 찾아가면서 마음이 몹시 무거웠다.

막상 그 집앞에 이르니 영미 아버지를 찾기가 두려웠다. 그래서 영미를 먼저 찾았다. 영미는 나를 보더니 어느때없이 심각해보였던지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다.

《아버지 있니?》

《있어.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야 되는거냐?》

《응, 내 일생문제야.》

《뭐, 일생문제? 어마어마하구나. 뭔데?》

《저... 나 수산사업소에 갈까 해서그래. 네 생각은 어땠니?》

영미는 눈이 울통해서 나를 한참이나 말없이 쳐다보았다. 나는 자신없이 중얼거렸다.

《보내주겠다고 하겠는지... 지금 로력이 떨어져서 그러는 판에 나까지 가겠다고 하면...》

그때 집문이 벌럭 열리며 영미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는것이였다.

《거 누구냐?》

《나예요, 원렬이에요.》

《원렬이? 왜 들어오지 않구 밖에서 그러구 섰느냐?》

《아버지, 원렬동무가 수산사업소루 가겠다고 구려잖나요.》

《뭐, 수산사업소예?!...》

직장장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수산사업소에 가겠단 말이지?!》

《저, 요즘 청년들을...》

직장장은 생각에 잠긴 눈길로 나를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밤이 되어 그의 얼굴표정은 알아볼수 없었다. 내가 슬그머니 눈길을 발치로 떨어뜨리는데 그의 커다란 손이 나의 어깨를 툭- 하고 짚었다.

《네가 참 용구나. 우리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바를 알았으니... 나는 반대였다. 매일 당장 당위원장 이랑 지배인한테 이야기하자꾸나.》

나는 너무 기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오직 산림밖에 모르는 사람인것 같았다.

그는 영미 어머니가 그렇게 지청구를 해도 남과 같이 자기네 터밭에 남새를 심지 않는다. 그의 터밭에서는 사과나무모들이 자라고 잣나무 접목이 자란다. 아침저녁 물을 주고 김을 매며 애지중지 키운다. 그가 키운 사과나무모들이 린근 여러 농장과 수분조에 《이사》를 갔다. 이제는 그 나무들에서 주먹같은 사과가 열린다.

그런 직장장이 나를 수산사업소에 선뜻 보내주겠다고 한것이다.

이렇게 되어 나는 수산사업소에 오게 되었고 또 수산사업소 축구팀 선수가 되었다.

나는 산림경영소에 있을 때도 7번, 지금도 7번이다.

그런데 우연히 그렇게 되었는지, 그렇게 조직한것인지 내가 탄 《안강망125》호에는 축구선수가 셋이나 있었다. 나까지 가니 넷으로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배를 안강망축구선수배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갔을 때는 우리 배의 기관장이 배가 안강작업도 하고 진작작업도 할수 있는 만능선으로 개조하자고 들고나온 때였다.

그는 축구팀의 주장이였다.

나는 물론 그의 제기에 열렬히 합세했다. 하나의 배로 안강도 하고 진작작업도 하면 얼마나 좋은가.

물론 그 발기를 누구나 다 지지한것은 아니였다.

《배를 개조하는게 축구하고 같은줄 아는가. 그러니 밤낮 지기만 하지.》 하고 코웃음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기관장-우리 주장은 그런 말에 끄떡도 하지 않았다. 하여 내가 배에 와서 그의 생각에 합세하자 선장아버이는 이렇게 말했다.

《야단났군. 이거 축구선수를 받은줄 알았더니 탄꿈꾸는 녀석을 받았군!》

하여튼 배를 만능선으로 개조하는 일에서는 첫째가는 난관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것이였다. 누구도 우리가 그 일을 할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기관장인 우리 주장이 지금 공을 차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있으리라는것은 뻔했다. 그는 경기전에 우리에게 말했었다. 《여, 어떻게 하든 이겨야 해!



축구에서부터 이겨야 우릴 믿어줄게거든!》

나는 매일에는 생둥이여서 열렬한 지지자였을뿐 아무 도움도 줄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그런데 축구경기에서 이기면 큰 도움을 주는것으로 된다고 한다. 그대 이기고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산림》팀 응원자들이 와—와— 하고 기세를 올리고있었다. 주장인 영철이가 공을 몰고 우리 문전을 향해 총알같이 돌입하고있었다.

공만 잡으면 그에게서는 그 공이 마치 몸의 한부분인듯 철철 붙어다녔다.

우리 《수산》팀 5번이 그를 따르고있었다. 5번으로 말하면 장산곶중학교에 다닐 때 그곳 축구팀 주장을 했다고 한다. 그도 만만치 않았다.

영철이는 원래 5번을 넘기기 매우 힘들어했다.

확실히 우리 팀 5번이 영철이의 속도를 통가했다.

모든 체육의 기초가 달리기인것만큼 축구도 먼저 속도가 중요하다. 그다음 공다루기기술이다.

우리 5번한테 영철이가 저지당하기 시작하자 《산림》팀의 활약이 시원치 못해졌다.

영철이도 5번에게 여러차례 공을 빼앗기게 되자 5번이 벌써 자기앞으로 달려들면 먼거리차넣기로 우리 문전을 향해 차보내기가 일쑤였다. 내가 보기에 영철이가 우리 5번을 따돌리고 좀더 문전깊이 들어가 슛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니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지금은 축구가 발전해 전면방어, 전면공격, 424체계, 433체계 하면서 현대적인 축구전술체계를 아이들도 알고있지만 그때는 누가 공을 세계 차는가, 많이 차지하는가 하는데 그 선수의 우수성이 평가되었다. 바로 영철이의 공차기가 매우 썩고 그래서 그의 인기도 대단했다. 군적으로 종합팀을 구성한다면 단연 그가 첫째로 뽑힐것이다.

그러나 이날 경기에서는 그의 기술이 은을 내지 못했다.

전반전은 무승부로 끝났다. 이것만 해도 온 군을 깜짝 놀라게 했다. 《산림》팀이 《수산》팀과 전반전에서 비겼다는것부터가 믿어지질 않는 사실이었던것이다.

수산사업소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산사업소 응원자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느라니 기관이름대신 커다랗게 써서 걸어놓은 글발이 바람에 기세 좋게 펄럭이고있었다.

《바다는 청년들을 부른다!》

후반전 경기가시작시간이 되어 다시 경기장으로 나갈 때 우리 《수산》팀 주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두 저 글발을 가슴에 안고 달리자구. 모든 청년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해야 해!》

우리는 언덕에 서있는 《바다는 청년들을 부른다!》라는 글발을 마음속으로 다시 외쳤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수산사업부문을 지도해주시기 전에야 우리 서해의 어로공들이 무슨 어로공다운데가 있었던가.

오직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리해안으로 날을 내다보시고 서해수산업도 현대화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다음에야 목선밖에 없던 우리 사업소에 련이어 발동선이 도착하였고 우리는 진짜어로공이 되었다.

이제는 모든 목선들을 아침이면 4~5척씩 바줄로 련결하여 기계배가 끌고나가 어장에 놓아주곤 한다. 장시간 노를 젓던 고역은 아예 없어졌다. 발동선에 끌려가면서 목선갑판들에서는 웃음소리가 높아지고 노래가락까지 흥겹게 울려나온다.

저녁이면 다시 발동선에 끌려 만선기를 날리며 돌아온다.

모두가 우리 수령님덕분에 어로작업이 신선놀음이 되었다고 감격에 넘쳐 한결같이 말했다.

물고기가공에서도 혁신이 일어났다. 종전에는 까나리를 장작불을 때서 데쳐내고 온 마당에 갈발을 펴고 말리우던 재래식노동이 이젠 전기의 도움, 전동기의 도움으로 물을 끓여 데쳐내고 가열기로 건조해내어 위생성도 보장되게 되었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에 만세를 부르며 일을 했다.

그리고 늙은이와 녀성로력이 60~70프로되던 종전의 로력구성도 옛말로 되고 청년들이 바다로 달려왔다. 나도 달려왔다. 옛날 《배놈》이라고 천시하며 깔보던 우리 수산부문이 이제는 누구나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는 일터로 되었다.

《수산》팀 주장이 바다는 청년들을 부른다는 글발을 가슴에 안고 달리자고 한 말은 결코 우연치 않았다. 우리들의 가슴은 부풀어올랐다. 지난 시기 경기에서 지는것을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던 팀이 아니었다. 해보자, 우리라고 왜 우승할수 없겠는가. 당의 부름에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청년들이 있는 《수산》팀이!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내세워주신 일터에서 일하는 어로공들이다. 더우기 이 경기승패에 배의 기술개조가 달려있다. 이겨야 한다!

후반전 경기에서는 전반전과 경기형세가 달라졌다. 《산림》팀의 공격이 자주 중앙선에서 좌절되었다.

처음엔 《산림》팀 주장 영철이의 기만전술에 속아 문전결속까지 양보했으나 우리 5번이 그의 전술을 간파하고 영철이에게로 날아오는 공을 먼저 달려가 차지하는가 하면 그가 몰고들어오는 공을 앞서 잘라내곤 하였다.

우리 5번은 예선의 갑판장이다. 그는 얼마나 경기에 열중했는지 땀으로 온몸이 푹 젖어있는 뛰는

자세만 보아도 웃음이 절로 나군 했다. 그는 확실히 축구미치광이라 불리울만 했다.

밀고 당기는 엇비슷한 경기정황이 조성되었다. 우리를 깔보던 《산림》팀도 저지기 긴장된것이 알려졌다. 영철이가 처음엔 자기네 선수가 실수하면 큰 소리로 웃으면서 대하던것이 점차 웃음이 사라지고 벌칙 성을 내기가 일쑤였다. 그들은 로골적으로 《암소한테 물린게 아니야?》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내가 달리는것을 보고는 《저 원렐이가 우릴 이기자고 꽤나 독을 쓰는데!》하면서 원망했다.

내가 얼핏 《산림》팀 응원자들을 바라보느라니 어머니가 눈에 띄었다. 의아해서 나를 보는것 같고 영미는 눈이 울롱해서 나를 쏘아보는것 같았다.

수산사람들이 있는데를 돌아보니 나에게 손을 높이 흔드는 사람이 보였다. 순간 나는 놀랐다. 우리 당위원장이 아닌가.

나는 가슴이 화끈해졌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 이제 경기가 끝날 시간이 가까와왔다. 나는 속으로 잘되었다고 생각했다. 차라리 경기가 비겼으면 하였다. 지금은 0 대 0으로 경기가 끝나면 연장전을 하고 그래도 비기면 11미터 승부차기까지 하지만 그때는 제비뽑기로 결정하군 하였다. 그런데 정확히 경기마감 2분을 앞두고 기적이 일어났다.

정말 나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심판마저 경기가 무승부로 끝날것이라고 생각하고 경기끝을 알리는 긴 호각소리를 내리는듯 호각을 입에 가져가는 때 우리 방어수 5번이 중앙선 너머 먼거리차기로 세계 넘겨찬 공이 우리 기관장—주장의 발에 걸렸다. 그가 공을 잡자 7번인 나는 관례대로 상대편 꼴문을 향해 돌입했다. 그런데 그가 슛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바른쪽날개인 나에게 공을 넘겨주는것이 아닌가. 시간이 없었다. 나는 달리던 속도 그대로 오른발로 있는 힘껏 꼴문을 향해 공을 찼다. 축구를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발등이나 안쪽발에 공이 정확히 맞고 튕겨날 때의 시원한감, 통쾌한감을 잘 알것이다. 내가 바로 그런 순간의 쾌감을 맛보았다. 내가 찬 공이 정확하면서도 강하게 날아갔을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순간 《와!—》하는 우뢰같은 함성이 터지는것이 아닌가. 내가 꼴문을 바라보니 공은 그물구석에 박혀있고 문지기는 모로 쓰러져 일어날념을 못하고있었다.

관람자들이 모두 일어나 두손을 높이 들고 목이 터져라 환성을 올리고있었다.

순간 나는 정신이 아뜩해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산림》팀문에 꼴을 넣었구나?!) 하는 생각에 귀가 짹 메는것 같았다.

내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는 소리도 나는 들을수

가 없었다.

(내가 《산림》팀문에 꼴을 넣다니?)

우리 선수들이 달려와 나를 끌어안고 불을 비빈다, 추켜올린다 야단법석이였다. 나는 그 모든것을 꿈속에서처럼 느꼈다. 먼곳에서 울리는 소리같고 도대체 생시같지 않았다.

(내가 《산림》팀문에 꼴을 넣었다?!)

그때 경기마감을 알리는 긴 호각소리가 울렸다.

나는 산림경영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감히 눈길을 돌리지 못했다. 그럴 용기가 없었다.

나에게 음식을 권하고 수산사업소 일꾼들이 서로 다투어 나의 손을 잡아주었으나 기쁜것도 별로 느끼지 못했다.

시상이 있었다. 1등을 한 우리 《수산》팀 매 선수에게 라디오가 한대씩 차례졌다. 그때는 아직 텔레비존도 없던 때여서 라디오면 대단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웃고 떠들썩하던 경기장에 어느덧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했다.

로동과장이 나에게 오더니 수고가 많았는데 집에 가서 푹 쉬고 나오라고 하였다.

수산사업소는 군에서 15리가량 되고 산림경영소는 산을 넘어야 했다.

그때 산림경영소에는 화물차 한대가 있었는데 그차가 승용차로도 되고 빠스로도 되고 화물도 싣는 유일한 운수기재였다.

그때까지도 나의 집은 산림경영소가 있는 마을에 있었다. 내가 바다에 나가 들어오지 못할 때에는 어머니 홀로 있었다. 그래서 자주 영미가 와서 어머니를 동무해주었다. 그리고 영미 아버지가 우리 집을 손질도 해주고 장작도 패주며 남정없는 일손을 대신해주었다.

체일먼저 떠오르는것이 영미의 얼굴이었다.

그가 나보고 뭐라고 할가.

《그래 꼭 그렇게 꼴을 넣어야 씨원해?》

다음은 아버지처럼 대해주는 영미 아버지 직장장의 주름진 얼굴이 떠올랐다.

《잘하누만. 길러준 개 발뒤축을 문다더니…》

다음은 나에게 축구를 배워준 영미의 사촌오빠인 《산림》팀 주장 영철의 얼굴이 떠올랐다.

집으로 갈 생각이 난감해 경기장 한옆에 퍼더버리고앉았다. 라디오를 안고서 말이다.

이때 경기조직위원회가 자리잡고있던 군고급중학교 사무실에서 나오던 산림경영소 지배인이 나를 보더니 눈을 데룩거렸다.

《여기서 뭘하냐? 텅 빈 경기장에서… 집에 가아지. 우리 차가 저기 있어. 가자구.》

《지배인동지, 일없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어서 차있는데루 가자는데!》

억지로 그는 나를 끌고 차있는데로 데리고갔다. 나를 적재함앞에 세워놓고 자기는 운전칸으로 갔다.

동무들이 나를 끌어올렸다.

나는 눈도 들지 못했다.

그때 직장장 진립아바이의 웅글고 저력있는 목소리가 무게있게 나의 귀전을 울렸다.

《못나게 그러지 말라구! 원렬인 오늘 정말 잘했어. 자네가 넣은 그 한풀이 얼마나 값이 있구. 우리 수령님께서 내세우시는 수산사업소가 1등을 하니 그건 정말 참 잘된 일이지. 모든데서 앞서나가야 할 수산사업소가 또 1등을 했으니 원렬이 자네는 큰일을 한셈이야. 수산이 1등을 하면 우리 수령님께서 더 기뻐하실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

적재함엔 정적이 깃들었다.

누구 하나 직장장의 말을 두고 가타부타하는 사람이 없었다. 《산립》팀선수들이 말없이 내 손을 짹 잡아주었다. 그것은 말없는 긍정이었다.

나는 그때 왜서인지 눈물이 왈칵 나왔다.

《수산이 이기면 우리 수령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고 고개를 푹 숙였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끝내야 하겠지만 나는 그 후 일담을 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 《수산》팀이 1등을 하자 수산사업소 사람들의 우리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다. 우리 《안강망 125》호에 대한 관점이 확 달라졌다.

《그 사람들이 정말 일을 치겠어. 이번에 1등한것만 보지. 배의 기술개조도 못할게 뭐가.》

하어 우리가 하는 일에 제일 큰 난관이었던 반대자들이 없어졌다. 그것이 물론 축구에서 1등한것때문만이겠는가.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는것을 누구나 깨달은때문일것이다.

어떻든 우리는 얼마후 배의 기술개조를 실현하여 안강망, 자망, 건착망을 다 함으로써 출어때마다 풍어기를 날리며 돌아왔다. 지금도 생각하면 피가 끓는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에 일으켜주신 체육열풍, 그 열풍이 강성국가건설의 커다란 추동력으로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손자녀석도 체육경기를 하고나면 이겨서만이 아니라 걸린 고리가 풀려서 싱글벙글하며 집에 들어설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 《포성》과 포성

### 박 명 출

쿵— 쿵쿵...

잔잔하던 바다기슭에 포성이 울었다

철썩 처절썩

수억년 파도소리만 높던 기슭

사나운 파도를 밀어내자고

바다에 장훈을 부른 대발파

조금 떨어진 바다 저편엔

원썬놈들 도사린 연평도

원썬들의 총구멍 보일듯 지척인데

우리의 발파소리에 놀라

통매도에서 포사격을 한다고 갈팡질팡

우리의 《포사격》에 대응한다고

원썬들 포사격훈련에

20리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건설의 발파소리와 전쟁연습의 포성이

바다를 끓이는 서해의 열점지역이어

불맛은 맹수마냥 날뛰며

원썬들 포사격훈련을 한다고

우리 건설의 발파소리 멈추라

산을 허물고 바다를 메우는

건설의 발파소리 메아리치는 기슭

어데선가 들려오네 노래소리

《우등불》의 랑만에 넘친 노래소리

노래소리에 화답하듯

지심을 흔드는 발파소리

원썬들은 전쟁의 화약내를 풍기지만

우리는 대진군의 포성을 울린다

한메터한메터 바다로 바다로 뻗는 제방은

원썬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며

마치 원썬들의 숨통을 찌르는 총창인듯

원수님 가리키신 날바다 저 한끝을 향해

우리 두려움없이

우리 신심드높이

원썬들의 전쟁포성을 짓누르며

대진군의 포성을 울린다

쿵 쿵쿵...

아, 조국의 대지를 넓히고 아름답게 꾸리는것

이것이 우리의 건설전투이거니

우리는 땅을 넓힌다

영원무궁할 삶의 더전 평화의 성새를!

## 두견 화전 기

리 빈

백호 립제(1549-1587)는 일찌기 《서옥설(재판 받는 쥐)》, 《화사(꽃력사)》, 《수성지(시름의 성)》 등 이채로운 소설들을 창작하여 우리 나라 소설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을뿐아니라 특색있는 시편들을 많이 내놓아 시가문학사에 많은 기여를 한 문인이다. 그는 또한 권세에 도전하는 불굴의 기백으로 하여 한평생을 량반세도가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는가 하면 귀천을 가리지 않는 자유분방한 평민적성품으로 창조한 인상깊은 일화들의 주인공으로서도 이름이 높다....

그가 평안도 도사(감영의 종5품관)로 임명되어가던 길에서의 일이다. 개성을 지나는 기회에 그는 황진이의 묘를 찾아갔다.

절색명창 황진이는 그 어떤 구속에도 얽매일줄 모르는 뛰어난 기지의 소유자로서뿐만아니라 주옥같은 시들을 창작하여 조선문학사의 한페지를 당당히 차지한 녀류명사이다.

간단한 제물을 차려들고 황진이의 묘소앞에 이른 립제는 향불을 피우면서 추모의 즉흥시조 한수를 처량하게 읊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량반사대부들은 량반인 립제가 천한 기생따위의 평혼을 위로코저 묘전제사를 지냈을뿐아니라 글까지 남겼다고, 이는 곧 반렬(량반계층)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였다. 더우기 어명을 받들고 임지로 가던 길에 기생의 무덤부터 찾은것자체가 특히 무엄불측하다고, 까닭에 립제의 관직을 삭탈하고 신분마저 서민으로 떨어버려야 마땅하다고 사방에서 고아됐다.

그들은 이에만 그치지 않고 임금에게 상소문까지 올리기에 이르렀는데 결국 선조는 상소를 접수하고 립제를 파면시켜버렸다. 량반세상에서 량반들의 체면을 깎아내렸으니 어찌 처벌을 면할수 있으랴.

그후 형상은 량관 하나를 립제에게 보내어 황진이 추모시를 포기하고 세상을 상대로 사죄를 하면 임금에게 복직건의를 하겠노라고 그를 열리였다.

립제는 그 소리를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립제는 자기의 글을 벼슬자리와 바꿀 시라소니가 아니었던것이다.

글은 곧 쓴 사람의 녀이다. 하거늘 벼슬자리가 뭐길래 그것을 바라서 제 녀를 어찌 스스로 짓밟을수 있단 말인가. 더우기 진심으로 존경하여마지 않

는 황진이에 대한 배신과 같은 그따위 바꿈질놀음은 본직복귀가 아니라 설사 령의정자리를 준다 하여도 결단코 넘겨다보지 않을 그였다.

한양을 떠난 립제는 사흘만에야 늦은아침 목적지인 평산땅에 들어섰다. 그는 멀리 평산고을을 바라보며 흐뭇한 생각에 잠겼다.

(벼슬을 벗으니 제 맘대로 가고싶는데 다 가고 보고싶은 사람 다 보고... 좋을시고, 이 평산길도 그 덕이렷다. 벼슬이란 알쭉한 굴레란 말이야, 굴레. 흥!)

벼슬자리에 앉아있으면 아래사람들은 당부당 고하간에 놀려야 하고 웃사람들은 가부간 덮어놓고 떠받들며 아양을 펴어야 한다. 그러자니 얼마나 고달픈가.

그 어떤 속박도 질색인 립제이고보면 떼운 벼슬에 미련을 둘 까닭이 없는것이다.

사실 벼슬에서 떨어진 후 홀가분한 마음으로 활개를 저으며 살아가던 립제에게 얼마전 평산의 백경으로부터 편지 한통이 날아왔었다. 체자이자 친구이기도 한 백경은 3년전에 시작된 글이 요즈음에야 비로소 끝이 났다고 소식을 알리면서 나는 공교롭게도 다리에 담이 들어 움직이기 어려워니 립선생이 한번 와서 보아달라, 그러되 될수록이면 두견화(진달래)철을 맞추어와서 립선생이 그처럼 사랑하는 산천경계에 대한 탐승과 더불어 화전놀이까지 함께 참가하면 더더욱 기쁘겠다, 뿐더러 립선생이 앞서 여러 기회들에 평산땅을 밟으면서 이미 서로 친숙해졌던 농부들이 립선생을 보고싶어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헤아려달라고 썼다.

글을 좋아하고 산천구경을 좋아하고 상하귀천을 불문하고 못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립제가 이를 마다할소냐.

립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이 세가지 취미를 고려문호 리규보에게 비겨 《삼렬호선생》이라 자칭하면서 이 별호를 은근한 자랑으로 쓰고있는 사람이다.

당대의 시성으로 불리울만큼 특출한 시재로 명성이 높을뿐아니라 《삼혹호선생(시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거문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별호로도 유명한 리규보를 스승으로 모시고있는 립제로서 스승의 별호를 본따 자기의 별호를 만



들어섬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인것이다.

림제는 일찌기 한해에 한번정도 평산의 백경을 찾아가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농부들의 손에 끌려 무슨 풍속명절이요 누구 결혼잔치요 생일이요 하는 자리들과 사랑방출입도 마다하지 않는 기회에 그들과 허물없이 인연을 맺었으므로 백경의 부탁은 그럴만 한 이유가 있었다....

평산고을 어구에 이르렀을즈음 림제는 결심을 내렸다.

(이제 군수 강사문이부터 만나야겠다. 그 사람 얼마전에 새로 부임했다지. 그가 이제껏 뒤소리를 해왔듯이 내앞에서까지 맞대놓고 덜되게 굴면 제편에서 그 값을 치르도록 버릇을 가르쳐야겠어.)

여러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다른 량반관료들과 마찬가지로 강사문이기도 림제가 쓴 황진이 추모시를 걸어 뒤시비질에 열을 올렸다고 한다.

한양과 지방의 못량반들속에서 자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물끓듯 일어나자 크게 노한 림제는 돌아가면서 그들모두의 입에 한주먹씩 톡톡히 들ان기고싶었다. 했으나 그는 꼭 참았다. 그렇게 할수도 없거니와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변치 않을것이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가는 길에 맞닥뜨리는자야 왜 그냥 스칠가보나.

내아 별채마루에서 강사문을 만나게 되자 림제는 《나는 림백호로 불리우는 한양서생이요. 여기 문촌의 백경이 불려서 온길에 이곳 판장부터 찾아 인사를 해야했기에 이렇게 왔소.》하고 판가에 들리게 된 이유를 밝혔다. 강군수는 혼연히 대답했다.

《고답소. 소문에 글재주가 뛰어난데다가 글재주 못지 않게 기지 또한 뛰어나고 량반사족이건 평민상한이건 가림없이 잘 어울린다는 백호선생이 어떤 위인인가하여 궁금했었는데 이렇듯 몸소 찾아와 주니 반갑소.》

《나와 절친한 문우 백경이 문집초고를 끝냈다고 날더러 와서 봐달라는 기별을 띄웠기에 그래 왔는데 그의 글을 본 다음 이곳 두견화전놀이까지 구경을 한 뒤 돌아갈가 하오.》

《백경이 문집초고를 끝냈다고?... 선생이 두견화전놀이구경을?》

저으기 놀라는 품이 강사문에게는 두가지가 다 쓰거운 모양이었다. 림제는 그의 달갑지 않은 반문에 기분이 잡혔다. 가뜩이나 강사문을 뒹삼스레 보고있는데 이렇듯 그에게서 귀거슬리는 소리까지 튀어나오자 림제는 속으로 (웁지, 너 잘한다. 어디 보자!) 하고 버리지 않을수가 없었다.

강사문은 대답을 들어야했던지 기다리듯 한동안 림제를 지켜보다가 느릿느릿 말을 꺼냈다.

《내 듣자니 근자에 이런 시구 한편이 떠돌고있

던데.

청초 우거진 곳에 자난다 누웠난다  
홍안은 어디 두고 백골만 물렸난다  
잔 들어 권할이 없으니 그를 슬허하노라

이 글은 백호선생이 개성기생무덤앞에서 읊었다 더군, 웁소?》

《...》

뻔히 알면서도 비꼬는 뜻이 뚜렷한 물음에 림제는 격분했다. 글의 주인공을 향간에서 흔히 쓰는 호칭대로 명월 혹은 그저 황진이라 부르면 모르겠거니와 일부러 기생이라는 비칭으로 찍어대는 심보가 꽤썩했던것이다. 울컥 치미는 마음갈아서는 《네가 도대체 뭐길래 따지느냐!》하고 면박을 주고 싶었지만 아서라, 대결은 아직 이르니 노는 꼴을 좀더 지켜보다가 자갈을 물려놓으리라 마음먹고 꼭 참았다.

《그건 내 글이 맞소.》하고 천연스레 대답을 하고난 림제는 일부러 배포유하게 물음을 던졌다.

《그런데 안전계선 화담선생을 어떻게 보시오?》

이것은 그답게 기지있는 정황처리였다.

강사문은 곧 거침없이 대답했다.

《존경하오. 그 화담선생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황진이는 강공이 존경하는 그 대학자 화담 서경덕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성품을 그대로 따라배우려는 일념으로 자기의 별호를 〈서화담〉이라고까지 부른 녀걸이요.》

《?!》

림제는 공간을 두지 않고 다곳들 계속했다.

《세상에 소문이 자자한 〈송도삼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황진이가 아니겠소!》

상대를 궁지로 몰아가는 수법은 점잖았으나 그 속에 박힌 창끝은 날카로웠다. 그 창끝이란 다름 아닌 《황진이는 그렇듯 홀대 못할 명사이니 함부로 시비를 붙이다가는 무지렁이가 된다.》는 경고였다.

이것을 감촉하지 못할만큼 우둔한 사람은 아니었던지 강사문은 저으기 주눅이 든 어조로 《내 왕년에 궁금했더라니 마침 선생과 이렇듯 마주앉게 된 김에 그저 한번 물어본건데 이제는 깨쳤으니 속이 시원하오. 그만하기요.》하고 헤어지자는듯 한손을 내저으며 먼저 일어섰다.

사태가 이렇게 번져지고보니 여차직하면 본때를 좀 보이려던 림제의 작정은 싱겁게 끝날밖에 없었다.

강사문은 이제껏 림제가 만만치 않은 선비라는



말만 들어왔을 따름으로 그의 진정한 인품은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황진이가 서경덕을 스승으로 모실 정도의 인격자인 줄 역시 알지 못하던 차에 오늘 직접 림제를 만나보고서야 비로소 첫인상에 벌써 그의 기품을 알게 된 동시에 황진이에 대한 파악도 생겨 급기야 자신이 경박한 줄 깨닫고 황황히 자리를 뜨게 되었던지도 모른다....

림제는 백경의 초고를 품을 들어 읽었다. 다양한 상식을 통하여 민족풍속의 자락을 지향한 패설류의 글이었다. 림제는 기뻐했다. 그가 마지막 책장을 넘기었을 때 백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습니까?... 멀리로는 익재(고려 중기의 문인 리제현) 선생의 〈력옹패설〉을, 가까이로는 용재(조선봉건왕조 세종때의 문인 성현) 선생의 〈용재총화〉를 본받느라 굵적거려보았는데 이제 세상에 내놓아 웃음거리나 되지 않겠는지요?》

《웃음거리라니! 나무랄데 없는 찬양거리요, 우리 단군민족의 여러가지 풍속에 대한 기록은 익재 선생이나 용재 선생보다 훨씬 상세하고 깊이가 있소. 그 가운데서 춘삼월 두견화전놀이 풍속같은 건 어찌나 생동한지 사뭇 한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소! 아울러 이에 비기지 못할 자그마한 폐의 풍속—이를테면 오솔길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누구건 서로 먼저 길을 비켜준다던가 또 흔한 물을 한모금 얻어마셔도 반드시 고맙노라 인사를 하는 등 우리 단군민족의 미풍량속을 어찌나도 고상한 필치로 밝혀놓았는지 읽느라 하면 노상 마음이 숭엄해지오. 우리 겨레의 생활 하나하나를 그토록 알뜰히도 사랑하고 진정을 담아 기록한 필자의 그 마음 얼마나 아름답소. 아무렴 조선의 문인은 그래야지!》

숫구치는 그대로 감동을 쏟아놓은 림제는 잠깐 숨을 돌리고 나서 저도 모르는 사이 혼자말처럼 《그런데...》하고 나직이 외었다. 백경이 놀랐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어디가 잘못됐는가요?》

《잘못까지야 뭘, 글전부가 원만하니까 그대로 세상에 나가도 손색은 없겠으나 욕심을 부린다면...》

《아무래도 내가 큰결 농친 모양입니다. 어서 가르쳐주십시오.》

《화전놀이 항목에 어원해석이 없는데 그걸 보태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아 선생님, 바로 보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알수가 없더라니 적당히 슬쩍 넘겨버렸습니다. 량심없는 행위를 저질러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백경은 별정계 달아오른 얼굴을 깊이 숙였다.

그가 몹시 괴로와하는 모습을 보니 저으기 난처해한 림제는 괜한 말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가 들었다. 백경이 절절히 청원했다.

《선생님, 이 제자가 세상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쳐주십시오. 어원해석이 글에서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합니까.》

림제는 감동되었다.

(백경 저 사람 내가 제자로, 친구로 삼기를 잘했어. 참사람이거던. 저런 자세로 붓을 들어야 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꺼이 입을 열었다.

옛적 김광옥이란 문객이 화전놀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조를 썼다.

최행수 쪽달임하세

조동갑 꽃달임하세

닭짹, 게짹, 오려점심 날 시키소

매일에 이렇성 지내면 무슨 시름 있으랴

여기에서 《꽃달임》이란 말은 화전(花 꽃 화, 煎 달일 전(지질 전)) 즉 풀어말하면 꽃을 다린다는 뜻이다.

또한 화전놀이를 《꽃따림》이라고도 이르는바 이것은 화전놀이에서 부녀들이 즐겨부르는 노래 《화수가》를 직역한 이름으로서 꽃을 따라 놀이를 벌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림제는 자기의 말을 부지런히 써나가는 백경을 그윽히 바라보며 은근하게 다음과 같이 아귀를 지었다.

《부녀들이 화전놀이에서 〈꽃따림노래〉 즉 〈화수가〉를 부르게 된 까닭인즉 꽃달임놀이를 하자면 사람들이 진달래가 피는 산으로, 다시말해서 꽃을 따라가야만 이루어질 놀이인것으로 하여 화전놀이 즉 〈꽃달임〉놀이를 〈꽃따림〉놀이라고도 달리 부르게 된 것이요.》

백경은 《훌륭합니다! 고맙습니다!》고 환성을 울리며 멈춘 붓을 놓을 사이도 없이 두손에 땀을 든 어린애마냥 기뻐 어쩔 줄 몰라 계속했다.

《아, 선생님! 천금같은 가르치심입니다. 꽃을 달여먹으니 우리 말로 〈꽃달임〉 한자로는 〈화전〉, 꽃을 따라 산으로 가서 벌리는 놀이라 우리 말로 〈꽃따림〉 한자로는 〈화수〉, 선생님, 이 얼마나 단군민족향기가 짙게 풍기는 이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우리 민족이 원래 아름다운 민족이라 그가 창조한 풍속마다 아름답고 이름마다 아름다울밖에!》

《참으로 웅습니다.》

자기 글의 완성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백경은 한상 차리었다.

림제가 첫 잔을 받아들고 참꽃향기가 풍긴다고 좋아하자 백경이 지난해 이맘때쯤에 참꽃을 따다 넣고 고은 술이라고 자랑비슷이 대답했다. 참꽃이란 진달래를 이르는 말이다. 림제가 이 술은 화전놀이

때 쓸 술갈데 내가 먼저 맛보는게 아닌가고 미안해하자 백경이 얼른 그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화전놀이에서야 진달래꽃지짐이 첫째라 바로 그래 〈화전〉이란 말도 나왔는데 그 지짐맛이 첫째진달래술쯤이 뛰이겠습니까. 내 글에서도 품을 아끼지 않고 썼지만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후대들에게 넘겨준 화전놀이야말로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마음을 맑게 해줄뿐만아니라 사람들 호상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로서 다른 모든 풍속들과 마찬가지로 정서가 짙은...》

백경은 문득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술술 쏟아놓던 풍속레찬을 중간에서 끊고 낮빛을 흐리었다.

《왜 그러오?》

《저, 아무래도 좀 상스럽지 못한 일이 생길것 같아서...》

《그건 또 무슨 왕청같은 소린가, 갑자기?》

《이번 화전놀이에 고을량반유지들과 함께 신관사또 강사문이도 참가한다는데...》

《아하! 그런들 어쩔단 말이요. 그도 조선사람이 분명한즉 제 겨레풍속을 따름이 옳지 않겠소.》

《그렇긴 하나 모름지기...》

《알만하오, 알만해. 그 량반이 황진이를 두고 읊은 내 글에 대해 삿대질을 많이 했던지라 이번 화전놀이마당에서까지 나한테 어떤 편치 않은 일을 빚어낼것 같아 그 노릇이 저어된다 그거겠지?》

《예.》

《그 녀려는 고맙소만 마음놓소. 그쯤 덜된것을 꺼려한다면 내가 무슨 백호겠소.》

《거 뭐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강씨네 선산에선 부지깽이감 하나도 꺾지 말라〉는, 강씨들의 성질이 그렇듯 고약하기 짝이 없으니 십분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강군수는 관권까지 쥐고있지. 또...》

《또 뭐요?》

《선생이 권세가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고 하여 속이 꼬부장해있던차에 황진이 추모시가 나타나자 더욱 악이 받쳤던 이곳 량반들이 강군수와 한덩이가 되어 울력으로 선생을 건드리려들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 선생이...》

《그럴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네들이 어떻게 나오건 이 백호가 설마한들 명절흥을 깨기야 하겠소. 모처럼 차려진 콧웃술맛 잡치니 우리 그런 말 더는 말지요. 내 형편을 봐가다가 그 마당에서 황진이를 못 잇는 시 한수를 또 짓겠소.》

《백호선생 그 불같은 성미에 마음먹어 못할 일 뭘겠소만 부디 삼가해주십시오. 사대부의 근본을 잊고 그 근본에 대고 야료부리기가 일쑤라고, 량반신분에 기생의 죽음을 슬퍼해서 량반들을 모독했다고 선생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량반이 뭐 강

사문이 하나뿐인줄 압니까.》하며 백경은 못내 근심을 놓지 못하였다....

활짝 핀 진달래로 한벌 덮인 골안은 퍼그나 넓었는데 한복판으로 시내물이 구불구불 흘렀다.

바닥이 번듯한 원편에는 아전이며 하인들, 기생악공들을 데리고 올라온 군수이하 고을량반들이 자리를 잡았고 개울 건너 오른쪽으로 얼마간 처진 곳은 농부들이 차지했다. 평산고을사람들은 해마다 정해놓고 여기로 올라와 반상간에 개울 하나를 사이두고 화전놀이를 펴곤 했다. 한것은 읍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인데다가 탁족에 유리하게 시내를 낀 골안이 흰하게 넓었으며 다른 산들보다 류달리 밝은 빛의 진달래가 많았기때문이었다.

강사문을 비롯한 량반들은 화전놀이의 첫공정인 탁족(발씻기)에 먼저 달라붙었다. 이들은 저마끔 마음드는 돌우에 엉덩이를 붙이고 겹버선을 벗어 뒤에 놓고나서 기분 좋게 팔팔 흘러내리는 시내물에 발을 담갔다. 개울 건너편에서도 구름처럼 모여든 농군들이 무릎우까지 바지가랭이를 훌쩍 걸어올리고 다투기라도 하는듯 침범침범 물에 뛰어들었다. 이와 어울려 개울 이편저편 녀인들속에 벌써 《화수가》의 맑은 선물이 가락맞게 흐르면서 모두의 흥을 더욱 부쩍 돋구었다.

림제가 백경과 함께 나타났을 때 강사문은 《백호선생, 오늘 우리 함께 명절을 즐겨보지요.》라고 짹막히 인사를 건넌고 그뒤로는 아무 소리 없었다. 다른 량반들도 그의 본을 따르기로 사전약속을 해두기라도 하였던듯 메마른 한두마디 말로 인사를 그쳤다.

원래 성격이 어느때 누구앞에서이건 제 배짱대로만 하고 정의감이 강한 본바탕우에 능란한 기지로 세도량반들을 곧잘 조롱하는 림제는 못량반들로부터 되게 미움을 사고있었다.

그가 누구이든 그앞에서 너절하게 처신하거나 조금이라도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날에는 가차없이 걸쭉한 조롱과 해학의 대상이 되어 툭툭히 망신을 당하곤 하였다. 이런 정황속에서 황진이의 넋을 위로한 림제의 글이 세상에 나타난것은 그가 미워 앙앙불락하던 량반들에게 그의 뺨을 칠수 있는 마침의 기회로 되었다. 그들은 말했다.

《근본을 모독한 뼈꾸기새끼 그놈, 제가 친 옹노에 제가 걸렸지, 흥!》

하어 그들은 림제의 주먹에 제 상투가 날아나기라도 한듯 펄펄 뛰며 저녁 굶은 시에미상판처럼 얼굴이 시퍼래서 반렐로부터 축출해야 한다고 떠들어 댔던것이였다.

(다음호에 계속)

## 시대의 숨결과 호흡을 같이하는 시인

지난 2월 중순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잡지 편집부앞으로 부피두툼한 등기편지가 왔다.

결봉에는 이미 친숙해진 활달한 필체로 평안남도 순천시 부흥동 홍민식이라고 쓴 발신인의 주소와 이름이 시인의 모습처럼 안겨왔다.

편지를 개봉하고 속지를 뽑아보니 이미전에 편집부가 청탁한 석탄주제의 서정시였는데 제목은 《가슴저린 10년》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전력,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고 하신 강령적공업을 높이 받들고 석탄생산에 펼쳐나선 탄부들의 마음을 노래한 시였다.

시의 내용이 얼마나 열렬한지 지하 천척깊은 막장에서 방금 안아낸듯 시어마다에서 검은금의 광채가 번쩍이었고 들크무레한 발파냄새가 풍기는듯 하였다.

이미 거의 30년나마 그와 편지와 출판물의 지면을 통하여 친숙했을뿐 그를 만나본적도 없었으며 그에 대하여 알고있는것도 별로 없었다.

알고있다면 현재나이는 69살, 38살 한창나이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척추골절하반신마비로 침상에서 거의 30년을 창작생활을 하고있다는것 그리고 현재 2.8직동청년탄광 차광수청년돌격대 명예탄부로 등록하고 탄부들을 고무추동하는 서정시들을 비롯한 300여편의 서정시와 가사를 창작하였다는것, 이것이 편집부가 알고있는것의 전부였다.

우리는 그의 창작적성과를 축하해주고 앞으로도 계속 사상예술성이 높은 시와 가사들을 창작하도록 고무해주기 위하여 취재길에 올랐다.

### 시인을 찾아가는 길에 만난 사람들

취재길에 오른 우리의 일행은 《평남일보》특파원가자며 시인인 리수웅동무와 시내의 몇몇 문학청년들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은 시대의 가수, 시대의 나팔수가 되여야 한다. 가슴에 늘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며 시대의 숨결과 호흡을 같이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시인이 될수 있다.》

우리가 찾아가는 시인 홍민식동무가 사는 부흥마을은 순천시에서 30리가량 떨어진 석탄과 세멘트 생산지구였다.

우리는 그가 살고있는 부흥마을까지 걸어서 가기로 작정하였다. 그것은 그가 30여년전에 젊음과 열

정에 넘쳐 오고가던 길, 하지만 지금은 그 길에 찍혀지지 못한 시인의 자욱을 대신하여 남겨주고싶은 심정에서였다.

시인들의 행군길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시의 행군이라고 말해야 옳을것이다.

나는 일행에게 그가 쓴 시 《가슴저린 10년》의 초고를 펼쳐들고 목청을 높여가며 읽어주었다.

그것은 로상에서의 합평회라고 하는것이 정확할것이다.

늘 석탄문제로 마음쓰시며 자신께서 10년만 젊어도 막장에서 석탄을 캐시겠다신 어버이수령님의 간절한 심증을 가슴에 안고사는 탄부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은 시였다.

...

탄벽을 마주해도 생각되는 10년  
꿈결에도 어려오는 그 10년  
발전소굴뚝을 보아도  
불밝은 살림집창문을 보아도  
그 10년이 떠올라 떠올라

...

아, 가슴저린 그 10년  
죄책의 10년을  
비약의 10년  
번영의 100년으로 앞당기리라

시의 초고를 서로 돌려가며 보면서 시를 두고 오가는 열변의 목소리가 얼마나 높았던지 우리들의 옆을 지나가던 길손들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우리들을 쳐다보다가 뜻있는 웃음을 지어보이곤 하였다.

한 10리가량 걸어가느라니 우리앞에 세가닥진 길이 나지였다.

우리는 자전거뒤에 꽃보자기로 싼 큼직한 보침 싣고 천천히 걸어가는 로인내외를 만나 부흥마을로 가는 길을 물어보았다.

마침 로인내외는 자기들도 부흥마을로 간다면서 여간 반가와하지 않았다.

또다시 열변속에 우리의 시행군은 이어졌다.

한참 가느라니 로인내외는 우리의 일행을 보고 《손님들은 분명 평양에서 오시는 선생님들 같은데 혹시 부흥마을에 사는 홍민식작가선생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신지?...》라고 묻는것이였다.

그렇다고 하자 로인내외는 자기 집을 찾아오는 귀한 손님인듯 기쁨을 금치 못해하면서 부흥마을에

사는 셋째아들이 오늘 생일날이어서 거기로 가는 길이라고 말을 덧붙이였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환성을 올렸다.

취재대상에 대한 글감들을 쉽게 손에 넣을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기때문이었다.

사실 개별적사람들에 대한 취재에서 제일 애를 먹는것은 그들이 자기가 해놓은 일에 대해선 좀처럼 말을 하지 않기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를 잘 알고있는 동행자를 만났으니 그것은 우연한 행운이라고 할가 뜻밖의 횡재라고 할가.

홍민식동무에 대해서 잘 알고있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나머지의 행군길에 더 많은것을 알고싶어 연방 질문을 들이대었다.

보집을 실은 자전거를 일행중 한명이 맡고 또 다른 동무는 담배에 불까지 붙여드리었다.

자기들은 홍민식동무와 총각시절부터 한공장에서 같이 일하였으며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한동네에서 처마를 나란히 하고 자별하게 지내던 사이였다고 하면서 로인이 말쑥지를 떼기 시작하였다.

그가 1975년 평양기계대학 기계제작학부를 졸업하고 홍안의 시절에 벌써 년간 수십만톤생산능력을 자랑하는 세멘트공장의 설계설장을 거쳐 공장설비과장 그리고 부문당비서로 사업하고있을 때 자기는 설비과 부원으로 일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던중 1983년 뜻하지 않은 사고로 척추골절하 반신마비라는 치명상으로 38살의 아까운 나이부터 오늘까지 침상에서 시를 창작하고있다는것이였다. 로인의 안주인도 홍민식동무의 안해와 함께 같은 공장에서 함께 일하였다고 하면서 홍민식동무의 안해에 대하여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운신 못하는 남편의 뒤시중을 하면서 4마리의 돼지와 닭, 오리 그리고 탄부들과 소성공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가지고 탄부들과 소성공들을 찾아가 남편이 현지에서 쓴 시도 랑송해주고 노래도 불러주며 생산열의를 높여주었다는것이였다.

자랑은 그것만이 아니였다.

남편이 쓴 시를 가지고 그의 팔다리가 되어 도작가동맹과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분과 그리고 우산장창작실을 찾아가 시에 대한 의견을 받아오기를 수십번이나 된다는것이였다.

시인 홍민식동무를 찾아가는 짧은 시간에 우리는 폐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였던 젊은 시절의 그 모습으로 오늘도 시창작에서 온몸을 초불마냥 불태우고 있을 그를 눈앞에 방불히 그려볼수 있었다.

## 희망에서 실천으로

고마운 로인내외의 안내로 우리가 그의 집을 찾았을 때에는 우리들의 상봉을 축복해주듯 맑은 하늘에서 한두송이의 함박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12시

경이었다.

낮은 산턱에 줄을 맞춰 앉은 살림집구획을 조금 지나 약간 유촉진 곳에 하얀 울바자를 두른 세칸짜리 살림집이 시인 홍민식동무가 사는 집이다.

대문이 부름종의 빨간 단추를 누르자 나이지숙한 안주인이 우리를 맞아주면서 의아한 기색을 보이었다. 뒤에 섰던 로인내외가 한발 앞서나서며 평양에서 설비과장을 찾아온 기자선생들이라고 소개하였다.

설비과장, 참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호칭이었다. 그것은 아직도 젊은 시절의 열정과 패기로 살기를 바라는 어제날 로동생활 벼들의 진정이 담긴 부름이었다.

고마운 로인내외와 작별하고 안주인의 안내를 받아 우리는 그의 집 아니, 그의 창작실로 들어섰다.

침상에서 30여년, 나이는 거의 70을 가까이 하고있으나 장대한 기골, 초불이 타는듯 한 온화하면서도 정기넘치는 눈빛, 입귀가 약간 들리어 웃는 인상을 강하게 주는 그가 우리가 찾아간 시인 홍민식동무다.

간단한 소개인사와 례의적인 문안을 마치고 우리는 그의 침상옆에 놓인 탁자를 사이두고 마주앉았다.

탁자우에는 위대한 장군님 로작들과 장군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여러권의 문학작품집들 그리고 새로 나온 시집들이 있었다.

그리고 창작증임을 말해주듯 원고지우에 원주필이 놓여있었다.

대나무무늬벽지를 바른 바람벽 동쪽방향으로 낸 창문으로는 직동, 천성, 무진대, 송남의 크고작은 탄전들을 품어안은 사각봉전체가 한눈에 안겨오고 남쪽으로 낸 창문으로는 세멘트공장의 웅장한 모습이 그림처럼 보이는데 두 창문사이에 걸어놓은 커다란 액틀속에 가득찬 지원증서들이 그와 그의 가정이 바친 애국의 마음을 말해주고있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미 로상에서 취재한 내용들로 생략되고 그가 어떻게 되어 시작품을 창작하게 되었는가의 물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몸을 반쯤 일으키더니 탁자우에 포개여놓은 시집중에서 시집 한권을 찾아 우리앞에 내놓는것이였다. 영예군인시인 김시권선생의 첫 시집 《또다시 대오에서》였다.

그 순간 우리들의 눈앞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기소대 소대장으로 전투를 지휘하다가 원주의 총탄에 척추가 골절되어 운신조차 할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중기관총의 압철을 누르던 손에 펜을 틀어쥐고 시의 전선에서 창작의 나날을 보내던 시인의 모습과 함께 시인 홍민식동무의 모습도 어려왔던것이다.

척추골절치명상으로 1년간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매일 눈물과 절망속의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이른아침 출근길과 늦은밤 퇴근길이 눈앞에 어  
려오고 설계도면을 넣은 가방을 메고 평양의 설계  
연구소로 출장가던 그 길이 그리웠고 그 길에 찍  
혀진 자욱들을 추억으로만 밟아보게 되었다는 생  
각에 침대를 흔들며 사나이의 울음을 터치던 어느  
날이었다.

매일이다싶이 그의 병문안을 오곤 하던 공장초급  
당비서가 며칠만에 나타나더니 가방에서 여러권의  
시집들과 시창작에 도움이 될 참고서들을 내놓는것  
이었다. 그리고 동무는 지난날 기술로 당에 충정을  
바쳐왔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초소 문학창작의 대  
오에서 당과 수령님께 충정을 다해야 한다고 신심  
과 용기를 주었다.

그날 그가 준 시집중에는 시집 《또다시 대오에  
서》도 있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는 이 시집을  
구입하기 위해 시집의 편집원인 박세옥선생의 집까  
지 찾아가 시인 김시권선생과 다름없는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시집을 부탁하였다고 한다.

그날 공장초급당비서동지는 시창작은 당적분공  
이라고 하면서 그의 침상에서 시집을 펼치더니 서  
정시 《창을 열어다오》와 《삶》을 읽어주었다고  
한다.

그는 그날의 못 잇을 당일군의 모습을 눈앞에 새  
겨보듯 시 《삶》을 읊는것이였다.

...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목숨이 아니다  
혁명대오에 제자리를 차지하는것  
투쟁 잃은 삶은 죽음이거니  
죽어도 영원히 사는 법을 배우라...

절망에서 희망으로, 희망에서 현실로 전환되던  
그날을 펼쳐보이는듯 한 그의 목소리는 고조되어  
우리들의 가슴을 들먹이게 하였다.

...

생의 길과 투쟁의 길을 한끝까지 맺으리라  
진정 혁명에 공헌을 못하고 부담이 될바엔  
이 세상에 애당초 나지 않는것이 낫다  
조국앞에 위훈없는 생을 어찌 살았다 하라

내 살아 시대의 사명을 다하리라!  
못다한 일을 두고 두눈을 감을 권리 없다  
오, 참다운 삶은 길고 짧게 사는것이 아니다  
불타는 심장을 값높게 당을 위해 바치는데 있다

취재는 벌써 끝난셈이다.

그것은 《생의 길과 투쟁의 길을 한끝까지 맺으  
리라》고 한 시의 구절이 시인 홍민식동무의 시창  
작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을 다 말해주었기때  
문이었다.

그는 그날에 받아안은 당적분공을 시작품으로 집  
행하기 위해 피라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드디어 창작의 진통속에 태어난 그의 첫 시 《당  
이여 그대만을 위해》가 1985년에 도방송과 《평남  
일보》에 발표되었다.

우리는 그의 첫 시를 펼쳐들었다.

우리모두의 눈굽은 젖어있었다.

모진 진통의 기쁨속에 첫 아기를 받아안은 산모  
의 마음이랄가 침상에서 그가 당조직에서 준 분공  
을 집행한 기쁨을 함께 느끼는 마음이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한 시인 리수웅동무가 그의 첫  
시를 랑송하였다.

...

내 몰랐노라  
생의 첫 울음 터친 그때 벌써  
천진한 얼굴에 웃음만 함뻑 담으라고  
새별같은 눈동자에 밝은 빛만 비끼라고  
안아준 따사로운 사랑 있는줄...

...

그 품은 백만이면 백만  
천만이면 천만  
이 땅의 뜨거운 모든 심장들을  
하나와 같이 안아 품어주는  
은혜로운 사랑의 그 품

해빛을 받아 피는 꽃  
태양을 향해 웃듯이  
당이 준 심장  
오직 당을 위해 불태우리라  
이 품이 천백이 되어 다 바치고싶은  
위대한 사랑의 품이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이여!

시랑송이 끝나자 집안에는 열광의 박수가 울리었  
다. 그리고 젖은 눈길들은 하얀 벽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우러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따사로운 사랑  
의 품이 아니었다면 마음의 고백인 이런 시가 태어  
날수 있었으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사  
랑이 있어 다시 찾은 삶에 대한 폐찬과 당에 대한  
고마움을 노래한 300여편의 서정시와 가사가 태어  
나게 되었고 시인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안겨 시대의 가수로, 시대의 나팔수로 시대의 숨결  
과 호흡을 함께 하는 시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는것 아니겠는가.

그는 고립무원한 속에서 창작을 하지 않았다.

동지들과 집단의 사심없는 사랑과 고무속에서 한  
자욱한자욱 시의 세계로 돌입하게 되었다.

때로는 모진 진통으로 손조차 움직일수 없을 때  
는 구술로 안해가 받아쓰게 하였고 세발자전거에



몸을 싣고 막장과 공장으로 나가 체험도 하였다.

그리고 도작가동맹 작가들과 이름있는 시인들의 창작경험을 알고싶어 보낸 편지와 받은 편지는 또 얼마였던가.

그는 우리앞에 고마운 시인들의 아낌없는 방조에 대하여 잊지 못해하면서 편지묵음을 내놓는 것이었다.

오영재, 박호범, 오영환, 류국진, 변홍영, 김성조, 정성환, 강남섭, 박상민, 럽형미 그리고 편집부에서 보낸 편지들도 있었다.

한 인간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희망에서 시인으로 가는 길에 지름길의 이정표가 되고 때로는 어깨동무가 되고 동행자가 되어준 시인들의 모습에 가슴뭉클해짐을 금할수 없었다.

작가들의 사심없는 방조와 지도가 있었기에 그는 10여편의 가사를 창작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었으며 오늘도 활력에 넘쳐 시대의 명작을 창작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릴 일념을 안고 심신을 불태우고있다.

어느덧 시인과 작별할 시간이 되었다.

우리 일행은 그를 찾아올 때처럼 걸기로 하고 귀로에 올랐다.

시인 홍민식동무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자국 자국 행복을 수놓은 길이였건만 그가 이제 걸어갈 땀길도 행복만이 있음을 확신해주듯 맑은 하늘에서는 함박눈이 송이송이 내리고있었다.

함박눈 내린 길우에 자욱을 뚜렷이 새기며 우리 일행의 시의 행군은 시작되었다.

우리 일행의 앞장에 시인 홍민식동무도 흰눈우에 자국을 함께 남기며 걸어가고있었다.

본사기자

**조선문학** 주체103(2014)년 제9호 (루게 제803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 체 103(2014)년 9월 1일

발 행 주 체 103(2014)년 9월 5일

ㄱ-46932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4

D P R Korea

ISSN 1727—9437